

역사 액션 스릴러 미스터리

호랑이 사냥

(Tiger Hunt)

변준석

01071233065

truejune@naver.com

1. 전차 - 밤

멈추어 선 전차 안, 짙은 어둠과 함께 포연으로 희뿌엇다.
불규칙적으로 깜빡거리는 전등과 비 떨어지는 소리 외엔.. 모든 것이 멈췄다.
전차 앞 가운데 달력에 보이는 1949년 6월 1일.

곧, 전차 앞문이 열리고, 권총을 든 서준(28), 뛰어 올라선다.
총구를 겨눈 손이 떨려오는 서준.
보면, 핸들에 머리를 처박고 죽은 운전사가 보이고
전차 안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으로 수백 갈래의 빛이 스며든다.

총구를 겨눈 채 전차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서준.
'끼익..끼익..' 흘러내리는 빗물과 검붉은 피가 섞인 바닥에서 탄피 소리 굼히는 소리 들리고.
깜빡이는 불빛 속에 서서히 드러나는 전차 안.
검붉은 피투성이가 된 승객들이 여기저기 쓰러진 채 널브러져 있다.

참혹한 학살 현장과 비릿한 피 냄새에 이를 악다무는 서준,
총을 겨눈 채 주 안으로 들어가며 학살 현장을 살피다가 멈칫!!

피투성이가 된 채 한 손에 총을 쥔 채 죽어 있는 승객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인 듯 눈이 커진 채 숨이 멎을 것만 같은 서준.
다른 손에 뭔가를 쥐어있자, 손을 조심스럽게 펴보면...,
피 묻은 쪽지에 적힌 'Tiger Hunt'
꽉 움켜잡은 총구가 흔들리는 서준, 부릅뜬 눈이 미친 듯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암전!!

*12,771일의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해방이 되던 1945년.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 한반도 38선을 기점으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신탁통치에 들어간다.*

-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 비행기로 환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뜨겁게 맞이하는 환영 인파들.
- 38선에 철조망을 세우고 담배를 나눠 피며 웃는 미군과 소련군.

남북의 극한 대립 속에 1948년 남한 단독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미루어졌던 반민족친일파 청산 작업이 시작되고
'반민특위'가 출범한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된다.
- 서울 명동 일본 다이치은행 본점에 반민특위가 꾸려진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역사 청산이라는 열렬한 지지와 함께
국론을 분열시키는 빨갱이 소굴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갈림길에 선다.
구태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려는 사람들과
그 흐름에 역행하려는 사람들의 1949년 여름.

- 친일 자본가와 밀정, 일제 고등 경찰들이 반민특위 특경대에 체포된다.
- 반민특위 앞에서 '빨갱이 척살'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시위하는 반공단체들.
- 재판 전의 반민특위 법정,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다.

2. 세면장 - 저녁

검은 화면 위로 읊조리는 남자 목소리 들려오고, 화면 밝아지면.
세면대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은 뒤 거울 속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서준(28).

서준 (주문을 걸듯) ..두드리면 열리리라. .. 두드리면 열리리라..

낡고 몸에 맞지 않는 험렁한 자켓을 입는 서준,
앞에 놓아둔 새 수첩과 손때 묻은 만년필, 45구경 콜트권총, 수갑을 채긴 뒤 나간다.

3. 도심 도로 - 밤

'부웅!!' 앞선 차들을 추월하고 도심 도로를 질주하는 검은 짙차들!!
앞좌석에 탄 냉혹한 인상의 성욱(35), 권총을 꺼내 확인하자,
다른 사내들도 일사불란하게 총을 점검한다.

간헐적으로 움찔거리는 성욱의 오른쪽 눈, 어둠 속에서도 번뜩인다.

4. 한옥 앞 - 새벽

하얀 달빛이 담 높은 한옥을 아스라이 비추고 있다.

예리한 시선으로 주위를 살피는 서준과 피곤함에 찢어 하품하는 오형사(45).

오형사 아직도 숙식을 중부서에서 합니까?

서준 (주위를 살핀다) ..

오형사 잠은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자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이고..
 그러다 몸 상합니다. 큰일나예.

그때 높은 담 너머로 흥겨운 일본 노래가 들려오자, 얼굴 찌푸리는 오형사.

오형사 쫓기는 처지라카드마.. 아주 잔치를 벌려. 오늘은 또 누구라예?

서준 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형사 그래도.., 글마들이 그냥 놔둘까예?

서준 (무표정하게 주위를 살핀다) ..

오형사 왜 있잖아예. 우리 갱찰 알기를 동네 똥개보다 더 업수히 여기는 특위 새끼들!!

서준 (관심 없다.) 우린 날 밤을 때까지 그냥 있다 가면 돼요. 지시대로요.

그때 경찰차 무전기에서 무전 소리 날아들고, 어설프게 무전기를 드는 오형사.

오형사 ..아아.. 중부서 수사계 오형사다. 오바.

무전 ..치치.. ..반.. 특.. 치치.. 습.. 치치..

오형사 뭐라카노?! (무전기 툭툭 치며) 뽕뽕 터지는 미제 꺼 좀 주지.

 일본 놈들 거는 매번 끊긴다니까. 이러니 코쟁이한테 졌지.

무전 ..치치... 민... 위.. 치치... 격.. .. 치치..

오형사 (무전기 바짝 대며) 아.. 아.. 역꾸로 끊긴다. 오바.. 다시 말하라. 오바!!

오형사 요청에도 간헐적으로 끊기며 들려오는 다급한 무전기 소리,

순간, 주위를 살피던 서준 눈빛이 꿈틀댄다.

곧, 골목 저쪽에서 자동차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가 번뜩이고,

어둠 속 한옥 주위를 지키던 경찰들도 웅성거리며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오형사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며) 뭐꼬.. 저것들? ..(눈이 커지며) 설마...??!!

눈빛이 번득이는 서준, 한옥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5. 한옥 사랑방 - 새벽

고풍스러운 한옥에 일본식 인테리어가 하얀 연기와 뒤섞여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파이프 연기를 내뿜으며 뒤엎겨 있는 장년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
풍채 좋은 반백의 민회장(63), 늘어진 남녀를 보며 웃는다.
민회장이 술병을 들자, 늘어진 남자들과 달리 공손하게 술잔을 받드는 박지웅(42).

민회장 어르신은 어떠신가?

지웅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손님1 (약에 취한 채)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었다도 해도 이럴 순 없어요.
 일할 사람들을 다 잡아가면.. 이 나라는 어떡하랴구요? 큰일입니다. 큰일...

희미하게 웃는 민회장, 술상 밑에서 황금색 보자기를 꺼내 위에 올려놓는다.

지웅, 긴장하며 보자기를 풀다가 멈칫!!

지웅 ..이게.. 그 귀하다는.. 호랑이 가죽 아닙니까?

민회장 (술 마시며)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지~

지웅 (눈이 커지며) 야마모토 정무총감이 잡았다던 그 마지막 호랑이..?!

민회장 그 여우 새끼한테 이걸 손에 넣느라 기와집 3채나 썼어.

손님1 (호랑이 가죽을 보며) 역시 맨 마지막 영물이라 대단하시구먼 기래요.
 이제 한반도 호랑이 씨는 죄다 말라비틀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민회장 무슨~ 다른 호랑이가 있지 않나?

지웅 다른 호랑이라면..?? .. 아하.. 그렇지요.

 그 호랑이가 산호랑이보다 훨씬 쎄고 더 사납죠.

손님2 그렇습네다!! 산토라 100마리가 와도 어르신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디요.
 (호랑이 가죽을 탐나는 눈빛으로 보며) 고거이 참 땃갈 한번 기깔납네다~

민회장 (호랑이 가죽을 밀며) 어른신께 이걸 드리게.

지웅 ..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라도..

민회장 (의미심장한 미소) 받으시면.. 아실거야.

지웅 (공손하게 호랑이 가죽을 넘겨 받는다) ..

민회장 (술잔 들며) 앞으로 바빠질 게야~

지웅과 술잔을 부디치는 민회장, 술을 마시다 멈칫한다.

문밖에서 요란한 소리 들려오고, 와락 문이 열리는데...

6. 한옥 골목 - 새벽

‘헉!헉!!’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들.

담 너머로 호루라기 소리 들리고. 앞서가던 실루엣, 뒤 사람 머리를 눌러 몸을 숨긴다.

곧, 그 앞을 지나치는 총 든 건장한 사내들.

짙은 어둠 속에서 고개 들면, 주위를 살피는 서준과 연신 숨을 몰아쉬는 민회장이다.

민회장 ..헉헉... 켜..참겠나?

서준 못 믿으면 혼자 가시든가.

민회장 (비단 손수건으로 땀 닦으며) 중부서 서장님이 분명히 책임지고 지켜 준다 했는데..., 일단 여기만 벗어나세요. 자넨 잊지 않겠네!!

겹에 질린 민회장을 힐끗 보던 서준, 땀을 닦는 민회장 비단 손수건을 낚아챈다.

7. 한옥 앞 - 새벽

한옥 앞에 오형사와 다른 경찰들이 무장 해제당한 채 무릎을 꿇어앉아 있다.

총을 든 채 한옥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반민특위 무장 세력 특경대들.

궁시령대던 오형사, 비단 손수건으로 얼굴 가린 서준과 민회장을 보자

흠칫 놀라 하다 벌떡 일어선다.

오형사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니!!

특경대들 (총을 겨누고 오형사에게 다가간다) ..

오형사 우린 갱장이야. 갱찰!! 나랏돈 묵는 사람끼리 이따구가 어딴어? 어이?!

거세게 난장 피우는 오형사를 총으로 찍어 누르는 특경대들, 오형사 끝까지 버티고.

그 소란한 틈에 자동차로 다가가는 서준과 민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철컹!!’ 뒤에서 들려오는 총 장전 소리!!

특경3 (총 겨누며) 멈춰!!

민회장 (놀라 손 번쩍 들며) .. 쏘..쏘지 마세요...

서준 (꿈쩍 않는다) ..

특경4 손들고 돌아. 천천히!!

민회장 (겹에 질려 돌아서며) ..제.. 발요.. 제발.,

등을 보인 채 그대로 서 있는 서준에게 다가가는 특경3, 서준 손에 수갑 채우는데,

순간, ‘휘익!!’ 특경3 손을 뿌리치는 서준, 동시에 ‘퍽! 퍽!’ 나가떨어지는 특경3.
당황한 특경4, 총을 쏘려는데, 빠르게 다가가 권총 슬라이드를 잡더니 총을 낚아채는 서준.
‘팍!!’ 특경4 머리에 서준의 발길질이 내려쫓힌다.

잔뜩 열린 민회장을 자동차 안으로 밀어 넣는 서준, 운전석에 올라타는데,
‘탕! 탕!!’ 자동차에 총탄 불꽃이 튀고,
보면, 권총을 쏘며 달려오는 성욱!!
자동차를 급출발하는 서준, 열린 창문 너머로 권총을 겨눈다.
‘탕! 탕! 탕!’ 세워둔 특경대 자동차 타이어가 연달아 펑크가 나고,
‘부웅!!’ 빠르게 사라지는 자동차.
달려와 그 자동차를 향해 끝까지 탄창을 모두 쏟아붓는 성욱!!

8. 외진 도로 - 새벽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르게 달려 나가는 자동차, 갑자기 길가 옆에 멈춘다.

민회장 ..또 뭐가?! .. 왜 그러나?
서준 (시동 끈다) 오늘 업무는 여기까지. 운전까지는 없는 지시라서....
(나가며) 각자 갈 길 가지쇼~
민회장 (나가는 서준 팔을 꼭 잡으며) .. 내가 누군 줄 아나?
서준 특위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건 확실히 알죠~
민회장 (쏘아보며) 당돌하구먼!!
서준 (시선 피하지 않고 웃는다)
민회장 (눈빛이 차가워지며) 또 자네 같은 친구가 일은 확실하지. .. 꿈이 뭐가?
서준 꿈?! .. (피식) 요즘도 그딴 거 꾸는 한심한 놈 있나요?
민회장 (서준의 건방짐이 맘에 든다) 말해 보게. 혹시 아나? 이루어질 수도~
서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손가락 위로 치며 들며)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요.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회장,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린다.

민회장 하하하.. 그 누구보다 더 높이, 빨리 올라가게 될 거세. 나 민순갑이 약속하지.
서준 민.. 순갑이라면..
민회장 조선의 금광왕이라고도 불렸지.
(시가를 꺼내며) 자넨 남한 땅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을 구한 거야~

느긋하게 시가를 물고 좌석 뒤로 기대는 민회장과 백미러로 뚫어지게 바라보는 서준.
‘부웅!!’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자동차.

9. 한옥 앞 - 새벽

서준의 총격에 타이어 펑크가 난 짐차를 바라보는 성욱.
그때 민회장과 술판 벌리던 남자들이 특경대에게 사정을 하며 끌려 나온다.
성욱에게 황금색 보자기를 들고 다가오는 특경1,2.

특위2 (황금색 보자기를 건네며) 정보가 또 샌 것 같습니다.
성욱 .. 쥐새끼를 찾아.
특위1 반발이 거셀텐데요..
성욱 (호랑이 가죽을 보며) 호랑이 사냥이 시작됐어.
(움찔거리는 오른쪽 눈이 섬찟..) 이제부터 시간 싸움이야. 둘 중 하나는 죽어!!

호랑이 사냥

10. 서울 적산가옥 - 아침

흥겨운 빅밴드 재즈 선율에 맞춰 기분 좋게 들려오는 남자 허밍 소리.
천장엔 호사스러운 샹들리에, 마루에는 윤기 나는 갈색 티크, 방 바닥엔 일본식 다다미가 정갈하게 깔려 있고, 벽면과 진열장에는 채워지지 않는 곳에 여기저기 보인다.

거울 앞에서 윤이 흐르는 고급 양복에 실크 넥타이를 능숙하게 매는 남자의 뒷모습,
‘..두드리면 열리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거울에 비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세련된 모습을 보며 빙긋 웃는 서준,
수첩, 손때 묻은 만년필, 권총, 수갑, 금장 롤렉스 시계를 챙긴 뒤 집을 나간다.

11. 도심 - 오전

도심을 달리는 녹색 전차.
전차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창밖을 바라보는 서준.
조선시대 건물 옆에 우뚝 선 근대식 건물들, 자동차, 인력거,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고,
양복 신사와 한복 입은 사람들이 한글, 영어, 일본어 간판들이 뒤섞인 거리를 걷고 있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위기가 가득한 서울.

12. 반도 호텔 스위트룸 - 오전

윤기 나는 가죽 소파 위에 고개를 치켜들고 눈을 부릅뜬 채 꿈쩍않는 살찐 중년 남자.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 스테이크, 와인과 마약 주사기가 흐트러져 있다.
사건 현장을 살피는 서준, 남자 지갑을 확인하는데..
그 옆에서 호사스러운 호텔 방을 부러운 눈으로 둘러보는 오형사.

오형사 있는 양반들은 마지막도 어마어마하네예.
하루 방값이 우리 한 달 월급이 넘는다 카더라만..

사망한 남자 팔목을 확인하는 서준, 시퍼런 주삿바늘 자국이 여러 개다.

오형사 (남은 케이크 먹으며) 개성 방직 대표로 해방 전까지만 해도
조선 3대 현금 부자로 날린 사람이라 카네예.
서준 (사건 현장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다)
오형사 돈 많으모 뭐하노. 글마들한테 잡혀가 골 무지 뽕개졌을텐데.. 반민특위가
문제라카이!! .. (스테이크를 입에 넣으며) 녹네. 녹아.. 좀 드실랍니꺼??
서준 체크인 기록이랑 통화 목록..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오형사 (와인을 후루룩 마시며) 과장님도.. 볼 게 뭐 있습니까? 견적 딱 나오잖아예.
쭈악한 특위 새끼들한테 시달리다 약 이빠이 맞고 골로 간 거라니까.
서준 조서.. 직접 쓰실래요?
오형사 (와인이 목에 걸린다) ..참 나..
서준 그리고.. 현장 증거물 손대면 10년 재수 없다잖아요. 원위치 해놓죠~
오형사 (와인 잔 내려놓으며) 세상에나!! 과장님 수고 들어줄라꼬 아침도 거르고
튀어왔는데 이것 좀 묵었다고 뭐라카는 거라예? 너무하시네. 진짜!!

오형사 반발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주변을 살피는 서준.

연신 투덜거리던 오형사, 서준을 힐끗 보다 슬그머니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더니
사망자 지갑에 넣은 뒤 후다닥 나가 버린다.

수첩에 사건 주위 현장을 그림과 글로 꼼꼼히 적어나가는 서준, 바닥에 떨어진 걸 줍는데, 호
텔 냅킨이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 천장 호텔 전등에 비춰보는 서준.

보면, 뭔가 눌러 적은 흔적이 보이고, 급하게 적힌 일본어다.

서준 (냅킨을 전등에 비추보며) ..토..라(とら) ... 호랑이.. 호랑이..??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서준이가 반사적으로 냅킨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보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지석(32)이 서 있다.

지석 좋은 게 좋은 거다~

13. 반도 호텔 복도 - 오전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서준과 지석(32).

지석 오형사.. 무지 꿀었더라.
서준 새파란 상관이 맘에 안 들었나 보죠.
지석 사람 하나는 진국이잖나~
서준 그래도 지켜야 될 최소한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힐끗) 누가 말했더라?
지석 지금쯤 너도 눈치챌겠지만..., 선배 말은 죄다 무시해. 다 뺑이야~

지석의 느스레에 따라 웃는 서준.

지석 .. 마약 사망 사건이라며?
서준 일제강점기 때 조선 3대 현금 부자로 현재 특위에서 피의자로 조사 중이고.
 마약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것 같은데요. ..., 더 조사해 봐야 알겠죠.
지석 조사는 무슨.. 이런 사건 시간 끌면 위에서 불편해해.
서준 후배가 잘할게요~ 근데.. 본청 과장으로 발령 나신 분께서
 미천한 후배 사건 현장까지 다 찾아주시고..
지석 응.. 약속.
서준 본청 발령나니까 호텔에서 약속이라.. 누구? .. 여자??
지석 일이다. 짜샤!!
서준 (웃다 눈치 살피며) 특위는요? 말들이 많던데..
지석 (미소) 각자 할 일 하는 거지. .
서준 안 그래도 집에서 선배 데리고 오라고 난리인데..
지석 법관 될 놈이 험한 일 하니까 그러시지. .. (얼굴 무거워지며) 아버님은?
서준 (쓱쓱하게 웃으며) 한결 같으시죠~
지석 본청 가기 전에 저녁 먹자. 할 얘기도 있고~
서준 또.. 형수님 후배 소개? .. 착한 분들은 내 진가를 몰라주던데..
지석 (서준 목을 팔로 감으며) 네 형수 같은 사람 만나. 짜샤!!
 반은 성공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서준 (숨씨 좋게 빠져나오며) 인정.. 인정.. 형수님은 진짜 인정!!

호텔 정문 앞에서 멈춘 지석과 서준.

서준 (장난치듯 경례하며) 본청 가시는 몸이니.. 선배 짐은 제가 잘 챙겨 놓을게요.

.. 건방진 특위 너무 신경 쓰지도 말구요. 좋은 게 좋은 거라 하잖아요~

서준을 보고 빙긋 웃는 지석, 호텔을 나가고, 멀어지는 지석을 보며 환하게 웃는 서준.

14. 경찰서 - 새벽 (회상)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산하게 감도는 경찰서 복도.

열 살 남짓한 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은 채 복도 끝을 응시한다.

곧, 철제문 열리고, 일본 순사들 사이로 만신창이 서준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나온다.

맞아 부어 감긴 눈, 찢긴 입술, 곳곳에 피투성이 상처들.

서준의 두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한다.

그런 서준을 발로 확 밀치는 순사1.

순사1 誰が来ようと全部監視して報告しろ！

(누가 찾아오든 다 감시하고 보고해!)

서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아버지를 부축하려 애쓴다.

그때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뺨 같은 눈매의 고등계 형사.

고등계 何だ？誰がこの不靈仙人を解放したんだ？

(뭐야?! 누가 이 불령선인을 풀어줬어?!)

순사1 それがね...(.. 그제..)

순사2 僕らも指示を受けたので... (저희들도 지시를 받은 바람에..)

고등계 誰だよ、俺が。安部靫岐のことに口を挟むのか？何様のつもりだ？

(누가 감히 나.. 아베 이코키 일에 끼어드는 거야?! 어떤 새끼야?!)

아버지를 부축하던 서준을 쏘아보는 고등계, 겁먹은 채 시선을 피하는 서준.

고등계 (서준 손을 낚아채며) てめえを締め上げて口を割らせれば分かるだろう！！

(네 놈을 족쳐 아가리를 열어보면 알겠지!!)

서준 助け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살려주세요. 제발..)

고등계 (서준을 때리며) 大日本帝国の警察を無視したんだから、

罰を受けてもらわないとな。

(대일본제국 경찰을 무시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는 서준과 비아냥거리며 구타하는 고등계.

그때 고등계 손을 잡아채는 사내, 일본 경찰 제복을 입은 지석이다.
'퍽!!' 고등계 가슴을 구둣발로 가격하고, 쓰러진 고등계 얼굴을 구두 밑창으로 짓누른다.

지석 いつから日本帝国警察は上官の命令を無視していたのか?

(언제부터 일본 제국 경찰이 상관 명령을 무시했나?)

고등계 ..そいつの口から不純分子の名前が出ました。もう少し時間をください..,

(..저놈 입에서 불순분자 이름이 막 나왔습니만.. 시간 더 주시면..)

지석 バカ野郎! 高等科部長なんぞが軽視の指示に逆らうのか?

あるいは私... 寛 勲子を疑っているのか?

(명청한 놈! 고등계 부장 따위가 감히 경시 지시에 불응해?

아니면 나.. 칸 이소코를 의심하는 건가?)

고등계 (조아리며) 死ぬほどの罪を犯しました! 助けてください!!」助けてくださ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지석 (고등계 귀에 바짝 대고) 상관 명령을 무시한 네 놈을 지켜보겠다.

네 놈도 조선인이니 내 말 알아듣겠지?!

그제야 후다닥 몸을 일으켜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는 고등계, 순사1,2도 인사하고 사라진다.
겁먹은 서준과 서준 아버지를 부축하고 문으로 향하는 지석.

지석 (따뜻함) 걱정 말고.. 어서 모시고 가렴. 밖에 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버지를 부축하고 문을 열고 나가던 서준, 뒤돌아보는데,
지석을 향한 동경과 경외심이 가득하다.

(소리) “Don't piss me off!!”“ Fuck away!!”

15. 중부 경찰서 - 오후

시끄러운 영어 소리와 함께 물건 부서지는 소리 들리고,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미군 병사 둘.
그 옆에는 공포에 질린 여자 둘과 경찰들이 미군들의 난동에 속수무책이다.

미군1 Damm!! Get someone in charge! These bitches decided to fuck with us!

(씨발!! 책임자 나오라 그래!! 이년들이 우리랑 펍하기로 했다니까!!)

미군2 Those thieving bitches stole all of our money!! Throw up already!!

(저 도둑년들이 우리 돈 다 훔쳐갔다고!! 빨리 토해 내!!)

경찰1 .. 뭐라는 거야?
 경찰2 니미.. 영어 할 줄 알면 여기서 순사질 하겠어?
 (여자들 보며) 솔직히 말해 봐. 니들.. 훔쳤지?
 여자1 아니예요. 절대!! 맹세해요!!
 경찰2 어쨌든 니들 땀에 이 사달 난 거 아냐. 그러니까 잘 좀 해결해 봐.
 여자2 뭘 해결??!! 저 새끼들 약 빨고 썩가는 거잖아!!
 경찰1 그럼 니들이 잘했다는 거야? 술 팔고 몸 파는 주제에..
 여자2 양키 앞에서 꼬리 내리는 게 누군데??!! 개쪽 팔리게..
 경찰2 뭘?! 이것들이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릴래?!

항의하는 여자들과 경찰들이 뒤엉키는데, ‘탕!’ 소리와 함께 권총을 치켜든 미군2.
 화들짝 머리를 감싸며 고개 숙이는 경찰들과 사람들.

미군2 (권총 흔들며) How dare you disrespect the U.S. Army?!!!
 (감히 니들이 미 육군을 무시해??!!)
 What has America ever done for this shithole country. fuck!!
 (이 쓰레기 나라에 우리가 해준 게 얼마데. 씨발!!)
 미군1 (권총을 다시 쏘며) Get that asshole in charge out of here!!
 (책임자 새끼 나오라니까!!)

미군의 총질 난동에도 고개 숙인 채 서로 눈치만 보는 경찰들.
 그때 ‘핑!’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보면, 미군을 향해 사진기 플래시를 연달아 터트리는 서준.

미군1 What the hell are you?!!! (뭐하는 새끼야??!!)
 서준 (사진 찍으며) Assault, guns, drugs, and a whole lot more~
 (폭행에 총기 난동, 거기다 마약까지!! 종합 선물세트야~)
 미군1 (피식) Fuck you!! You can get shot and die, but you can't touch a hair!!
 (죃까!! 니들은 총 맞아 뉘저도 우리 털 하나 손 못대!)
 서준 (씨익) Do you think US Army Colonel Steve thinks that way too?
 (미 헌병사령관 스티브도 그렇게 생각할까?)
 미군2 (영어) .. What? Colonel Steve?! (뭐? 스티브 대령?!)
 서준 He's a Texas gentleman who despises bullshitter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women. And he's a junkie's worst enemy.
 (시계 보며) Soon, Steve's on the phone
 (특히 여자한테 행패 부리는 놈을 아주 경멸하는 텍사스 신사잖아.
 게다가 약쟁이한테는 저승사자~ (시계보며) 곧, 스티브 전화가 올 거야)
 미군1 (피식) Don't bluff me, asshole!! (뽕치지 마. 새끼야!!)

미군2 What the fuck is this guy?!!! (뭐야 저 새끼??!!)

그때 전화벨 요란하게 울리고, 일순 조용해지는 중부서.
서준, 전화를 받는다.

서준 Hi Steve. I'm sorry I had to go first. There's a problem in our office.
I think he's one of your guys. What's his name?
(안녕 스티브. 먼저 가서 미안. 우리 서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너네 부대원 같은데.. 이름이??)

미군2 (하얏게 질린 채 미군1을 보며) Shit!! they said if we get caught again,
we'll be repatriated.
(씨팔.. 이번에 또 걸리면 바로 송환 당한다고 했는데..)

미군1 (서준에게 총 겨누며) Hang up!! (끊어. 빨리!!)

서준 (미군1 인식표를 보며) Private Thompson and.. (툼슨 일병이랑 그리고...)

미군2, 군복 인식표를 열린 손으로 가린다.

미군2 (손으로 자제시키며) Okay. Okay.. Let's stop here..
(알겠어. 알겠다니까.. 이쯤에서 관두자..)

미군1 Don't be fooled. He's bluffing!
(속지마. 블러핑이야!)

미군2 Bugs!! I'm out. It really sucks if we get caught doing drugs.
Besides, you're Colonel Steve. fuck!!
(벅스!! 난.. 빠질래. 약 한 거 걸리면 진짜 우리 좆돼!!
게다가 독사 같은 스티브 대령이라잖아. 씨발!!)

미군1 (총구가 흔들리며) Fuck! I'll remember your face. We'll see!
(씨발!! 네 얼굴 기억해 놓겠어. 두고 보자!!)

나가는 미군1,2 앞을 가로막는 서준.

미군1 What else?!!! (또 뭐??!!)

서준 (미소) pay for your drinks~ (술값은 내고 가야지~)

전화기를 흔들며 웃는 서준을 보며 얼굴이 시뻘개지는 미군1,2,
둘이 서로 욕을 해되더니 달러를 꺼내 바닥에 던진 뒤 허겁지겁 나간다.
그제야 사라지는 미군1,2를 향해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경찰들.
서준은 피 흘리는 여자에게 다가가 손수건과 미군 달러를 건네준다.

16. 중부서 경무과장실 - 저녁

서준에게 차를 주며 웃는 경무과장 재영(52)과 뭔가 못마땅한 인상의 정현(43).

재영 푸하하!! 양키 새끼들을 영어로 막 조지더만. 내 속이 다 후련터라~
마지막에 한 말이 뭐야? .. 페이 포.. 유아.. 드링크??

서준 별것 아닙니다.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재영 역시.. 인제는 달라. 중부서 수사과장이 보통 자리야?
순경 20년 해도 못 가는 자리를 2년 만에 턱하고 달았으니 말이야~

정현 (사무적으로) 반도 호텔 꺾은?

서준 마약 과다로 인한 쇼크사로 보이는데..., 수사 중입니다.

정현 개경 돈 반을 가진 집안이야. 괜한 말 나오기 전에 마무리해.

서준 (대답 대신 웃는다) ..

재영 무슨 걱정이야~ 사수가 본청 가는 한경정인데. 오죽 잘 가르쳤을라고..
반도 호텔에 왔었다며?

서준 약속이 있었답니다. 업무차요.

재영 사람.. 참 의리 있어~ 후배 사건 현장까지 다 챙기고. 특위 조사로
머리 빠개질텐데 말이야. .. 본청 가기 전에 영전 축하 파티해야지~

그때 경찰서 조명이 깜빡거리고, 얼굴을 찌푸리는 재영.

재영 쫓쫓..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뭄에.. 북쪽에서 전기까지 끊었으니..
대한민국 큰일이다. 큰일.

이내 전등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자, 전력 부족이 일상인 듯 인사하고 나가는 서준.
미소 짓는 재영과 얼굴이 더 굳어지는 정현.

17. 중부서 수사계 - 오후

‘반도 호텔 마약 사건’ 자료들을 체크하며 전화를 걸고 있는 서준.
책상 위에는 서준 성격을 보여주듯 물건들이 흐트러짐 하나 없다.
전화기로 들려오는 서툰 한국어 여자 목소리..

서준 Great timing on the call~ (전화 타이밍이 끝내줬어~)

앨리스 (서툰 한국어로..) 깐깐한 스티브 소령이 자기 이름 판 거 알면..

우리 둘 철장행인 거 알지?

서준 Don't worry. A drugged-up American soldier won't say a word.
(걱정마. 약 뺀 미군 놈은 입도 뻥긋 못할테니까.)

앨리스 요즘 미군 쪽도 골머리 썩나 봐. 신종 마약이라던데..
빠르고 강력하대. .. 뭐라더라.. .. 아. .. 타이거.

서준 ..타이거? .. (멈칫) 토..라?!

앨리스 토라 아니고 타이거!! 한국말로 호랑이!!

서준 Tiger Japanese is Tora. 호랑이 in Korean
(타이거 일본말이 토라. 한국어로 호랑이.)

앨리스 아.. 몰라 몰라.. 머리 아파~ .. 근데 할아버지 집에는 언제 가?

서준 I'm not idle~ A public servant, I'm supposed to protect my country.
(한가한 몸 아냐. 공무원인데,, 나라를 지켜야지. ㅋㅋ~~)

앨리스 그 나라.. 참 이상해.

서준 What else? (또 뭐가?)

앨리스 왜들 그렇게 내편 네편 나눠 싸우는지.. 일본한테 겨우 독립했는데 말이야.
.. 방.밍.또.기? .. 반민독이? 알아??

서준 Ah... 반민특위?! Why are they?? (아.. 반민특위? 개네들이 왜??)

앨리스 (소리) 요즘 미 대사관 문서에 자주 등장해. 특위는 경찰 쪽이랑도 문제 있지 않아?

서준 That's for the higher-ups, not me~
(그건 높으신 분들 애기고, 나야 상관없지~)

앨리스 할아버지가 센 척하시지만, 밤에 차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깨서.
.. 은근히 널 기다리는 눈치고.

서준 I'm secretly popular. you know~~ (내가 은근히 인기 있거든. 알다시피~)

앨리스 하긴.. 사람 안 믿는 할아버지가 넌 예외니까.. 비결이 뭔지 궁금해.. 진짜.

앨리스 말에 미소가 흐르는 서준

(소리)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나??!!

18. 민회장 집 - 저녁

눈이 커진 민회장, 나무상자에 든 벚꽃 모양의 화과자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서준 서울미츠코시 백화점에서 화과자 만들던 장인이 있었거든요.
동대문 시장에서 떡 만들고 있다길래 수소문해서 찾아갔죠.

민회장 그 좋은 기술로 시장 떡을 만들고 있었다고?! 칙쇼(ちくしょう)... 그래서!!

서준 첨엔 일본 화과자 만든 적 없다며 난리를 치더라구요.

민회장 특위 놈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
 서준 그래서 저도 특위 이름 팔았죠.
 민회장 옳거니!!
 서준 덕분에 회장님 화과자는 평생 끊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회장 (화과자를 꺼내며) 딴 놈들이 가져오는 선물이라는 게 시은참거든.
 근데.. 자넨 딱 필요로 한 걸 가져다 줘. 요즘 얼마나 먹고 싶어서 애쓴 줄 아나?

말차를 마시는 서준을 보며 웃던 민회장, 조심조심 화과자를 한 모금 베어 무는데,
 이전의 향수가 물려오는지 눈가가 축축해진다.

민회장 (음미하며) 역시 네리키리 화과자야~ 첫맛은 눈으로 즐기고, 끝맛은 혀로 즐긴다.
 서준 이전과 같나요?
 민회장 완벽히!! (눈가 축축해지며) 내 아이들도 화과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지금은 이 나라를 떠나 버렸지만.., 이놈의 세상.. 망가져도 한참 망가진 거지!!
 서준 .. 좋은 세상 올 겁니다.
 민회장 좋은 세상?! 특위 놈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호텔에서 엄한 사람까지 죽는 거 아냐.
 서준 애기 들으셨나요?
 민회장 개성 방직 홍대표. 순둥순둥하고 구김살 없고 대대로 좋은 가문 출신이지.
 근데 놈들에게 얼마나 당했으면 흉측한 약까지 손댔겠어.
 자네도 괜히 미래 없는 이 나라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하던 준비 잘해.
 자네 가족은 나 민순갑이 책임질 테니까.
 서준 (말차를 마신다)
 민회장 (화과자를 입에 넣으며) 앨리스가 걱정이야. 이런 시기에 철부지 애를 여길 보내.
 하여튼.. 애비란 놈이.. 쫓쫓..
 서준 무슨요. 앨리스는 미대사관에서도 프리패스던데요.
 민회장 그래. 그 녀석이 날 닮아 야무치지. 지 애비랑 틀려~~ 아암.
 서준 (말차를 마시며) 혹시.. 토라.. 들어보셨나요?
 민회장 (멈칫) 토라? 토라??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 그건 왜??
 서준 그냥요. 별일 아닙니다~
 민회장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미국 유학 가는 거 잘 생각해봐. .. 내 시대는 끝났어.
 자네 같은 젊은 피가 대한민국의 미래지. 아암.. 그렇고 말고.

느긋하게 화과자를 즐기며 웃는 민회장과 조용히 말차를 마시는 서준.

19. 외진 거리 - 밤

흥겨운 댄스 음악과 함께 어두운 길가에 주차한 자동차.
 차 안에는 한껏 멋을 부린 40대 초반 남자와 젊은 여자가 이견이 있는지 말다툼을 벌인다.
 다독이는 남자, 잔뜩 겁먹은 채 확 밀쳐내는 젊은 여자.
 음악은 점점 빨라지고, 결국 남자 품에 안겨 몸을 떠는데...
 그러다 멈칫, 놀라 밖을 쳐다보면,
 창문 밖 어둠 속에서 선 중절모자 쓴 검은 실루엣!!
 ‘숙! 숙! 숙!’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 안 여기저기에 붉은 피가 튈다.
 댄스 음악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화면 점점 어두워진다.

20. 외진 거리 - 아침

‘핑! 핑!!’ 검은 화면 위로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부서진 자동차 주위로 사진 찍는 경찰과 사건 현장을 검증하는 형사들이 분주히 오고 간다.
 자동차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는 서준과 오형사.

오형사 우찌 밥 먹을 새도 없이 사고가 터져. 아침 묵었어예?
 서준 (말 없이 현장으로 다가간다) ..
 오형사 조선 사람은 뭐라케도 하얀 쌀밥에 속을 든든히 채워야됩니다.
 건너편에 찍히는 국밥집이 있다카던데.. 거기 가 계시면..

계속되는 오형사 말에 대꾸도 없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는 서준.
 사건 현장을 살피던 형사들, 서준이 현장 안으로 들어오자 오형사에게 눈짓주고.
 어쩔 수 없다며 양손을 벌려 한숨 내쉬는 오형사.

형사1 (떨떠름하게 서준 보며) 아침 일찍부터 나올 필요는 없는데...
 서준 (자동차 안과 밖을 살핀다) ..
 형사1 사망 시각은 오늘 새벽 사이로..
 서준 (시계 보며) 오늘 아닙니다.
 사찰1 척척박사 나셨네~ 척 보면 아시나? ㅋㅋ
 서준 (피해자 손목 들어 올리며) 시반이 고정됐어요. 사망 후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제죠.

서준 말에 조용해지는 주변.

서준 신원 파악은요?
 형사1 아직 아침이라 확인이 안 돼서..
 서준 (자동차 안을 살핀다) ..

형사2 (오형사를 째려보며) 과장님은 건너편 식당에 계시면 살해 도구까지 찾아내서..
 서준 필요 없어요.
 형사2 네? 그게 무슨..
 서준 (차 안 사망자 보며) 토카레프. 소련제 때때권총이니까.
 사찰1 (피식) 권총으로 이렇게 작살냈다고? ㅋㅋ.. 근거는....(서준이 힐끗 보자) 요?
 서준 (죽은 남자와 여자 가리키며) 피해자 주변 화약 잔여물을 봐요. 소총이라면 이렇게 잔여물이 크고 집중되지 않죠. 문제는 파괴력인데.., 이 정도 위력을 내는 권총은 세상에 2개 밖에 없죠. .. 미제 콜트 M1911, 소련제 토카레프.
 사찰1 (빠죽) 소련제 때때권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설명 못 한 것 같은데...
 서준 M1911 총탄은 45구경. 소련제 토카레프는 소총에 사용하는 7.62mm탄.
 (죽은 남자 들추며) 권총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와 근육조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죠. 거기다 뚜렷한 강선 무늬까지.
 (손가락으로 자동차 안을 가리키며) 안에 토카레프 7.62mm탄이 있을 겁니다.

서준 지시에 얼굴이 굳은 채 자동차 안을 뒤지는 형사1,2.
 사찰1과 다른 경찰들은 히죽거리고, 그때 형사1이 시트에서 유탄을 끄집어낸다.

형사1 찾았습니다. .. 맞아요. 7.62mm탄!!

서준의 해박한 총기 지식에 뼈죽거리는 입을 다무는 사찰1과 주위 경찰들.
 오형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지 어깨 으쓱하고, 서준에게 찾은 탄피를 건네주는 형사1.

서준 (권총 탄피 살피며) 사찰과요?
 사찰1 그런데요. .. 왜요?! 사찰과 오시게? 가방 끈 길다고 오는 애들 놀이터 아닌데..,

서준을 비아냥거리는 사찰1, 주변 사찰들도 키득거린다.

서준 뭐.. 한가해 보여서..
 사찰1 아.. 씨발.. 누구 백으로 수사과장 됐다고 착각하나 본데... 우리 사찰과는..
 서준 (탄피 던지며) 소련제 빨갱이 권총이 사용됐어. 그것도 청와대 근처에서.
 그런데 간첩 잡는 사찰과가 이딴 식으로 노닥 거려?!
 사찰1 (움찔) ??!?
 서준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해지기 전까지 보고해.
 청와대에서 추궁당하기 전에!!

서준의 날선 질책에 얼굴이 시뻘개진 사찰1, 다른 사찰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고.
 서준의 장악력에 이전과 달리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주변 경찰들.
 오형사는 서준 옆에서 어깨에 힘주며 주변 경찰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그때 긴장한 경찰이 형사1에게 뭔가를 건네주자, 서준에게 다가가는 형사1.

형사1 사망한 남자, 여자 신원이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 들렸던 곳도 알아냈구요.
(조그만 비닐봉투 주며) 그리고 이게 뒤 트렁크에서 나왔습니다만..

서준은 비닐봉투를 받아 들고 햇빛에 비춰본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투명한 결정체다!!

21. 마약굴 앞 -오후

넓고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 주위로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

눈에 초점 없이 벽에 기대어 흐느적거리는 사람들과

노출 심한 옷 입은 여자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한쪽에는 금방 태운 마약 찌꺼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무리들.

희망 따위는 찾아볼 수 없고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다.

그 참혹한 광경에 얼굴이 굳어지는 서준과 오형사, 음습한 마약굴 안으로 들어간다.

22. 마약굴 안 - 오후

희뿌연 아편 연기와 쾌쾌한 냄새로 가득 찬 마약굴.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서준과 오형사, 마약굴 안으로 들어오고.

어두침침한 불빛 아래 바닥에 누운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며 웅얼거리는 사람들과

이미 죽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는 중독자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오형사 (얼굴 찌푸리며) 지옥도 이보다 낫겠네예..

처참하게 죽어가는 중독자를 보는 서준, 눈에 분노가 일렁인다.

그때 험상궂은 조직원들과 함께 다가오는 방독면 쓴 쥐새끼 닮은 네즈미(38).

서준과 오형사를 보더니 대략 정체를 알겠다는 듯 씨익 웃는다.

네즈미 (방독면 벗으며) 예헤~ 연락은 하고 오시지. 어디 분이실까?

서준 네즈미?!

네즈미 그 이름, 아무나 부를 만큼 가벼운 게 아닌데.. 누..구??

오형사 중부서 수사과장님이시다!! 새로 부임하신..

네즈미 (입 삐죽) 아.. 중부서.. 그래도 남의 영업장에 다짜고짜 들이닥치면

서로 불편해지죠. 이번 달 상납금도 두툼하게 올려드렸을텐데..
 서준 (사진 보여주며) 이 얼굴 기억나지?
 네즈미 (피식) 과장님 단지 얼마 안 돼 잘 모르나 본데.., 직통 라인 터려면 중부서부터
 교통정리하고 와요. 이런거 윗분들도 좋아하실까?
 서준 (사진 들며) 박인규. 47세. 지난달 개봉해서 히트작 영화 감독이야.
 죽기 직전에 여길 들렀다는 증언이 있어.
 즈미 여기 단골 고객만 수천 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해!!
 서준 기억해 내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당장.
 네즈미 아.. 혹 들어 오네.. (쏘아보며) 기억 안 난다면? 못 하겠다면??

네즈미 말에 연장을 꺼내 다가서는 조직원들.

겁 먹은 오형사와 달리 서늘하게 웃는 서준.

서준 그럼, 육군 특무대가 여길 채워버리겠지.
 네즈미 (움찔) .. 특..무대??!!
 서준 빨갱이 찾느라 독이 잔뜩 올랐거든.
 네즈미 씨발.. 무슨 빨갱이??
 서준 (사진 보여주며) 이 사람 죽인 총이 소련제야.
 빨갱이 잡는 특무대라면 소련제 권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지 않을까?
 네즈미 아이씨.. 소련제 권총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생사람 잡지 마요!!
 서준 요즘 특무대가 권수가 없어 널널하거든. (주위를 둘러보며) 소련제
 권총으로 살해당한 사람이 마지막 들렀던 곳이라면 좋아하겠지. 무척..
 네즈미 아... 씨부럴.. ..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요?
 서준 (쏘아보며..) ..토라.
 네즈미 (순간 눈 흔들린다) .. 토..라라뇨...? 그게 뭔..??
 서준 네가 팔았잖아. 토라.
 네즈미 (손사레치며) 저같은 찌리한테 무슨 토라?! 그 새끼가 싹슬이 치고 있구만..
 서준 (씨익) 어쨌든 토라 있는 곳을 안다는 얘기네~

울상이 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네즈미.

23. 도축장 - 오후

도축한 소를 실은 트럭들이 설 새 없이 들어오고 나간다.

서준과 오형사와 함께 겁먹은 눈으로 도축장을 지켜보는 네즈미.

네즈미 (두려움) 분명 약속한 겁니다. 저랑 관계없는 걸로요. 그 새끼가 알면..
 오형사 쥐새끼 아니랄까봐 겁은..

네즈미 아귀는요!! 차원이 다른 놈이라니깐요. 돈 되면 지 딸도 팔아먹는 짐승이거든요.
그런 개잡종 새끼가 얼마 전부터 현금을 다발 채 뿌리며 난리도 아니었다니깐요.

서준 (도축장을 살피며) 도대체.. 뭐야? 토라가..

네즈미 일제강점기 때 아현동 다이쇼 제약회사에서 비밀리에 개발한 신종 마약요.
효과 빠르고 워낙 강력해서 조선 총독부가 일본 군대에 납품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말짱 도루묵이 되버린 거죠.

서준 그게 지금 시중에 풀리고 있다?

오형사 히로뽕도 있잖아.

네즈미 뽕은 애들 장난이죠. (신났다) 며칠이고 잠 안 자고 눈 딱 부릅뜨고 싸울 수 있게
해주고요, 힘은 또 천하장사!! 총알이 몸에 박혀도 달리고 또 달린다니까요!

오형사 (네즈미 머리 때리며) 확!! 새끼가 야부리는...

네즈미 진짜라니깐요. 일당백!!
토라 한 병으로 자살특공대 백 명을 만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오형사 누가?

네즈미 아귀가 피 같은 돈을 다발 채 뿌리며 찾으려고 했던 토라 기술자.. 이황수요.

서준 (눈빛 번득) 토라 기술자 이황수??

네즈미 원래 다이쇼에서 일하던 연구원인데 손맛이 죽어요. 꽃을 워낙 좋아해서
한겨울에도 꽃무늬 옷만 입고 특히 사람 피를 광적으로 좋아해서
여러 죽였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조선 총독부도 골머리를 썩혔대요.

오형사 완전 미친개이 아이가..

네즈미 더 골 때리는 건.. 지가 만든 토라에 중증 중독자가 돼서 히까닥 해버린거죠.
덕분에 토라 숨긴 곳도, 만드는 것도 횡설수설.

서준 그럼 시중에 떠도는 토라는...

네즈미 토라에 짹통을 섞어 판 건데.. 그게 문제가 터진 거죠.

서준 그럼 반도 호텔 마약도?

네즈미 아귀 그 새끼는 진짜 상도덕 없다니까요. 탈 나면 팔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오형사 (네즈미 머리 때리며) 약 파는 새끼가! (또 때리며) 상도덕은!! 무슨 상도덕!!!

네즈미 (얼른 피하며) 에이씨.. 전 토라와 그 어떤 연관도 없는 겁니다.
(벗어나며) 몸 사려야 될 걸요. 아귀는 특히 짹새라면 이를 가는 새끼니까.

서준과 오형사를 두고 서둘러 사라지는 네즈미.

서준, 권총을 꺼내 확인한다.

오형사 우알라꼬예?

서준 토라는 반도 호텔 사건과 연관 있어요. 마무리 해야죠.

오형사 중부서 지원 때리고 난 뒤에..

서준 (도축장으로 다가가며) 오형사님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오형사 하여튼 사람 뭐 만드는 재주 있다니까. 그것도 웃는 얼굴로.. 미치겠다카이.

24. 도축장 안 - 오후

돼지 등짝을 발골하고 있는 아귀(42), 눈빛과 칼놀림이 한치 주저함이 없다.
시뻘건 돼지 살에 작은 비닐봉지들이 뽁뽁이 채워지고.
‘저게 토라?’ 비닐봉지를 보더니 서준에게 입 모양으로 말하는 오형사.
그때 상자 옮기던 사내가 상자를 떨어트리고, 일순 정적.
순간, 군화로 사내를 짓이기는 아귀.
주변 사내들이 잔뜩 겁먹은 채 상자에서 쏟아진 봉지를 재빨리 담는다.

더 다가가는 서준, 오형사도 긴장한 채 뒤따르는데,
‘두둑!’ 소리와 함께 쌓아둔 상자들이 넘어지고, 화들짝 놀란 오형사와 얼굴이 굳어지는 서준.
순식간에 연장을 든 사내들이 서준과 오형사를 둘러싼다.

오형사 (당황) 우쨌고예?
서준 (경찰 신분증 들며) 중부서다!! 마약 수사 중이니 협조해.
아귀 (칼을 들고) 안 그래도 구린내가 진동하더만.. 짹새들이었구만기래.
오형사 깎치지 마라. 쪽수 믿고 까부나 본데.. 지원 병력이 곧 와.
아귀 지원? 경찰이?? 이 장사하면서 젤루 열 받는 게 뭘 줄 알간?
서준 ?!
아귀 목숨 내놓고 썰매지게 번 돈을 짹새한테 또 꼬불쳐 줘야 되는기야.
 근데.. 지원 경찰이 온다고? 모양 빠질텐데~
오형사 과장님예.. 못 본척 하고 그냥 나갑시더.
아귀 (다가서며) ㅋㅋ.. 여기가 니네 맘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하파리로 보이네?
서준 (총 겨누며) 물러서!!
아귀 여기 일하는 놈치고 짹새한테 이 안 가는 놈 없어. (뒤 보며) 안 그러네?

아귀 뒤에서 칼을 번득이며 언제라도 튀어 나갈 것 같은 사내들.

서준 토라 기술자.. 이황수 넘겨!!
아귀 (멈칫) 이황수?!
서준 (총 노리쇠 당기며) 다시 말 안 해. 토라.. 이황수. 내 놔!!
아귀 (피식) 이 종간나 새끼는 지가 무슨 짓 벌이는 지 꿈에도 모를기야~
 ㅋㅋ.. 토라가 뭘지는 알간?
서준 (은근 슬쩍) .. 일당 백.
아귀 (입 삐죽) 알긴 아네.. 토라 한 상자면 명동 빌딩 한 채는 거뜬히 살 수 있지비.
 이황수 그 새끼 찾으면 100상자를 손에 넣을 수 있고. 명동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애기디. 그럼 누가 토라를 가장 원하갔어?
서준 네가... 바지사장?
아귀 이제 말귀를 좀 알아쳐먹네.
서준 뒷배가 누구야?
아귀 중부서 수사과장 나리.. 너 따위가 끼어들 물건이 아니다.
서준 ..뭐??!!
아귀 잼있는 건.., 토라를 찾아 기어들어 온 째새가 너 말고 또 있었지비.
..아마.. 그 새끼도 중부서였지. 곧 뒤질 몸이지만~ ㅋㅋ..

당황한 채 총구가 흔들리는 서준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오형사.
아귀가 손을 들자, 연장을 든 사내들이 서서히 조여오고,
권총 안전장치를 풀고 매섭게 겨누는 서준.

아귀 (칼을 번득이며) 기래!! 니 몸을 갈라 대한민국 경찰의 기개를 확인해 보갔어~

아귀가 칼을 까딱하자, 토라가 든 비닐봉투를 뜯더니 코로 흡입하는 사내들.
서준과 오형사, 멍청하고.
곧, 두려움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연장을 번득이며 달려드는 아귀 부하들.
‘탕! 탕! 탕!’ 총 쏘는 서준, 눈이 움찔거리고, 오형사도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총 맞은 사내들, 멍청멍청 비틀대다, 좀비처럼 다시 달려든다.

오형사 ..뭔데?!
서준 이게.. 토라..??

다시 총을 쏘는 서준과 오형사, 하지만 연장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사내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그런 서준을 보며 비릿하게 웃는 아귀, 손으로 목을 치는 시늉을 하는데,
총탄에 피 흐르지만, 광기 어린 눈으로 서준의 목숨을 노리는 아귀 부하들.
그때, ‘쿵!!’ 도축장 문이 부서지고,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검은 째차. 성육과 특경대다!!
토라를 흡입한 사내들을 소총으로 내려치며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특경대들.
성육과 서준을 쏘아보던 아귀, 이를 악다물더니 가방을 들고 황급히 도축장을 빠져나간다.

25. 거리 - 오후

도망가는 아귀를 뒤쫓는 서준. 아귀, 돌아서더니 총을 쏜다.
‘탕! 탕!!’ 몸을 숨기는 서준, 권총으로 맞대응하고. ‘탕! 탕!!’
총탄이 떨어진 아귀, 부하를 떠밀고 도망치는데,
서준에게 달려드는 아귀 부하, ‘탕! 탕!! 탕!!!’ 서준의 총격에 쓰러진다.

도망치는 아귀를 정자세로 노리는 서준, 과녁에 들어왔다!!
방아쇠를 당기는데, ‘타~~아앙!!’ 총구가 출렁인다.
보면, 서준 총을 손으로 잡고 막아선 성욱.
그 틈에 아귀는 과녁 너머 사라진다.

서준 (잡힌 총구를 뿌리치며) 뭐하는 짓이야?!

성욱 중부서? 관할 아니잖아~

서준 범인 잡는데 무슨 관할?!

성욱 몇 달 노린 놈이거든. 덕분에 물거품 됐고.

서준 (냉소) 특위도 토라를 노리시나?!

성욱 (어깨 으쓱) 토라를 알아? 또 뭘 알고 있을까?

서준 반도 호텔 홍사장, 감독 박인규.. 잘난 특위랑 얹혀있다는 건 알지.

성욱 오호.. 서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특위에 가서 차 한잔 할까?

성욱 지시에 서준을 붙잡는 특경대와 격렬하게 저항하는 서준.

(소리) 그건 좀 곤란하지~

보면, 중부서 재영과 정현, 사찰과들이 총을 들고 다가온다.
재영을 보며 눈빛이 꿈틀되는 성욱.

성욱 오늘 중부서가 총출동인가 봐~

재영 큰일 하시는 특위께서 마약 잡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한가해?

성욱 무슨.. 처리할 반민족친일자가 산더미인데.

재영 무지 바빠거야. 법도 무시하고 니들 내키는대로 잡아들이잖아.

성욱 (웃는다)

재영 그래서 일 좀 줄여주려고. 규정대로 마약 잔당들과 증거품은 중부서가 처리하지.

재영 지시에 사찰과들이 쓰러진 아귀 부하와 토라가 든 봉투를 압수하고.
사찰과를 저지하는 특경대들. 분위기 험악해지는데..

성욱 그러든가. 뒤처리는 니들 특기니까~

재영 나랏돈 받고 일하는 처지인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있겠어? 언제.. 소주 한 잔 해.

성욱 (떠나며) 소주 한 잔이 될지, 제사상 술이 될지.. 곧 다시 얼굴 볼 거야~

재영 (미소) 언제든지 대환영이지~

성욱과 특경대가 사라지자, 망가진 서준을 보며 웃는 재영.

-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는 어둠 속의 누군가, 눈빛이 예리한 지식이다.

26. 중부서 경무과장실 - 저녁

재영과 정현이 커피를 마시고 있고, 서준은 말없이 서 있다.

정현 특위한테 책 잡힐 뻔 했어!! 지금 어떤 시기인 줄 몰라서 그래?!

재영 (미소) 과장 달고 열정이 넘쳐 그런 거지. 처음엔 다 그러잖아.
 .. 근데..., 이건 좀 아쉽더라~

서준 ..??

재영 우린 식구잖아.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지~
 (커피 마시며) 아귀는 어떻게 된 거야?

서준 ..수사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정현 이 새끼가 진짜..

재영 (찾잔 내려놓더니 서준 보며) ..이서준 경위.

서준 (재영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네.

재영 단독 플레이하려면 그렇게 해.

서준 ??!!

정현 ..형님..

재영 능력만큼은 인정하니까. 대신!! 중부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면.. 식구 아냐.

서준 (움찔한다) ..

재영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는 살아남지 못해. 결코.

27. 중부서 앞 - 저녁

힘 빠진 채 중부서를 나가는 서준,
지나가는 경찰들의 시선들이 곱지 않다.

정문을 나오는 서준, 한 숨을 내쉬는데, 누군가 손을 흔든다.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앨리스(25).

28. 백화점 - 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고급 백화점.

쇼핑객들이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고, 벤치에 앉아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서준은 엘리스가 옷을 고르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새 옷을 입은 엘리스, 포즈를 취하지만, 여전히 생각에 잠긴 서준.

엘리스 어때? 괜찮아?? .. (넋나간 서준 앞에 장난스럽게 손 흔들며)
 이서준씨.. 거기 있나요?

서준 ..Ah... Good (어... 좋아..)

엘리스 보지도 않고 좋긴 뭐가 뭐야? 아직도 화 안 풀렸어?

서준 I'm not mad (화난 게 아냐.)

엘리스 그럼?

서준 I'm disappointed (실망한 거지.)

엘리스 누구한테?

서준 There's a guy who is weak, lacks ability,
 and isn't recognized by his colleagues.
(힘없고, 능력 부대끼고, 동료한테 인정 못 받는.. 그런 놈 있어.)

엘리스 (빙긋) 그건 좋은 징후겠어. 아빠가~

서준 A good sign?(좋은 징후?)

엘리스 (다른 옷 입어보며) 어쨌든.. 자신을 되돌아 보는 거잖아.

서준 ..

엘리스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 아직 못 봤거든. 오전에 만난 경찰청장만 해도 그래.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인터뷰 내내 떠들어댔어. 오후에 기사 탄 국방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맘만 먹으면 평양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대. 더 황당한 건 이 말도 안 되는 뽕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지.

서준 (씹씹하게 웃는다) ..

엘리스 해방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아주 일상이라니까. 더군다나 특위도, 경찰도.. 같은 공무원 아냐?
몇 번을 들었는데도.. 어휴.. 이해가 안 돼.

서준 It's hard to explain in one line what Korea is like now...
(한 줄로 설명하기 힘든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니까...)

엘리스 하여튼 맘에 안 들어. (다른 옷 들어보이며) 이 옷은? 또 좋다 할 거지?

서준 (미소) Sure~ (물론~)

엘리스 (웃다 뚫어지게 바라보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서준 What now? (왜 또??)

엘리스 왜 날 만나?

서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엘리스 좋아한다고 하기엔 뭔가 모자라고, 친구라기엔 또 뭔가 스윗해.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는 사람이 아무리 할아버지 부탁이라지만
날 만날 이유가 없잖아? .. (흘겨 보며) 혹시... 영어 공부 때문에?!

서준 (처음으로 진심어린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글썄.. 전부 다?
그리고 그 옷 잘 어울려. 진짜~

서준을 매섭게 쏘아보던 앨리스, 함박웃음 짓더니 직원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런 앨리스를 바라보는 서준. 희미하게 웃는다.

29. 교실 - 오전 (회상)

아침 햇살이 내리찍는 교실, 일본어 읽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
빈 교실에서 일본어 공부에 열중하는 교복 입은 서준(18).
그때 문 열리고, 칼을 찬 일본인 교사가 종이 박스를 들고 들어온다.

서준 (벌떡 일어나 고개 숙인다) 日曜日なのにどうしたの?
(일요일인데 어쩐 일이십니까?)
일선생 (박스를 들고) 荷物の整理があるので
あんたは日本人より日本語の方が真面目だと思うよ.
(짐 정리할 게 있어서.. 자넨 일본인보다 일본 말에 더 진심인 것 같아.)
서준 (미소) いい先生に恵まれたおかげですね~
(좋은 선생님을 둔 덕분이지요~)
일선생 (미소) 君はいつも変わってないからいい.
(자넨 늘 한결같아서 좋아.)

일본인 교사는 박스 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건넨다.
서준의 눈이 빛난다.

서준 (책을 공손하게 받으며) ..大切な本じゃないですか?
(아끼시던 책 아닌가요?)
일선생 これからこの国の言葉と文字を学ぶんだ.. .. 新しい世界が開かれるよ.
(앞으로 이 나라 말과 글자를 배우게.. .. 새 세상이 열릴 거야.)

쓸쓸하게 웃던 일본인 선생,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교실을 둘러보다 나가고.
일본인 선생이 준 책을 펼치면, 영어책이다.
서준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30. 반민특위 - 아침

붉은 벽돌 2층으로 지어진 위압적이고 견고해 보이는 반민특위 건물.
정문에는 소총을 든 경찰 2명이 출입자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주위를 경계한다.

(소리) 불쌍한 내 남편 살려 내!!

31. 반민특위 현관 - 아침

한복을 곱게 입은 40대 중반 여자가 특위 신고 접수처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지나가던 특위 사람들은 다들 시선을 외면하고, 여자 고함소리는 더 커져 간다.

중년여자 (울부짖으며) 안 그래도 맘 약한 양반인데.. 얼마나 졌으면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어. 책임자 나와!! 안 나오면 내 시체를 치우게 될 게야!!

특위 접수처 직원은 중년 여자의 항의에 난감한 얼굴로 시선 피하기에 바쁘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성욱과 특경대, 중년여자를 스쳐 지나간다.

중년여자 (성욱을 알아보고 따라가며) 맞아.. 너지?! 우리 양반을 개 끌듯 잡아간 놈이!!
니 놈 맞지? 니들이 죽인거야!!

무표정한 얼굴로 2층으로 올라가는 성욱,
그때 ‘뽕그랑!!’ 성욱 얼굴 옆에서 컵이 부서진다.
컵 파편에 얼굴에 상처가 난 성욱, 특경대가 중년여자에게 다가서자 손으로 막는다.

중년여자 우리 집 양반에게 뭘 짓 한 거야?! 여기 조사받고 나온 뒤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어. 그 여린 양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놈들아!!

성욱 흥완구! 고토 마사오!

중년여자 (울음을 멈춘다) ?!

성욱 개성 방직 사장으로 조선 총독부에 전쟁 지원금 삼백만원 후원.
조선임전보국회 위원으로 전국을 돌며 태평양 전쟁 참여 독려.
덕분에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어.

중년여자 (살기) 증거 있어? 그 착한 양반이 했다는 물증 있냐고?!

성욱 2층 자료실에 올라가면 한나절을 봐도 못 볼 제보가 쌓여있지.
원한다면 같이 올라가든가.

중년여자 (멈칫하다 독기) .. 그거 전부 다 거짓부렁이야! 모함이라구!!
솔직히.. 일제 때 조선 사람치고.. 그 짓 안 한 인간 있어?!
나라가 없는데.. 일본 놈 눈치 안 보고 어떻게 살 수 있었겠냐고?!

성욱 (무표정하게 바라보다 계단을 올라간다)

중년여자 그래!! 넌 얼마나 잘나고 뽀뽀하기에 우리 양반을 죽였어? 죽였냐고?!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성욱, 발걸음을 멈추더니 중년 여자에게 다가간다.

그런 성욱을 죽일 듯 쏘아보는 중년 여자.

얼굴에 손을 대는 성욱, 뭘가를 꺼내고,

보면, 왼쪽 눈에 시커먼 구멍이 나 있고, 성욱 손에 의안이 들려있다.

성욱 고등계 형사가 동지들 이름 대라며 내 눈을 뽑아 갔어.

노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야.

중년여자 (움찔) ?!

성욱 내 부모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 홍완구는 내가 죽이지 않았어.

중년여자 그럼 왜.. 그이가.. 죽어? 그것도.. 근처도 안 가던 마약까지 손 대고.. 왜??!!

성욱 나 역시 궁금해. 홍완구는... 마약 따위에 손댈 사람이 결코 아니였거든.

특위에서 조사받던 그 누구보다 당당했으니까!!

중년여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이놈들아. 내 남편 살려내!! 살려내라고!!!!

절규하는 중년여자를 보며 한 숨 짓는 특위 사람들, 말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2층 계단을 올라가는 성욱,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다.

32. 레스토랑 - 점심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급 레스토랑,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양식을 즐기고 있다.

창가 테이블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지석.

신이 난 아이들이 익숙치 않은 포크로 고기를 입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며 웃는다.

나이프와 포크로 고기를 먹으려던 아내, 칼과 포크를 내려놓는다.

지석 왜? 입에 안 맞아?

아내 낫설어서요. 결혼하고 처음 아닌가..

지석 미안해.

아내 ..뭐가요?

지석 빠듯한 월급에 아이들과 양가 부모님까지..

아내 (빠죽) 그것 말고는 없나?

지석 (멋지게 웃는다) ..

아내 뭐..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당신 덕분에 이런 델 다 오고~

..제가 왜 잘난 후보들을 두고 당신을 택했는지 알아요?

지석 (빙긔) ..외모?

아내 하여튼!! .. 당연히 그것도 한몫 했죠~ .. 저 아버지처럼 후회하며 사는 것

안 볼 것 같았거든요. 당신은... 우리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거죠?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지석,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건네준다.

아내 (선물을 보며) 오늘따라 왜 이래요. 정말...
지석 (미소)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야.
아내 (빠죽) 설마.. 이걸로 생일 통치려구요?
지석 .. 본청 가면 아이들이랑 여행 가자.
아내 (씹쓸하게 웃는다) ..
지석 미안..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내 (입술을 깨물더니 뭔가 말하려다 눈빛이 흔들린다) .. 약속.. 한 거예요?
지석 그래 약속. 부끄럽지 않는 남편과 아버지가 될게.
아내 (지석을 뚫어지게 보다 한 숨 쉬더니 미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고기를 아이들에게 주며) 천천히 먹어도 돼. 그러다 탈 나~

아내가 건네준 고기를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는 지석, 여러 감정이 스친다.

33. 서울 전차 - 오후

전차를 타고 중부서로 가는 서준.
창밖에는 사람들과 자전거, 자동차들로 활기차 보인다.
정류장에 멈추는 전차, 사람들이 올라타고, 정류장에 지석이 보인다.
창문을 열고 부르려는 서준, 지석 옆에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31)가 서 있다.
그 여자를 설득하느라 애써는 지석, 여자는 지석 손을 뿌리치다, 전차를 힐끗 본다.
전차 안에서 갑작스런 여자 시선에 움찔 놀라는 서준, 지석도 서준을 보고 멈칫하고.
‘뭔데??’라며 당황한 지석에게 손짓하는 서준.
젊은 여자가 황급히 사라지자, 서준을 보고 힘없이 웃던 지석, 그 여자를 뒤따라간다.
사라지는 지석을 보며 가웃하는 서준, 전차가 출발한다.

34. 중부서 서준 책상 - 저녁

‘타닥!! 타닥!! 타닥!!’ 경쾌하게 울리는 타이프 소리.
‘반도 호텔 마약 사건’ 조서를 타이프로 쓰고 있는 서준.
오형사가 종이 박스를 들고 다가온다.

오형사 한경정님 물건은 우짜꼬예? 내일부터 본청 근무 아입니까?

서준 (타이프 치며) 거기 놔주세요. 조만간 얼굴 보기로 했으니까요.
 오형사 본청 정보과장이면 엄청 높으신 건데.. 한경정님 얼굴 뵈기도 쉽지 않겠는데예.
 .. (이것 저것 만지며 눈치 본다)
 서준 (타이프로 조서 마무리하며) 수고 했습니다. 내일 보시죠.
 오형사 너무 무리하지 마이소. 밥은 챙겨드시구예. .. 타이프 소리.. 짹이네~

서준에게 너스레를 떨며 나가는 오형사.
 타이프 치던 서준, 박스에 담긴 지석 물건을 쳐다보고, 수사 파일과 개인 물건들이다.
 오후에 본 지석과 젊은 여자가 신경 쓰이는 듯, 한 숨 내 쉬는 서준.
 다시 타이프를 치고, ‘반도 호텔 마약 사건’ 조서를 마무리한다.

35. 변화가 거리 - 밤

한글, 한문, 영어로 뒤섞인 네온사인들이 번쩍이는 변화가 거리.
 길 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끊고 나오는 지석, 얼굴 표정이 무겁다.
 빨간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은 뒤 다가오는 녹색 전차를 바라본다.
 시계를 확인하는 지석, 지나가는 녹색 전차에 달려가 훌쩍 올라타고,
 지석을 태우고 화려한 도심 속으로 달려가는 녹색 전차.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 달리던 전차에 올라타는 중년 남자, 화려한 꽃무늬 난방을 입었다.

36. 영화관 - 밤

‘까르르~’ 웃음소리 들리고,
 화려한 미국 도시와 익살스러운 미국 배우를 보는 관객들 탄성이 터져 나온다.
 관람석 한쪽에서 영화를 보며 배우 대사를 혼잣말로 따라 하는 서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지 플래쉬를 켜고 영어 사전을 확인한다.
 옆 관객들은 서준 행동에 ‘뭐지?’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지만, 영어 공부에 열중한 서준.

‘까르르~~’ 더 큰 웃음 소리 터지고,
 환한 장면이 나와자 어둠 속 관객들 모습이 드러나는데,
 화면을 보며 영어 대사를 따라 하던 서준 시선이 멈춘다.
 서준 옆쪽에 검은 정장을 입은 차가운 인상의 여자, 낮에 지석 옆에 있던 그 여자다!!
 여자도 서준과 시선이 마주치자 시간이 정지된 듯 물끄러미 바라보는 둘.
 곧,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관객들 웃음이 터져 나오자, 스크린 쪽으로 시선 돌리는 여자.
 멍쩍어하는 서준, 다시 영어 대사를 따라 하며 영어 공부에 집중한다.

37. 영화관 밖 - 밤

문이 열리고, 웃음이 가득한 채 상영관에서 나오는 사람들.
밖에 비가 내리자, 난감해하더니 우산 장수에게 몰려가 우산을 산다.
서준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고, 영화관 밖으로 나가다 멈칫!!
비 내리는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정장의 여자.

서준 (비 내리는 거리를 보며) 내일까지 비 온다고 하던데..
지인 (서준을 힐끗 본다) ..
서준 (우산을 들어 보이며) 같이 쓸까요? 지석 선배 후배거든요~

검은 정장 여자 앞에서 거침없이 우산을 펼치는 서준, 그런데 제대로 퍼지질 않는다.
우산을 펴느라 킁킁대는 서준과 물끄러미 바라보는 여자, 얼굴에 미소가 흐르는데,
그때 ‘끼익!!’ 멈추는 자동차, 어둠 속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준과 지인을 쳐다본다.
우산을 펴느라 여전히 애써는 서준과 그런 서준을 보며 웃는 여자, 자동차에 올라타고.
‘부웅!!’ 엔진음을 울리며 빠르게 출발하는 자동차.

서준 (사라지는 뒷차를 보며) 누구까? (망가진 우산을 보며) 바보.. 멍충이..

고장난 우산을 가방에 넣고, 비 내리는 거리로 뛰어나가는 서준.

38. 전차 정류소 - 밤

비를 맞으며 정류소로 뛰어 들어오는 서준,
정류소 안에는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며 한마디씩 한다.

‘늦네. 또 늦어.’, ‘어디 제 시간에 온 적 있나요? 곧 오겠쥬.’
‘이거 큰일이네. 막차 놓치면 통금 걸려 집에 못가는데..’

전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걱정스러운 듯 수군거리는 사람들.
점점 굵어지는 비, 그때 ‘파팡!!’ 번개가 치고, 가로등이 불규칙적으로 깜박거린다.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서준, 그때 ‘저기 온다. 와!!’
보면, 왼쪽 철로에서 세찬 비를 맞으며 다가오는 녹색 전차.
사람들이 전차를 타려고 줄을 서고.
다가오던 녹색 전차, 정류소를 지나치더니 한참을 더 가서 멈춘다.

‘뭘야??!!’, ‘운전사가 신참인가봐요~’

‘그래도 이 비에 집 가는 것만 해도 고맙지. 출발하기 전에 어서 탑시다.’

비를 맞으며 저만치 멈춰 선 전차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서둘러 전차에 올라타고, 서준도 전차에 올라가려다 멈칫. 전차 주위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무엇.. ‘..뭘지?!’

그때 ‘아아악!!!’ 비명 소리와 함께 전차 안에서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

갑에 질린 채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고.

보면, 전차 안에서 흘러내리는 검붉은 피다!!

놀라 권총을 꺼내는 서준, 심호흡을 한 뒤, 붉은 피가 흐르는 전차 안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총구를 겨눈 서준의 눈이 크게 출렁인다!!

39. 전차 선로 - 새벽

다급한 무전기 소리와 함께 경광등을 번쩍이는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한다.

선로 위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불 꺼진 녹색 전차.

그 주위로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있고,

다가서려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을 총으로 거세게 막아서는 제복 경찰들.

그 주변 경찰차에서 낮이 나간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서준.

‘툑!툑!’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중부서 경무과장 재영과 정현이다.

40. 전차 주변 - 새벽

비를 맞으며 멈춘 녹색 전차로 다가가는 재영과 정현, 그 뒤를 따르는 서준.

재영 ..다친 데는?

서준 (대답하려다 피 묻은 손이 떨어진다) ..

정현 용의자는?

서준 (입 열지만 말이 입 속에 맴돈다) ..

정현 현장에 처음 도착했다며?!

서준 ..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영 (전차 앞에 멈추며) 운 좋았네.

서준 (움찔) !!

‘핑! 핑!’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녹색 전차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깨진 유리창과 곳곳에 뚫린 구멍 사이로 검붉은 빗물이 번져 나온다.

전차 주위에서 참지 못하고 뒤돌아서 구토를 하는 몇몇 경찰들.

재영이 다가오자 사찰과 형사들이 다가와 귓속말을 전해주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는 재영. 몇 마디 귓속말을 하자, 빠르게 흠어드는 사찰과들, 주변 경찰들도 더 분주해진다. 말은 없지만 침묵 속에 팽팽히 당겨진 공포와 분노!!

재영 (전차를 보며) 청와대가 코 앞이야. 해결 여부에 따라 우리 운명도 바뀔거야.

전차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을 무시한 채 성큼 올라가는 재영. 정현이 뒤따르고, 망설이던 서준, 이를 악물고 전차로 올라간다.

41. 전차 안 - 새벽

짙은 화약 연기 너머로 검붉은 피로 물든 전차가 보인다. 운전석에 머리를 처박고 죽은 운전사, 그 뒤로 고개가 제껴진채 교복 학생이 널부러져 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차 안을 살피는 재영과 얼굴이 굳어진 정현, 눈빛이 흔들리는 서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전차 바닥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가 들리고, 보면 붉은 핏물에 잠겨있는 무수한 탄피들이다.

재영 (시체를 하나씩 확인하며) 생존자는?

서준 40대 초반 남자 한 명인데..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영 (주위를 둘러보며) 희생자 중에 우리 식구도 있다던데..

피범벅이 된 사망자를 살피나가던 재영과 정현, 멈칫하고. 머리 반이 날아간 50대 남자 옆에 피투성이가 된 사내가 고개가 꺾인 채 쓰러져 있다. 한 손에 권총을 꽂 쥔 채로!! 죽은 사내를 보는 서준 눈이 심하게 요동친다.

서준 (목소리 떨리며) .. 한지석.. 경정.. .. 제 사수입니다...

42. 중부서 - 아침

긴장감이 감도는 중부서.

“電車虐殺 捜査本部(전차학살 수사본부)” 플랜카드가 회의실에 붙여지고, 책상과 사무집기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화이트보드에 올라가는 전차 학살 현장과 참혹한 사망자 사진들.

그 옆으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조직과 범죄자들 정보가 첨부된다.

그 과정들을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는 재영.
그때 중부서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재영을 보자, 일제히 고개 숙이는 형사들.
빈 책상에 각자 자리 잡더니 곧바로 수사를 시작한다.
분노와 결기로 가득 찬 중부서.

43. 중부서 서준 책상 - 아침

텅 빈 중부서 수사과 사무실.
우두커니 앉아 있는 서준 손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붙어있다.
오형사가 서준에게 다가가다 멈칫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친다.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는 서준, 눈빛이 흔들린다.

-플래시백 -

전차 안에서 떨리는 총구를 겨누고 선 서준, 그 앞에 피범벅 된 지석이 쓰러져있다.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손에는 뭔가를 꼭 움켜쥐고 있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지석 손을 힘겹게 펴는데...
지석 손에서 나오는 피물은 쪽지!!

-현재 -

서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펴면, 검붉게 물든 글씨!!

‘TIGER HUNT’

서준 (나지막) 타이거 헌트... とら がり(토라 가리) .. 호랑이 사냥..

서준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더니 비어 있던 눈동자에 살기가 차오른다.
피 묻은 쪽지를 꼭 움켜쥐고 호주머니에 넣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서준.

44. 중부서 경무과장실 - 아침

담배 연기가 자욱한 경무과장실.
정현과 뭔가를 논의하던 재영, 서준이 들어오자, 말을 멈춘다.

재영 아직 안 갔어? 오늘은 쉬어도 돼.
서준 (다가서며) 수사 브리핑.. 제가 하겠습니다!!
정현 네가 나설 자리 아냐.
서준 (재영을 쳐다보며) 현장 최초 목격자로서... 제가 브리핑하는 게 그림이 될 겁니다.
정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 새끼가..!
재영 (손으로 저지) 청장님은 물론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어. 감당할 수 있겠어?
정현 아직 감량 안 됩니다. 망칠 게 뻔해요.
서준 제 사수!! 한지석 경정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고개 숙이며) 맡겨 주십시오!!

물러설 기색 없는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재영과 눈치 살피는 정현.

45. 중부서 특별수사본부 - 오전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찬 형사들이 빈 단상을 보며 기다리고 있다.

재영, 정현과 함께 들어오는 서준, 단상 앞으로 나간다.

서준을 보며 수군거리는 형사들.

재영 (말없이 형사들을 둘러보며) ..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상대해 오던 범죄가 아니다.
 어린 학생부터 고령의 시민들까지 무차별 학살한 극악무도한 범죄다.
 현장 최초 목격자 이서준 경위가 사건 상황을 브리핑하겠다.

재영 말에 형사들 사이에서 웅성대는 소리 들리고,

재영이 눈짓하자, 단상 앞으로 나서는 서준.

서준 (첫 사진 들며) 어제 22시 55분. 서울 황금정역에서 멈춘 37번 전차다.
 운전수 포함 승객 7명이 사망했고 신원미상 한 명은 혼수상태.
 (다음 사진 들며) 첫 희생자는 운전수 김정곤. 43세. 등 부위 3발, 후두부 1발
 관통상으로 사망. 탄도 분석 결과, 근거리에서 발사된 7.62mm 실탄이다.
 (전차 요금박스 사진을 가리키며) 금품 피해 없었고 돈을 노린 사건 아니다.

수사과장 서준의 브리핑을 팔짱 낀 채 지켜보는 형사들.

서준 (다음 사진 들며) 조선은행 대리 최병하. 28세 . 두부 3발 관통상과 우측 견갑부
 1발 유탄 피해.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약혼녀 정순녀. 25세. 혜화초등학교 교사. 흉부 4발 관통상으로 사망.

형사1 (손 들며) 남자 관계는 조사해봤습니까?

재영 아이들을 사랑하는 품행이 매우 단정한 참교육자로 알려졌다.
서준 (다른 사진 보여주며) 하동관 요리사 장용수. 47세. 10년간 한 번의 결근도 없던 모범 근로자다. 흥부와 복부에 5발 관통상. (다른 사진 보여주며) 덕성여고 1학년 김종남. 야간자율학습 귀가 중 피해를 당했다. 두부와 흥부에 7발 관통상. 장래 희망은... 가난한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였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욕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이번엔 얼굴 반이 날아간 사진을 보여주는 서준.

서준 서울 시청 서기관 이정석. 나이 38세. 경성제대 출신으로 서울 전차 노사분규 담당자다. 최근 강성 노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다.
(마지막 사진을 드는 서준, 손이 흔들린다) 그리고 마지막... 옆자리에 있던.. 중부서 한지석 경정.. .. 경찰청 정보과장 내정자다.
(이 악물며) 흥부 5발, 두부 1발로 관통상. 근접에서 확인 사살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과 교전했고, 손에 쥔 총에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다.

브리핑을 듣던 형사들 얼굴에 분노와 적개심이 끓어오른다.

사찰1 단서는요?!

재영 (단상으로 나서며)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장에서 단서 하나가 나왔다.
전차 학살에 사용된 살인 도구다.

재영이 고개 끄덕이자, 단상 앞으로 나가 사진을 보여주는 서준.
사진 속에는 소련군이 들고 있는 둥근 드럼 탄창의 기관단총!!

사찰1 (벌떡 일어나며) 내가 그랬잖아. 그 새끼들이 틀림없다고!!

사찰2 .. 빨갱이 새끼들!!

여기저기서 거친 욕들이 터져 나오고, 서준에게 계속하라며 지시하는 재영.

서준 (총기 사진을 보여주며) ppsH-41. 따발총으로도 불리는 소련제 기관단총으로 둥근 드럼 탄창에 70발을 장전하는 괴물이다. 만약 용의자와 마주치면 정면 대결은 피하는 게 좋다.

사찰1 빨갱이랑 마주치면 꼬랑지 내리고 도망쳐라?

서준 아직 총기 외에 밝혀진 건 없다. 용의자도 살인 동기도...

사찰2 그딴 거 따지는 사이에 지하로 숨거나 복으로 튀면 어쩔 건데?

서준 용의자 발견 시 단독 행동은 삼가하고 특수본으로 즉시 연락해서..

사찰2 (일어나며) 빨갱이는 내가 잘 알아!! 이참에 모조리 쓸어버려야 돼

사찰1 (뒤따라 일어나며) 맞아. 빨갱이는 죽여도 돼!!
서준 (당황) 아직 수사 초기 단계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사찰2 (피식) 풀리시면.. 빠지든가!!

서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우르르 일어나는 사찰과와 형사들.
그때, “두두둑!!!” 단상 위로 쏟아지는 피 묻은 탄피들!!
나가던 형사들이 탄피를 쏟아부은 재영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자리에 앉는다.

재영 (피 묻은 탄피를 들며) 나오기 전에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 .. 지시는 하나!
무고한 시민들과 한경정을 학살한 잔인무도한 살인마들을 발본색원해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좋다. 빨갱이들과 관계된 건 뭐든 물어와!!

재영이 단상에서 내려가자, 서준을 비웃으며 우르르 몰려 나가는 형사들.
혼자 남겨진 서준, 사망한 지식 사진을 응시한다.

46. 중부서 경무과장실 - 오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재영과 정현, 굳은 얼굴의 서준이 들어온다.

재영 (앉으라며 손짓) 수고 했어. 우리 애들이 좀 거칠지?
서준 (서 있는 상태로) 이번 사건 수사에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정현 청와대에서 난리인 거 몰라?
서준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고, 단서 하나로 용의자를 속단하는 건..
재영 (커피잔 내려놓으며) 이서준. 하나 물어보자.
서준 (시선 피하지 않고 응시한다) !!
재영 운 좋게 용의자를 잡았어. 자백은?
서준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 절차대로..
재영 (말 자르며) 증거가 마땅치 않아~
서준 증거 없이 자백을 강요하는 건..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사소송법 제309조 위반이라..
재영 마지막!! 유죄 입증이 힘들지만 또 다른 범죄 계획을 알게 됐어.
영장 없이 처리할 수 있겠어
서준 (쏘아보며) 불법 수사는 법정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어떤 식이든 문제 생깁니다.
재영 역시.. 최고 학부 법대 출신이라 달라~

웃는 재영, 서준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민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은 남자가 보이고, 밑에 이름이 적혀있다.

서준 (음찹) ..이항수..
 재영 마약 만들던 인간 쓰레기로 전차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야.
 자네 선배 한경정이 목숨 걸고 싸워준 덕분에..
 재영 더 기막힌 건, 최근에 빨갱이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네..
 서준 .. 북에서 마약 사범은 즉결 처분입니다.
 재영 남쪽에서는 다르지~ 약 판 돈으로 북에서 끊긴 공작금을 대신할 수 있고,
 안 그래도 물러터진 남쪽 사람들을 마약쟁이로 만들면 더 좋고. 완전 꽃놀이패지.
 서준 (눈이 꿈틀) !!
 재영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 쓰레기를 수사하는 건 불법인가? 불가피한 조치인가?
 이서준 경위!!

꽃무늬 옷을 입은 이항수 사진을 보는 서준, 눈이 요동친다.

47. 특위 사무실 - 오전

조서 파일들을 서류 상자에 서둘러 정리하는 특위 사람들.
 얼굴이 굳은 특위1, 문을 열고 들어온다.

특위2 어제 당직이었다며?
 특위1 말도 마. 특위 앞이 난리도 아니었어. 서울 경찰은 다 몰려왔다니까.
 특위2 전차 사건... 진짜야? 신문은 사고났다고 조용하던데..
 특위1 또 보도 통제했겠지. .. (서류 상자를 보며) 피의자 자료는 왜?
 특위2 (한숨 쉬다 목소리 줄이며) 전차 사망자 중에 특위 피의자가 있다네.
 특위1 이번엔 또 누군데..??

그때 ‘덜컹!!’ 문 열리고, 성욱과 특경대들이 들어온다.
 조서 자료를 정리하던 특위 사람들, 서둘러 흩어지고.
 지나가던 성욱, 자료가 담긴 박스를 보자, 박스를 빼앗듯 챙겨 들고 뒤따르는 특경대들.
 성욱과 특경대들을 바라보는 특위 사람들 얼굴에 두려움과 의심이 서려 있다.

48. 특위 성욱 방 - 오전

책상 위에 놓인 특위 피의자 조서 박스.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성욱, 조서 하나를 펼친다.
 조서에 적힌 이름과 첨부된 사진. 전차 학살에서 사망한 ‘한지석’이다.

지석 사진과 조서 내용들을 쏘아보는 성욱, 한쪽 눈이 꿈틀된다.

49. 특위 조사실 - 저녁 (회상)

붉은 조명등 아래 굳게 입을 다물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는 지석과 취조하는 조사관1,2.

조사1 (책상 치며) 계속 입 다물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조사2 중부서 한지석 경정. 특위 조사 불응은 가중 처벌 사유입니다.

그때 ‘철컹!!’ 문이 열리고 성욱과 특경대가 들어온다.

급히 열린 일어나는 특위1,2.

성욱, 지석 조서를 확인하더니 웃는다.

특위2 몇 시간째 입도 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특위1 특위 재판부로 즉결 넘기시는 게..

성욱 (조서 내려놓으며) 다들 나가 있어.

조사1 ..네?!

조사2 규정상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

말없이 쏘아보는 성욱, 불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조사1,2.

특경대들도 조사실 문을 닫고 나간다.

둘만 남은 조사실. 성욱, 조서를 옆으로 치운다.

성욱 (냉소) 일본 고등문과 수석 합격. 법관 대신 일본 경찰 고위 간부로 출발.

.. 해방 후 중부서 수사과장을 지내다 경찰청 정보과장으로 영전.

반민족 친일 엘리트 경찰의 교과서야. 완벽해~ .. 할 말이 있다고?

지석 (말없이 성욱을 쳐다본다) ..

성욱 친일.. 나 혼자 했냐? ..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민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본과 협력했다.. 이딴 구차한 레퍼토리?

지석 (희미한 미소) ...

성욱 아니면 뇌물이라도 쓰게? 어쩌나.. 내 몸값이 어마어마하거든.

일본 열도는 팔아야 될 거야~

지석 (어깨 으쓱) ..

성욱 할 말 없어졌나 봐. (서늘하게 웃더니 일어나며) 내 시간을 낭비한 댕가로

특위에서 악명높은 강판사님에게 배정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

지석 .. 호랑이.. 사냥.

성욱 (나가다 멈칫) 뭐??!!
지석 호랑이 사냥에 대해 이야기 할 게 있어.
성욱 (지석 먹살을 와락 움켜지며) .. 네가 어떻게 그걸??!!

붉은 조명이 흔들거리고, 죽일 듯 쏘아보는 성욱과 먹살이 잡힌 채 웃고 있는 지석.
서로의 눈빛이 부딪친다.

50. 병원 중환자실 앞 - 오후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굳은 얼굴의 의사와 간호사.
그 앞에서 사찰과 형사 2명이 경계를 서고 있다.
서준과 오형사가 다가오자 앞을 가로막는 사찰1,2,

사찰1 면회 불가야!!
오형사 예헤.. 와 그라노? 같은 식구끼리~
사찰1 (서준을 힐긋 보며) 식구 좋아하시네.
서준 (밀치며) 전차 학살 수사 중이다. 비켜!!
사찰2 (막으며) 예외 없이 병실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어.
서준 지금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거야?!
사찰1 경위 나리~ 누구 백으로 그 자리를 꿰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안 통해~
서준 (총 꺼내며) 이 새끼가!!

사찰1,2도 총을 꺼낸다.

오형사 (중간에서 막으며) 쑈악하게.. 후딱 치워라카이!!
(소리) 뭐꼬??!!

험악하게 생긴 사찰3이 다가오자, 난감해하던 오형사, 얼굴이 급뻘아진다.

51. 병원 뒤편 - 오후

담배를 뽕뽕 피워대는 사찰3과 사정하는 오형사, 그 옆에 서준이 서 있다.

오형사 고향 좋다는 게 뭘니꺼?
사찰3 무조건 입 다물라겠는데..., 일급 보안이라카이!!
오형사 전차 학살에서 사망한 우리 식구 알지예?

(서준을 가리키며) 과장님 사수 아입니까.
 사찰3 에나가.. .. 우짜노..
 오형사 사수가 총 맞고 순직했는데.. 빠리하게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예? 안 되예?
 사찰3 하모. 하모.. .. 그라모 안 되지~
 오형사 (서준에게 슬쩍 눈짓) ..
 서준 생존자가 마약 기술자.. 맞나요?
 사찰3 (한숨) 이카몬 안 되는데..
 오형사 행님요!! 참말로!!

답답한 지 담배를 다시 꺼내 무는 사찰3, 서준이 불붙여주자,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사찰3 이항수라고.. 마약 기술자 중에서도 최상급이라예.
 조선 총독부 때도 특별 관리 받았다 카더라.. 요즘 몸값이 금값이랍니다.
 서준 마약 조직 간의 전쟁인가요?
 사찰3 그랬으면 우리가 정리해뻘지. 요즘 약에 몰빵한 새끼들이 누군 줄 아는교?
 오형사 마약 조직들.. 아이라예?
 사찰2 (고개 저으며) 빨갱이!! 빨갱이!!
 오형사 빨갱이가 와 예??
 사찰3 와기는??? 남한을 마약 천지 빼가리로 만들어 놓고 꿀꺽하려는 개수작이지.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특위 새끼들은 일할 사람 다 잡아 가비꼬.. 오늘 아침에도
 마포서 사찰 과장님 잡혀갔다 안카나. 이러다 대한민국 개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서준 ..이항수.. 볼 수 있을까요?
 사찰3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근데..
 서준 ..??
 사찰3 잠전에 진통제를 왕창 쏟아부었다카이. 취조 한다고.
 오형사 시간 지나면 깰 거 아입니까?
 사찰3 (고개 저으며) 의사도 모른다카더라. 영영 못 일어나는 수도 있고.. 맛탕이 가뻘어.
 오형사 아.. 큰일이네. .. 빈 손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 과장님 우짜노?

답답해하는 오형사, 서준도 다른 방법이 없자 얼굴이 굳어지는데.,

사찰3 (쪽지에 뭔가 적더니 건네주며)) 여길 함 둘러보던가. 고향 후배에 우리 식구가
 흥한 일 당해서 특별히 봐주는 기라예. .. 대신.. 비밀입니다. 절대 비밀!!

52. 도심 거리 - 저녁

가로등이 켜지는 도심 거리.

소총을 맨 제복 경찰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이 짙게 배어있다.
경찰을 피해 도심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 둘.

53. 도심 뒷골목 - 저녁

어두침침한 뒷골목에 사내들이 경계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다.
모자 쓴 남자 둘, 사내들에게 다가가 뭔가를 주고 받는다.
급히 사라지는 남자 둘, 서두르다 종이 뭉치를 떨어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종이뭉치, 주변으로 하얀 가루가 흩날린다.

남자1 저 아까운 걸.. 빨리 주워!!

떨어진 하얀 가루를 황급히 종이 뭉치에 담는 남자2,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진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머리를 짧게 깎은 앳된 얼굴.
뒷골목 사내들, 별일 아니라는 듯 약 구하러 온 다른 사람과 흥정하는데,
황급히 종이 뭉치를 주운 뒤 빠져나가는 남자1,2.
그때 그 팔을 붙잡는 손, 서준과 오형사다.

서준 너.. 학생이지?

학생1 아니예요. 저 어른이에요. 어른..

오형사 어른이면 감옥가야 될텐데.. 어데 학교고?

학생2 (손 뿌리치며) 진짜 아니예요!!

서준, 학생2 옷 소매를 걷으면, 팔뚝에 시퍼런 주사 자국이 뺨뺨하다.
서준의 눈빛이 적개심으로 가득 차고.
그때 서준과 오형사 주위를 에워싸는 뒷골목 사내들.

사내1 남의 사업장서 먼 진상이어?

사내2 약 살라고 왔음 신경 끄고 줄이나 서랑께.

서준 애들한테 약을 팔아?!

사내1 애는 무슨.. 중학교 땡기면 다 컷제. 글고 우리가 칼 들고 협박했간디?
지들이 필요해서 온 것이제. 느그덜맹키로~ ㅋㅋ..

‘퍽!!’ 웃던 사내1 고개가 뒤로 제껴지고,
‘퍽! 퍽!!’ 연달아 사내1 멍치와 얼굴을 날려버리는 서준.
화들짝 놀란 사내2, 칼을 꺼내는데, 머리에 서준 총구가 겨눠진다.

사내2 니미 씨발.. 어느 조직이여?!

사내1 (피 흐르는 코를 막으며) 우릴 건딜고 무사혈 줄 알어?!

오형사 (사내1,2 손에 수갑 채우며) 이 잡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카이.

사내2 웃기고 자빠졌네. 느그들은.. 오늘부로 뒤졌어야.

사내1 우리가 누군지 알른 깜짝 놀랄 것이여. 그냥 안 둘 것이랑게!!

서준 (냉소) 잘 알지. 니들이 누군지. ..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는.. 남로당 동부 지부.
요즘 빨갱이들은 애들한테까지 약을 파나?

서준 말에 흠칫 놀라는 사내1,2.
총구를 겨눈 서준, 이항수 사진을 들이밀고.
사내1,2, 눈빛이 잠시 흔들리다 시선을 외면한다.

서준 누군지 알지?

사내1 몰러. 우리가 으뜨케 알어? 몰러!!

사내2 이거 불법 체포여. 당장 고소할 것이랑게.

서준 최대한 빨리 기억해 내는 게 좋을 거야.

사내2 째새가 뭘 말이 많아. 니미.. 법대로 혀.

서준 법은 무슨~ 서청에게 넘길 건데.

사내1 ..서..청.. 서북.. 청년단??!!

오형사 (서준 말에 시계 보며) 올 때 됐는데...

서준 서청 도착하면 그땐 우리도 어떻게 못해. 개네들 알잖아?

사내1,2 (움찔) !!

서준 애들한테까지 약 판 것 알면 니들 가족부터 벗길 거야.

사내1 씨발.. 근다고 쫄 줄 알어?! 어디서 야부리를 틀어.

사내2 (몸이 떨리며) .. 안 되는데... 서청은 악마 새끼들인디..

서준 (사내2 앞에 사진 들이밀며) 이항수 뒷배를 대!! 누구야?!!

사내2 ..그.. 그제.. 말이여...

사내1 그놈의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랑게!! 뒤지고 싶지 않으면.

서준 할 수 없지. (오형사에게) 서청에게 넘겨요.

오형사 니들 전차 학살 사건 알제? 서청이 빨갱이 짓이라고 이를 갈던데..

사내2 잠...잠깐만... 서청은... 절대 안 된당께!! .. 다 말할게.. 서청은 제발..

사내1 (이항수 사진을 탁 치며) 지금 당을 배신하는 기야?!

사진이 땅에 떨어지자, 웃던 서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줍는데,
순간 ‘탁앙!’ 소리와 함께 사내2 머리에서 붉은 피가 튈다.
놀란 서준과 오형사, 급히 몸을 낮추고,
머리가 박살이 난 채 쓰러진 사내2를 보더니 미친 듯이 도망치는 사내1.

‘타앙!’ 달려 나가던 사내1 가슴에 붉은 피가 솟구치고.
놀란 오형사, 권총을 꺼내더니 몸을 바짝 숙여 주위를 두리번거거린다.

오형사 뭐라예?!

서준 (주위 살피며) .. 저격수요!!

오형사 저격수예? 어대예?!

‘탕!!’ 주위를 살피는 오형사 얼굴 옆에 총탄이 튕다.
놀라 고개 쳐박는 오형사.

서준 (총구로 건너편 빌딩을 가리키며) 저기 2층!! 여기 꼼짝 마세요.

- 저격 총 망원경 시야에 은폐물 뒤에 숨은 서준 머리가 들어온다.
방아쇠를 당기는데, 아슬아슬하게 은폐물에 다시 가려지는 서준.
다시 망원경 시야가 이동하면, 바닥에 쓰러져 바둥거리는 사내1를 노리는 총구!!

- 쓰러진 사내1에게 다가가는 서준, 혈떡이는 사내1을 은폐물 뒤로 끌고 간다.

서준 (사내1를 살피며) 이황수!! 뒷배가 누구야??!!

사내1 (피를 울퉁이며) 쿨럭.. 쿨럭.. 니들도.. 죽을 거야. 씨발...

서준 누구냐니까? 그 새끼??!!

사내1 .. 쿨럭.. .. 그 새끼가.. 다 해 쳐먹어... 그 새끼는...

‘타앙!’ 서준 얼굴에 피가 확 튕다.
보면, 사내1 머리가 붉은 피와 함께 반이 날아가버렸다.
시뻘건 피를 뒤집어쓴 서준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오형사.

오형사 ..과..장님예?!!

서준 (손들며 괜찮다는 신호 보낸다) !!

오형사 .. 어떤 일이 벌어져도 꼼짝마이소. 무조건!! 바짝 옆드리라고!!!

‘타앙!’ 오형사 얼굴 바로 옆에 박히는 탄환!!
기겁하는 오형사, 몸을 더 바짝 옆드리고,
‘타앙!’ ‘타앙!!’ 몸을 숨긴 오형사에게 더 가까워지는 총탄!!
이제 몸 숨길 곳도 없이 저격 포인트에 노출된 오형사, 어쩔 줄 몰라하는데...
오형사를 지켜보던 서준, 권총을 쥐고 튀어 나간다.
‘타앙!’ ‘타앙!’ ‘타앙!’ 지그재그로 저격 포인트를 빗겨가며 이 악물고 달리는 서준!!

54. 빌딩 계단/옥상 - 밤

‘광!!’ 옥상 문을 박차고 튀어 들어오는 서준.

총구를 겨누고 주위를 살피지만, 저격수가 있던 곳에는 빈 탄피만 남아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 들리고, 재빨리 총구를 겨누는 서준!!

오형사 저...저라예!! .. 쏘지 마이소!!

총을 쏜 채 뛰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는 서준과 오형사, 땀과 흠먼지로 만신창이다.

땅에 떨어진 탄피를 확인하는 서준,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데...

오형사 마약 조직끼리 전쟁이라도 터진거라예? 도대체 무슨 난리라예?

서준 (탄피를 유심히 살피며) 7.62미리 모신 나강탄.

 마약 조직은 이 탄환 절대 못 구해요.

오형사 마약 조직 아이면 뭘데예?

서준 모르죠. 아직...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놈이 노린 건.. 우리였어요. 분명히!!

55. 출판사 - 밤

책보다 자루 더미가 쌓여있는 출판사.

테이블 위에는 수북히 쌓인 지폐를 자루에 넣느라 분주한 직원들이 보이고

자루를 쌓아 올리는 직원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들 중에 얼굴이 굳은 채 자루에 지폐를 넣던 조직1, 한숨 쉬다 주변을 정리한다.

조직2 벌써 가게?

조직1 (대꾸없이 물건을 정리한다) ..

조직3 오늘 저녁 회식 있잖아. 소고기 ㅋㅋ

조직4 이런 날도 다 오네요. 지원금 끊겨 밥 굶는 날이 허다했는데..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답니다~

조직1 (가방 닫으며) 배부르겠네. 애들한테 약 판 돈으로.

조직들 (서로 눈치 본다) ..

조직1 니들이나 많이 먹어. 그 고기 목에 안 넘어가니까.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검은 뿔테를 쓴 박현수(42)와 사내들.

박현수 (미소) 동무는 참 곧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지.

조직2 박동지 변한 건 알긴 아나요?
 박현수 세상 변하는 데.. 사람도 변해야지 않겠소?
 조직2 우리 임무는요?!
 박현수 똑똑히 기억하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계급 없는 평등 사회!!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소.
 조직2 북에서 내려오던 혁명 지원금은 끊겼고 동지들도 사찰이나 서청에게 잡혀갔죠.
 박현수 고난의 시간을 이겨냅시다. 그럼 꿈꾸던 세상이 곧 올 것이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불가피하오.
 조직2 애들한테 약 파는 게 대를 위한 거요?
 박현수 남한 괴뢰정부의 압제를 벗어나기 전까지 어쩔 수 없소.
 무엇보다 당이 결정한 일이고.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되오.
 조직2 애들한테 마약 팔라는 문구는 당 규약 어디에도 없어.
 만약 당이 그렇게 명령했다면, 난 빠지겠어.
 박현수 (어쩔 수 없는 듯 미소) 좋소. 동무의 신념을 지지하오. 원하네로 하시오.

박현수 동의에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가는 조직2.
 지켜보던 조직원들 눈빛이 흔들린다.
 그때 ‘탕!’ 소리와 함께 조직2가 휘청되더니 꼬꾸라진다.
 조직원들, 눈이 확 커진다.
 피를 쏟으며 부들부들 떠는 조직2,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껌뻑이고.

박현수 (총을 든 채) 동무의 헌신은 나와 당이 기억할 것이요. 그동안 수고 많았소.
 조직2 ..이럴 순.. 없어.. 안 돼..

무표정한 얼굴로 조직2 머리를 권총으로 날려버리는 박현수.

56. 아귀 은신처 - 밤

투명한 가루를 종이에 소분하고 있는 사내들, 아귀가 매서운 눈으로 작업을 지켜본다.
 그때, 박현수가 돈자루를 든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아귀, 턱으로 지시하자, 돈자루를 건네받는 아귀 부하들이 돈을 확인한다.

아귀 우리 박사장.. 책만 끼고 산 줄 알았는데 장사 수완이 일등이야~
 이러다 서울을 다 먹갔어~
 박현수 물건은?
 아귀 주문 양을 다 소화하갔어? 반품 없는 건 알지 않니?
 박현수 날짜나 지켜.

아귀 쪼매만 더 기다려라. 전부 내 손에 들어올 거니다
 다른 약들도 우수한 게 많은디 왜 구태여 그거만..
박현수 난!! 토라만 원해!!
아귀 기래.. 토라.. 고거이만큼 날래고 강력한 게 없다.
 한번 맛보면 절대 못 벗어나지비. 니들 공산주의처럼 말이다.
박현수 당을... 비판하는 건가?!

현수 말에 뒤에 있던 조직원들이 눈빛이 싸늘해지고.
얼굴을 찡그리는 아귀, 부하들이 출구를 막는다.

아귀 하하하!! 무슨 소릴 하니? 그 당이 내 최고 손님 아이가. 평등 세상!!
박현수 시간 지켜.
아귀 걱정 말고 몸이나 단단히 풀어 두라우~

아귀가 고개 끄덕이자, 출구를 열어주는 부하들.
아귀를 쏘아보던 박현수, 조직원들과 나간다.

아귀 세상에서 제일 미친 게 돈 맛 안 빨갱이라더만.. ㅋㅋ..
 조만간 불맛을 지대로 볼게야. .. 종간나 빨갱이 새끼!!

57. 술집 - 밤

사람들로 부쩍이는 유흥가.
다른 술집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힌 술집이 보인다

그 술집 테이블 위에는 마약이 널려있고, 지폐 더미를 나무 상자에 담은 조직원들.
옆에 지폐로 가득 찬 나무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있다.

그때 문 열리고, ‘드르륵!!!’여러 개의 총구가 불을 뿜는다.
맹렬한 총격을 받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돈을 세던 조직원들.
총탄 세례에 시뵈건 피와 함께 마약과 지폐가 흩날린다.

58. 중부서 특별수사본부 - 밤

한밤중임에도 여기저기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제보 전화와 수사 자료들을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형사들.

그때 '덜컹-' 중부서 문 열리고, 몰골이 엉망인 서준과 오형사가 들어온다.
형사들이 쳐다보지만, 이내 각자 하던 일에 바쁘다.
힘 빠진 채 자기 자리로 향하는 서준과 오형사.

재영 바쁘네?
서준 (대답 대신 고개 숙인다) ..
재영 그래도 사수 물건은 챙겨야지.
서준 (아차 싶다) ..
재영 가족에게 잘 전해드려.

59. 중부서 수사과 - 밤

텅 빈 수사과 사무실.
서준은 책상 위에 놓인 박스를 바라본다.
박스를 열자 지석의 경찰청 발령서, 손때 묻은 필기구, 최근까지 수사해 오던 파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다.
무거운 맘으로 수사 파일을 넘겨보는 서준.
지석의 정자체로 기록한 수사기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호주머니에서 피 묻은 쪽지를 꺼내 펼쳐보는 서준.
“TIGER HUNT”

서준 (쪽지를 바라보며) ..월까..이게..

지석의 물건을 다시 살펴봐도 “TIGER HUNT”와 연관되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서준.
한숨을 내쉬고, 마지막으로 지석의 가족사진을 박스에 조심스럽게 넣은 뒤 일어선다.

60. 합동 장례식장 - 밤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차 학살 장례식장.
검은 양복의 서준, 지석의 유품이 담긴 박스를 안고 입구에서 망설인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경찰들이 뒤를 돌아보며 불만을 터트린다.

경찰1 낮가죽도 두껍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한경정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만..
경찰2 (목소리 낮추며) 들을라!! 저 새끼들한테 엮이는 순간.. 바로 골로 간다니까.
경찰1 언젠가 곧 떨어지는 날 있을 거야. 뼈를 발라 버릴거다. 개자식들.

경찰들이 지나가자 박스를 들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서준.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오는 무리들, 성욱과 특경대들이다.
서준과 발견한 성욱, 고개짓하자 먼저 나가는 특경대원들.

성욱 자주 보네. 우연치곤 말이야~
서준 우연이 여러 번이면 뭔가 있는 거라잖아.
성욱 이러다 정드는 거 아냐?
서준 설마. 특위도 곧 끝나잖아. 죽을 놈하곤 정드는 거 아니지.
성욱 (어깨 으쓱) ..
서준 특위 끝나면 볼 만할 거야. 여기저기 저지른 죄가 많을테니까~
성욱 내 팔자가 그렇대. 누구한테 칭찬받는 일 못하거든~
서준 조만간 얼굴 보게 될 거야. 그땐 내가 책임지고 상대 해줄게~
성욱 나야 좋지. 그 약속 꼭 지켜~ (지나가다 멈추며) 이춘수가 자네 부친이지?
서준 (움찔) !!
성욱 한지석에게 들었어~ ,, 편히 계시려나?

웃으며 서준을 지나치는 성욱,
서준, 사라지는 성욱을 쏘아본다.

61. 장례식장 안 - 밤

지석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놓여진 빈소.
그 앞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장난친다.
넋이 나간 지석 아내에게 지석의 유품 상자를 전해주는 서준.

지석아내 본청 가면 애들이랑 여행가자고 했는데.., 다 틀려버렸네요..
서준 .. 죄송합니다..
지석아내 워낙 바쁜 몸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봉급이라 기대도 안했거든요.
 근데... 어제 침으로 레스토랑에서 제 생일도 미리 챙겨주고 선물까지 줬어요.
서준 (침통하다) !!
지석아내 이런 말 하면 정신 나간 년처럼 들리겠지만.. 꼭 이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서준 ..네??!!
지석아내 특위 조사 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룬 날이 없었어요.
 늦은 밤에 나가 새벽에 들어온 적도 많았구요.
서준 (멈칫) ..혹시.. 무슨 이야기라도..
지석아내 (고개 저으며) 하지만 분명한 건.., 만나는 사람 있었어요.
서준 ..그게 무슨.. (지석 아내를 살피며) .. 혹시 누구인지...
지석아내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통금도 지난 새벽에 누굴 만났는지,

밤새 누구랑 무슨 짓을 했는지..

서준 ??!!

지석아내 (눈물 주르륵) 여자로서, 아내로서.. 자존심이 뭐고 다 팽개치고..
 그때 못 나가게 붙잡을 걸.. 죽도록 후회돼요. (뭔가 꺼내 전해주며)
 애 아빠 옷 세탁하다 나온 거예요.

서준 (물건을 받고 놀란다) !!

지석아내 (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남편이.. 애 아빠가.. 누굴? 왜 만났는지??
 알아봐 주세요. 꼭요!!

서준 손에는 붉은 성냥갑에 금박으로 찍힌 ‘럭키구락부’가 반짝거린다.

62. 유흥가 - 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를 걸어가는 서준.
 붉은 성냥갑을 꺼내 이름을 확인하는데, 서준 위로 ‘럭키 구락부’가 보인다.
 그때 사람들 발걸음이 빨라지고, 네온사인들도 하나 둘 꺼진다.
 동시에 ‘애~앵!!’ 울려 퍼지는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거리를 통제하고,
 순식간에 한적해지는 유흥가 거리.
 시계를 보자 12시가 막 넘었다.
 인적이 사라진 유흥가 거리에서 불 꺼진 ‘럭키 구락부’ 간판을 올려다보는 서준.

63. 럭키 구락부 입구 - 새벽

인적이 끊긴 밖과 달리 사람들로 부쩍이는 럭키 구락부.
 자욱한 담배 연기와 빠른 댄스 선율, 웃음 소리가 가득하다.
 주위를 둘러보는 서준, 테이블 곳곳에는 정장 남자들이 화려하게 꾸민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고, 외국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나눠 피는 사람들도 보인다.
 곧, 서준을 에워 쌓는 검은 양복들.
 서준,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고.
 하지만 경찰 신분증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싸늘한 검은 양복들.
 그때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박지웅이 웃으며 다가온다.

지웅 중부서에서 오셨다구요~

서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웅 그럼 잘못 오셨네요. 여긴 경찰이 찾는 분은 없습니다.

서준 ..??

지웅 (손으로 가리키며) 저 자리에서 경찰청장님이 의원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나가셨고,
법무부 장관님 자제분께서는 군헌병대 대장님이랑 생일파티를 하고 계시죠.
(미소) 뭐.. 용돈이 필요하면, 중부서장에게 보내겠습니다~

지웅이 눈짓하자 서준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내는 검은 양복들.

서준이 버텨보지만, 경찰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완력에 떠밀려 나가는데,

(소리) 그 경찰 오빠 맞지?!

64. 렉키 구락부 안 - 새벽

서준과 술 마시며 웃고 있는 여자1,2.

중부서에서 미군들에게서 구해준 여자들이다.

여자1 밖에서 보니까.. 더 멋있어~

여자2 (여자1을 보며) 그날 이후로 얼마나 목매었는지 몰라요~ 중부서 찾아간다고~~
.. 근데.. 찾는 사람 있다면서요?

여자1 누구? 혹시.. 오빠 여자 친구?? 히잉.. 그러면 안 되는데~

서준 (사진 보여주며) 본 적 있어?

여자1 (사진 보며) 이 오빠도 잘 생겼네. .. 누군데?

여자2 (사진 뺏으며) 어디 봐봐. .. 아... 이 사람~

서준 아는 얼굴이야?!

여자1 우리 가게 손님? 못 봤었는데..

여자2 당연하지. 손님 아니니까.

여자1 ..그럼? .. 아하~~ 우리 식구랑 썸썸?

여자2 (술 마시며 웃더니 고개 끄덕인다) ..

여자1 누구? 지애? 선미?

여자2 (고개 흔들며) 상상도 못 할 걸?

여자1 누구? .. 설마.. 우리 여주인공??!! 말도 안 돼.

여자2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다니까.

여자1 그 얼음 공주께서?!!

서준1 (눈빛이 번득) ..어딤어? 그 여자??

그때 불이 꺼지고, 어두운 무대 위에서 피아노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나룻한 여자 목소리.

여자2 드디어 등장하셨네.

여자1 에휴.. 남자들 침 넘어가는 소리 또 원없이 들겠다~

어두운 무대가 서서히 밝아지면,
검은 원피스를 입고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읊조리는 지인(29).
그 노래 소리에 지금까지의 대화도, 웃음 소리도 사라지고 다들 숨죽여 지켜본다.
지인의 노래 소리를 들며 눈이 점점 커지는 서준.

- 전차 정류장에서 지석이 애써 설득하려던 여자.
- 영화관 앞에서 우산을 퍼느라 깁깁대는 서준을 보며 미소 짓던 여자.

노래 부르는 지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서준, ‘럭키 구락부’ 성냥갑을 만지작 거린다.

65. 럭키 구락부 뒷골목 - 새벽

불이 꺼진 구락부 뒷문, 문이 열리자 나오는 지인.
그 앞에서 지인을 기다리던 서준, 다가가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서준 할 얘기가 있어.
지인 (멈추지 말고 지나친다)
서준 이 사람 알지?
지인 (계속 걸어간다) ..
서준 .. 선배랑 같이 있는 걸 봤어!!
지인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간다) ..
서준 (지인 팔 잡으며) 선배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왜 만났냐구?!
지인 (잡은 서준 팔을 확 뿌리치며) 네 따위가 뭘 안다고?!!

지인의 분노에 멈칫하는 서준.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오던 자동차, 서준 앞에 멈추고.
차에서 누군가 내리지만, 강렬한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누군가, 서준이 뭐라하려고 하는데..
서준 배에 꽂히는 한 방!! ‘헉!!’ 주저앉고,
서준, 올려다보면, 특경대 대장 성욱이다.

구락부 뒷문으로 나오는 지인.
그 앞에서 지인을 기다리던 서준, 다가가 지석 사진을 보여준다.

서준 (따라가며) 이 사람 알지?

지인 (사진 보지도 않고 간다) ..
서준 (막으며) 같이 있는 걸 봤어!!
지인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간다) ..
서준 (지인 팔을 잡으며) 선배에게 무슨 짓 한 거야? 왜 만났냐구?!
지인 (서준 팔을 확 뿌리치며) 네 따위가 뭘 안다고?!

지인의 분노에 멍청하는 서준.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오던 자동차, 서준 앞에 멈추고.
차에서 누군가 내리지만, 강렬한 불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
서준에게 다가오는 누군가, 서준 배에 그대로 꽂히는 한 방!!
‘헉!!’ 주저앉는 서준,
올려다보면 무표정한 성욱이다.

성욱 (서준을 내려다보며) 여기까지야. 선 넘으려면 목숨을 걸어.

저항하는 지인을 끌고 뒷차에 태우는 성욱,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는데,
이 악물며 일어서는 서준, 바닥에 떨어진 ‘럭키 구락부’ 성냥갑을 움켜쥐다.

66. 중부서 - 새벽

‘꽝!!’ 중부서 문이 열리고.
옷이 엉망이 된 채 들어오는 서준,
특별수사본부에 붙은 현장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사진을 보며 점점 커지는 서준의 눈!!

67. 서준 집 - 새벽

테이블 위에 서울 전차 노선도가 보이고,
그 밑에 토라 기술자 이황수 사진이 놓여져 있다.
사진 속에는 이황수와 은밀하게 얘기하는 사내 뒷모습이 보이고,
확대경으로 사진을 확인하는 서준, 뒷모습 사내 얼굴이 사진 속 유리창에 드러난다.

서준 (입술을 깨물며) ..선..배??

이황수 사진 속에 있던 뒷 모습 사내는, 서준 선배 지석이다.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펼치는 서준.

‘토라(とら)’가 적힌 반도 호텔 냅킨과 피 묻은 쪽지 ‘TIGER HUNT’를 내려놓는 서준,
놓여진 쪽지를 뚫어지게 보더니 사진들을 배치하고.

개성방직 홍사장과 감독 박인규, 그리고 지식 사진이다.

서준 .. 분명 뭔가 있어.

사진들을 재배치하는 서준, 서울 전차 노선도와 비교하는데,
전차 학살이 벌어진 전차가 멈춘 정거장 다음이 바로 반민특위다.
멈춰 선 전차 사진 너머로 언뜻 보이는 반민특위 건물.

서준 (눈이 흔들리며) .. 설마.. 특위가??

그때 집 밖에서 인기척 들리고, 재빠르게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푸는 서준.
권총을 짊어지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검은 실루엣이 창가에 얼른거린다.
총을 짊어진 채 이를 악다문 서준, 와락 문을 열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소리) 팬찮은 거지?

68. 서준 집 - 새벽

걱정스러운 얼굴로 얼굴이 무거워진 서준을 바라보는 앨리스.

서준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긴 어떤 일이야?)

앨리스 전차 사건 현장에 있었다며? 어떻게 된거야?

서준 If I had gotten on one stop earlier, I wouldn't be here. .

(한 정거장 더 앞에 탔었다면 나도 이 자리에 없었겠지.)

앨리스 누구 짓인 것 같아? 미 방첩대는 마약 조직간의 분쟁이라는 말도 있고,
미대사관 쪽에서는 사회불만을 품은 자들의 테러라는 정보도 있어.

서준 I don't know. I'll have to investigate further. .. maybe...

(모르겠어.. 수사를 더 해 봐야지. .. 혹시...)

앨리스 (서준을 쳐다본다) ..??

서준 Have you ever heard of tiger hunting?

(들어 본 적 있어? .. 호랑이 사냥??)

앨리스 (멈칫) ..Tiger hunting? .. 호랑이 사냥?? 아니.. 그게 뭔데??

서준 (앨리스를 보며) .. I don't know yet. (나도 아직 몰라.)

아무 말 않고 생각에 잠기는 서준.

앨리스도 무슨 말을 하려다 이전과 달리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서준 If you hear anything about "Tiger Hunt," will you contact me?

It's a secret to others. Never!! You can promise, right?

(혹시라도..., '호랑이 사냥'과 관련된 얘기 들으면 연락 줄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야. 절대로!! 약속할 수 있지?)

앨리스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전해달래. .. 할아버지가.

보면, 서준의 대한민국 여권이다.

앨리스 가능한 우릴 빨리 떠나게 하고 싶나 봐. 미국 유학 가고 싶어했잖아. .. 넌 어때??

여권을 넘겨보는 서준의 눈빛이 흔들린다.

69. 2층 양옥 저택 - 새벽

짙은 새벽 안개가 자욱한 2층 양옥 저택.

넒직한 정원에서 초로의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나무를 손질하고 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정성스레 잔가지를 다듬는 손길.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고,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소리) 유남.. 김·석·호!

돌아보면, 중절모를 쓴 민수(45), 한쪽 뺨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다.

석호 (두려움) ..누..구..?!

민수 (무표정) 가네모토 쇼! 조선총독부 전매국 부국장!

석호 (흠칫 놀라며) ...이봐.. 오해가 있나 본데.. 난...

‘숙! 숙!’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석호.

민수, 바둥거리는 석호에게 다가가 소음기 단 총구를 겨누는데...

석호 (죽음을 받아들이는 듯 체념하며) .. 이게 아닌데.. .. 이게.., 아닌데...

민수 (눈빛이 번득이며) ..반민족친일자.. 처형!!

‘숙!!’ 고개가 뒤로 제껴지는 김석호.

70. 대학 연구소 - 아침

대학 연구소, 아침이라 인적이 없다.

주위를 살피며 복도를 걸어가던 40대 남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간다.

커튼이 질게 쳐진 연구실 안에는 침묵과 함께 담배 연기가 무겁게 떠돈다.

불안한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중년 남자들.

회원1 (침통) 결국.. 유남까지 당했습니다.

회원2 (목소리 떨리며) 사냥개가 바로 코 앞이에요.

회원3 (파이프 담배를 끄며) 그래서 말인데..

조용해질 때까지 사태를 지켜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회원1 그런다고 놈들이 멈출까요?

회원3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자는 겁니까?!

유남이 입 무거운 건 알지만, 우릴 지켜줬을까 싶습니다.

회원1 지금!! .. 유남을 못 믿겠다는 거요?

회원2 포기할 놈들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얼굴이 더 어두워지는 회원들.

말없이 듣기만 하던 회원4,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쳐진 커튼을 열고 창 너머를 바라본다.

회원4를 보며 긴장하는 중년 남자들.

회원4 (씹쓸한 웃음) 더 이상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 그렇지만 실수를 반복하기는 싫군요.

회원3 그럼 어떻게 하실.. ??

회원4 기다려야죠. 최종 결정을.

회원2 그 전에 죽을 수 있어요.

회원4 (씹쓸하게 웃으며) 늦지 않길 바라야죠. .. 이 전쟁.. 길지 않을 겁니다.

회원들 (다들 굳은 얼굴로 침묵한다) ..

회원4 (비장) 후회 없습니다. 부디..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거운 눈빛을 주고받고 연구실을 나가는 중년 남자들.

연구실에 혼자 남은 회원4,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손이 점점 떨려온다.

71. 반민특위 앞 도로 - 오전

총을 멘 경찰이 위압적인 특위 문 앞에서 삼엄하게 주위를 경계하고 있다.
건너편 도로 자동차 안에서 반민특위 청사를 지켜보는 서준.
그때 오형사가 자동차 안으로 후다닥 들어온다.

오형사 (가슴을 쓸어내리며) 수명 10년은 줄었다카이!!
서준 (손 내민다) ..
오형사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꺼내며) 친구에 사촌에 외가까지 팔아서 구한 거라예.
특위 피의자 명단은 또 뭐할라꼬예?? 안 그래도 절마들 독이 바짝 올라있구만.

체포한 특위 피의자 명단을 확인하는 서준.
명단 안에는 개성방직 홍대표, 자동차에서 암살당한 박인규, 전차에서 학살된 지식 이름도 보인다.

서준 (명단을 넘겨보며) 알아보신 거는요?
오형사 아무래도 실수하는 것 같은데...
서준 (대꾸없이 명단을 확인한다) ..
오형사 (할 수 없이 수첩 꺼내며) 이름 고성옥. 42세. 특위 무장세력 특경대 부대장.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부친 때문에 가족들 몰살. ..에헤.. 참.. 이후에 중국 공산
당과 연합해서 무장 투쟁하다 일경에게 체포. 고문으로 오른쪽 눈 실명. ... 아이구야..
살벌한 이유가 있었네, 특위 안에서도 초강경파라 불만이 많다네예.
특히 경교장이랑 친해서 특위 위원장도 눈치 본답니더.
서준 ..경교장이라면..
오형사 (두려움) 백범.. 김구요.. 그러니 눈길도 주지 마이소. 안 엮이는 게 상책이라카이.

그때 특위 청사에서 성옥과 특경대가 급히 나오더니 짚차를 타고 빠르게 사라진다.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는 서준 자동차.

72. 2층 양옥 저택 앞 - 오전

양옥식 2층 저택 앞에 검은 짚차와 경찰차가 서 있다.
저택으로 다가가는 서준과 오형사.
문 앞에 특경대들과 형사들이 대기 중이다.

형사1 (경찰 신분증을 바닥에 내던지며) 니미.. 때려치든지 해야지.. 쪽팔려서!!
오형사 ..와?!
형사2 살인사건 터졌는데.., 나가란다. 명색이 우리가 경찰인데.. 씨발..

형사들의 불만에도 눈 하나 꿈쩍않는 특경대들.
서준이 들어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는다.

서준 비켜!!
특경1 아직 모르나 봐? 수사 우선권은 반민특위에게 있어.
서준 (밀치며) 비키라니까!!
특경2 (거세게 밀치며) 꺼지라니까.
서준 (확 뿌리치며) 그 손 안 치워?!!
특경1 (총을 꺼내며) 마지막 경고다. 물러서지 않으면 특위에 대한 적대행위로 발포한다!!
서준 (총 꺼내며) 형법 115조!! 살인 현장을 오염시킨 증거인멸죄로 체포한다. 총 내려!!

서로 총을 겨눈 서준과 특경1.
놀란 오형사가 서준을 말리고, 주변 형사들도 서준의 강경자세에 눈치 본다.
안전 장치를 푸는 특경1과 맞대응하는 서준!!

(소리) 들어오라고 해!!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서준을 쏘아보다 총을 내리는 특경대들.

73. 2층 양옥 저택 -오후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서준.
정원 벤치에는 머리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있는 유석호가 보인다.

성욱 소란 피우는 것 보니까.. 맞은데는 괜찮나 봐? 명치 쪽이 좀 오래가거든~
서준 이자까지 청구할 테니까 기다려.
성욱 .. 뭐.. 우리가 지난 얘기 한가롭게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사망한 유석호를 가리키며) 살인 현장 운운하던데.. 실력 구경 할까?

성욱을 쏘아보더니 유석호의 사체와 주위를 예리하게 살피는 서준.
땅에 떨어진 탄피를 손수건으로 줍고, 그런 서준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성욱.

서준 (탄피 확인하며) 살인 도구는.. 소련제 자동권총 TT-33.
 ‘떼떼’ 권총으로도 불리고 빨갱이들이 즐겨 사용해.
성욱 (씨익 웃는다) ..
서준 (사체를 확인하며) 가슴에 두 방, 머리 한 방, 소련 정보국 체카식 처형방식.
성욱 (어깨 으쓱) 계속 해봐~

서준 사체에 화약 자국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면식범이거나 우호적인 관계였어.
저항이 없었으니까.

성욱 (피식) 일제강점기 때 담배, 소금, 인삼, 마약까지 관장했던 조선 총독부
전매국 부국장 유석호야. 특히 마약을 대량 생산해 한반도와 중국 전역에 뿌릴
총독부의 계획을 주도 했지.

서준 그렇다고 이딴 식으로 처형은 아니지.

성욱 그럴 이유가 있지 않을까? .. 너 보기엔 뭘 것 같아?

서준 당신과 떨거지들이 꺼져주면.. 더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욱 그러고 싶는데.. 알다시피 수사우선권이 있어서 말이야.

서준 당연하겠지. 특위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살해됐으니까. 그것도 연속적으로.

성욱 (어깨 으쓱하더니 미소) ..

서준 골치 썩겠어. 특위에서 조사받던 피의자들이 사망한 게 한둘이 아니니까.
게다가 토라 기술자 이항수까지 노리고 있었잖아.

성욱 .. 궁금하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서준 왜.. 나까지 처리해 버리게?

성욱 그럴 감상은 또 아니지~

서준 (살기 어린 미소)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세상이 조용해질까?

성욱 나 역시 궁금해. (구두로 담배를 끄며) 그리고... 담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찾아와. 쥐새끼처럼 여기저기 헤집지 말고~

쏘아보는 서준을 지나치는 성욱, 얼굴에 살기가 흐른다.

74. 병실 - 저녁

병실 복도에서 의사 설명을 듣고 있는 얼굴이 무거운 성욱.
의사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인사하고 서둘러 사라진다.

병실로 들어가면, 침대 위에 병색 완연한 여자가 누워있다.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여자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성욱.
그때 눈을 뜨더니 성욱을 보자 애써 웃는 여자.

성욱아내 언제 왔어요? 깨우지.. 저녁은요??

성욱 먹었어.

성욱아내 .. 당신 밥도 못 챙겨주고.. 콜록! 콜록!! ..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네요.

성욱 (아내 이마를 쓸며) 좋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다음 달에 퇴원할 수 있다네.

성욱아내 (성욱을 보다 방긋) 당연하죠~ 당신 없이도 잘 버텸는데.. 콜록! 콜록!!
.. 휴우... 애들이 걱정이네요.

성욱 약속했지. 우리 가족 다시는 고생 안 시키겠다고.

성욱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성욱아내, 가냘픈 손으로 성욱의 거친 손을 잡는다.

성욱아내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당신 만난 것도 내 팔자.
 나 이런 것도 내 팔자. .. 하나 아쉬운 건.. 살 만한 세상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이 모양이라 미안할 따름이에요. .. 콜록! 콜록!!

성욱 (아내 손 잡으며) .. 다 나올거야.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니까.

성욱아내 (빙긔 웃으며) 당신... 재능 없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

성욱 (움찔한다) !!

성욱아내 (성욱 얼굴 만지며) 제 몸은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저보러 올 시간에
 우리 애들 챙겨주세요. 애들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지는 않네요.
 (성욱 손 잡으며) .. 약속할 수 있죠?

아내를 바라보던 성욱의 한쪽 눈이 더 흔들거린다.

75. 저택 - 밤

달빛이 비치는 고풍스러운 저택.

문이 열리고 안경 낀 60대 남자가 성욱을 배웅해주고 들어간다.

성욱 손에 들려져 있는 누런 종이 봉투.

문 앞 등 밑에서 봉투 안 서류를 확인하는 성욱.

종이 위로 줄지어 적힌 이름들이 보이고, 그 앞에 점들이 각각 찍혀있다.

명단 위에 적힌 글씨가 불빛에 언뜻 드러나는데..., “虎獵(호랑이 사냥)”

명단을 봉투에 넣는 성욱, 얼굴에 서늘함이 흐른다.

76. 낡은 여관 앞 - 밤

어둡고 황량한 골목 끝에 낡은 여관이 보이고 고급 세단이 서 있다.

그 여관과 어울리지 않게 잘 차려입은 지웅과 회색 정장 사내들이 나오고.

여관 앞에 세워둔 고급 세단에 올라타더니 빠르게 사라진다.

77. 낡은 여관 방 - 밤

불빛조차 들지 않는 어둡고 음산한 방.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려 있는 민수, 이전의 번득이는 눈빛은 사라지고 켄한 눈빛이다.

바닥엔 마약 병과 주사기가 널려있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사진 한 장.

일장기를 들고 학생들 앞에서 학도병 지원 연설을 하는 풍채 좋은 남자 사진이다.

민수 (사진을 보며 주문을 외우듯) .. 심광수. .. 아오키 미쓰로. ... 처형!!

78. 서준 집 - 밤

새로 나온 여권과 피 묻은 'Tiger Hunt' 쪽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서준.

응접실 서랍에 보관해 둔 물건을 꺼내더니 밖으로 나간다.

79. 럭키 구락부 뒷문 - 밤

인적이 드문 럭키구락부 뒷문으로 들어가는 지인.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내들, 박현수 조직원들이다.

급히 반대편으로 향하는 지인, 이내 사내들 손에 잡힌다.

조직2 (지인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물건 값은 내고 가야지~

조직3 요즘 통 안 보이던만.., 그 약쟁이.. 똥진 것 아냐?

조직4 무슨 큰일 날 소리~~ 똥지더라도 계산은 정확해야지~ ㅋㅋ

지인 (지갑 다시 뺏는다) !!

조직2 (이번엔 지인 목걸이를 빼가며) 네 몸똥아리라도 온전히 간수하려면.. 알지?

지인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버리겠다?

조직3 (지인을 벽에 밀치며) 그럼 그딴 짓 벌리지 말았어야지.

경찰에, 서청까지.., 돌아버릴 지경이야.

지인 니들이 약 팔았으니까. 보급 투쟁 좋아하시네. 약으로 평등한 세상 만들 거야?!

조직2 자본주의 개들이랑 붙어먹다 보니까.. 똥는 게 없지?

지인 어찌나. 덕분에 니들 삽질이 더 또렷히 보이는데.

조직3 이 에미나이가...

‘짜!’ 조직 3, 지인 뺨을 후리치고.

지인, 곧바로 조직3에게 주먹을 날린다.

‘퍽!!’ 코에 피가 주룩 흐르는 조직3, 그 모습에 다른 조직원들이 키득거리고.

눈이 희번덕거린 채 칼을 꺼내 지인 뺨에 갖다대는 조직 3.

조직3 (칼을 번득이며) 네 년 면상에 회를 쳐주지!!

순간, '탕!' 소리와 함께 조직3 칼이 날아가고, 깜짝 놀라는 조직들.

보면, 어둠 속에서 권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서준.

서준 (총 겨누고 지인 살피며) 눈 돌아가는 소리라도 나 봐. .. 머리에 구멍이 날 거야!

조직3 (지인을 살피는 서준을 보며) 씨발.. 이젠 짹새까지 저 년 뒤를 봐주니?

하긴 쪽바리 되나 빨던 개버릇이 어딜 가겠어? 안 그래?? ㅋㅋ..

지인을 살피던 서준, 조직3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권총으로 사정없이 내려친다.

'퍽! 퍽!!' 붉은 피가 튀고, 피떡으로 너절해지는 조직3.

놀란 조직원들이 다가서려고 하자, 피 묻은 총으로 겨누는 서준.

서준 약 팔고 여자까지 손대?! 빨갱이 몇 놈 싸 죽인다고 뭐라 할 사람 없어!

누가 먼저 나설래?

총을 겨누는 서준의 광기에 몸을 움츠리며 서로 눈치 보는 조직원들,

지인, 폭주하는 서준을 차갑게 쏘아본다.

80. 중부서 취조실 - 밤

취조실에 앉아 있는 지인.

문 열리고, 자료철을 들고 지인 앞에 앉는 서준.

서준 (자료 펼치며) 태어난 곳은 원산, 학교는 서울, 살던 곳은 연해주.

근데 국적은 남한. 북한도 아닌 미국.. 도대체 정체가 뭐야?!

지인 (무표정하게 벽만 응시한다) ..

서준 .. 대답 없으면 가중 처벌 받아.

지인 (냉소) 질문이 멍청한데 답이 나올까?

서준 (웃음) 아직 상황 파악 안 되나 본데..,

지인 아니!! 대한민국 경찰이 미국 시민을 불법 취조하는 중이지.

서준 .. 잊었나본데.. 빨갱이 새끼들한테서 구해준 건 나야.

지인 고마우셔라~ .. 당신 걱정이나 해.

서준 지금 특위 그 새끼 믿고 이러는 거야? .. 꿈 깨. 여긴 중부서야!!

지인 그러니까!! 더욱 못 믿지!!

지인의 날 선 대응에 얼굴이 굳어지는 서준.

서준 좋아.. 이것 하나만 말해. 보내 줄 테니까.
지인 (말없이 쳐다본다) ..
서준 지석 선배가 죽던 날.. 만났지? 왜? 도대체 무슨 관계야??
지인 질문이 잘못됐다니까.
서준 말 돌리지 마!!
지인 지석씨가 왜 죽었는지 물어봐야지!!
서준 ..뭐??!!
지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알거나 해?
서준 (멈칫) 그러니까.. 말하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인 .. 말하면.. 막을 수는 있고? 네가??
서준 (움찔) !!
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아니면 준비하던 유학을 가든지. 여길 떠나!!
서준 (지인 멱살을 와락 움켜지며) 지석 선배가 왜 죽었는지? 말해! 지금 당장!!

흥분한 서준을 바라보는 지인, 눈빛이 처연해지는데..
그때 ‘덜컹!’ 문 열리고, 재영과 정현, 미장교가 들어온다.
지인을 움켜쥔 서준 손을 거칠게 떼버리는 미장교,

미장교 Are you okay?? (문제 없어?)
지인 (일어나며) No problem. (서준 보며) .. 나가도 되지?
미장교 (재영과 정현에게) Illegal detention and interrogation of an American citizen by South Korean police!. The U.S. Embassy is sending a formal letter of protest!! (미국 시민에 대한 대한민국 경찰의 불법 연행과 취조입니다. 미대사관에서 정식으로 항의문서를 보낼 겁니다!!)

미장교의 항의에 난감해하는 재영과 얼굴이 굳은 정현.
서준은 미장교와 나가는 지인을 쏘아본다.

81. 자동차 안 - 밤

서울 시내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검은 세단, 차 앞에 성조기가 펄럭인다.
뒷좌석에는 굳은 얼굴의 지인과 미장교가 창밖을 보고 있다.

미장교 You're out of line. .. Hands off. (선 넘었어. .. 손 떼.)
지인 Don't you need more information? (정보가 더 필요하지 않아?)

미장교 (어깨 으쓱) ..
지인 Remember. I'm the only Korean in the CIC Korean office.
(명심해. 미방첩대 한국지사의 한국인은 나뿐이라는 걸.)
미장교 Sooner or later, the U.S. military will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 CIC Korean office will also be closed.
(조만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야. 미방첩대 한국지사도 폐쇄되겠지.)
지인 The damm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be the trigger
for the US-Soviet Cold War.
(한반도가 미,소 냉전의 방아쇠가 되겠네.)
미장교 CIC Japan doesn't think so...
(CIC 일본지사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던데...)
지인 The Japanese asshole were the ones who preemptively attacked
United States. They can never tell you the truth.
(일본 그 새끼들은 미국을 선제공격했던 놈들이야. 진실을 말해줄 리 없지.)

입을 삐죽거리며 웃는 미장교,

미장교 You have one month. If you don't finish the mission by then,
I can't guarantee your safety. .. “Tiger Hunt”Are you sure?
(한 달 줄게. 그때까지 마무리 못하면 네 안전은 보장못해.
.. ‘호랑이 사냥.’ 확실한 거지?)
지인 Absolutely!! It's just a matter of who pulls the trigger first.
(물론이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냐만 남았어.)

82. 중부서 경무과장실 - 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담배를 피는 재영과 서 있는 서준, 정현은 서준이 못마땅한 눈치다.

재영 다들 정신없는데.., 요즘 한가한 모양이야~
정현 거기가 어딘 줄 알아? 서장님도 함부로 출입 못 하는 곳이야.
게다가 상대는 미국 시민권자고!!
서준 이곳저곳 눈치나 보려고 경찰 된 게 아닙니다.
정현 이 새끼가 보자보자 하니까..
재영 (미소) 그래도 뭘 일 하는 지, 얘기는 해줬어야지. 우리.. 같은 식구 아냐?
서준 ..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정현 책임?! .. 관두는 거? 그만 말 하니까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서준 서지인. 그 여자.. 전차 학살과 연관 있습니다.

서준 말에 멍뚱하는 정현과 미묘한 웃음이 번지는 재영.

재영 ..증거는?
서준 (입 꼭 다물고 있다) ..
정현 너 잘난 추측 하나로 미대사관에서 항의 문서를 받게 됐는데.. 뭐? 전차 학살??
재영 가만 가만.. ..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나 본데.
서준 (긍정도 부정도 않은 채 재영을 응시한다) !!
재영 (고개 끄덕이며) 이번에 잡아 온 빨갱이들이랑 관계있다?
서준 3일이면 됩니다.
정현 이 새끼가 정말!!
재영 (손들어 제지하고 웃으며) .. 해 봐~~
서준 (고개 숙인다) ..
재영 (서늘) 대신.. 책임진다는 애같은 말 따윈 필요 없어. .. 결과를 가져와. 무조건!!

83. 서울 시내 - 밤

오래된 한옥들과 일본식 상가들, 새로 짓는 빌딩들이 뒤섞인 서울 도심을 달리는 자동차.
자동차 뒷좌석에는 긴장된 얼굴의 재영과 더 굳은 얼굴의 정현이가 보이고.
광화문을 지나 근처 숲속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순백색 미술관 앞에 멈춘다.

84. 미술관 전시실 앞 - 밤

순백 대리석으로 치장된 전시실 앞에 소총을 든 회색 정장들이 서 있다.
테이블 의자에 앉은 채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고 있는 정현과 준비한 서류철을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는 재영,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때 ‘따르릉!’ 벨소리 울리자 전화를 받는 회색1, 재영과 정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85. 미술관 전시실 - 밤

순백색 높은 천장에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전시실.
경찰 제복 남자와 군 장성 남자, 잘 차려입은 정장 장년들이 반백 노인을 보좌한 채
차와 케이크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반백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다가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재영과 정현.

군장성 청와대 지척에서 일이 터졌어. 일을 이 따위로 하나!!
 경찰제복 (반백 눈치 살피며) 그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재영 (서류철 내밀며) 계획대로입니다.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군장성 (무시하며) 우리 쪽 정보 라인은 다른 말 하던데..
 경찰 쪽 교통 정리가 안 됐다며? 그러니까 마약 조직 새끼들까지 난리지.
 이러다 대한민국이 마약 천지가 되겠어?

얼굴이 굳어지는 재영과 창백해지는 경찰 제복.
 반백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차를 마시고 정장 사내들은 반백의 심기를 살핀다.

군장성 힘에 부치면 우리가 말고. .. 군이 나서면 하루면 족할 거야. 어때?
 경찰제복 (반백 눈치보며) ..그래 주시면야 저희 경찰은 뒤에서 지원..
 재영 (한 발 나서며) 군이!! 직접 움직이면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겁니다.
 어른신께도 누가 될 수 있구요.
 경찰제복 (반백 눈치 살피며) 암요.. 무엇보다 어르신이 최우선이죠..
 군장성 (쏘아보다 웃으며) 그런 경찰이 어르신을 욕보이는 무리를 여태껏 나뉘?
 말은 누가 못 하나~
 재영 이번 가을에 큰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애비가 될 겁니다.

재영 말에 반백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주변 사람들 분위기가 누그러진다.

경찰제복 큰딸 결혼이랍니다. 설마 시집갈 딸을 웃음거리로 만들겠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하~~

시비 걸던 군 장성, 입맛을 다시고, 침묵을 지키던 반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재영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반백, 고개 숙이며 서류철을 올리는 재영.

반백 임자처럼 훌륭한 아버지와 애국자가 많아야 이 나라도 혼란스럽지 않을텐데..
 호랑이 두 마리 있는 산은 평안할 수 없어.

반백의 말에 경쟁이라도 하듯 호응하는 사람들.
 재영, 깊이 고개 숙이고, 침도 못 삼킨 채 정자세로 얼어붙은 정현.

86. 마약 조직 몽타쥬

- 어두운 한강 위에 배가 떠 있고 선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선실 안에서 마약에 취해 뒤엉켜 흐느적거리거는 남자들과 여자들.
바닥에는 돈 자루와 마약 봉투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다.
그때 선실 문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고 문이 열리는데...
‘드르르르!!!!’

빗발치는 총탄에 별집이 되는 남자들과 여자들.
선실 안에 붉은 피와 마약가루가 흩날린다.

- 달빛이 비춰지는 한적한 선로 옆 공터.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내들, 어둠 속에 담뱃불이 별갥게 빛난다
곧, 트럭 한 대가 다가와 자동차 라이트를 3번 번쩍이고.
서 있던 자동차도 라이트를 3번 응답한다.
자동차 사내들, 마약 가방을 꺼내고,
서서히 다가오는 트럭, 자동차 옆에 멈춰 서는데,
가방을 가지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사내들.
‘드르르르르!!!!’
쏟아지는 총탄 세례에 저항도 못한 채 피투성이로 나뒹구는 사내들.
트럭에서 나온 회색 정장들이 자동차 속 사내들을 확인 사살한다.
마약 가방을 챙겨든 회색 정장들, 트럭에 올라타더니 사라진다.

- 어두운 골목길
겁에 질린 채 돈가방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나오는 살집 있는 조직 보스.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다 넘어지고, 하지만 아픈 것도 잊은 채 허겁지겁 향하는데...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보스.

보스 (숨을 헐떡이며) 출발해!! .. 어떤 새끼지?!

운전수 (꿈쩍 않는다) ..

보스 (운전수를 보며) 뭐해? 빨리 안 출발하고. 어서 출발.. 허역!!

순간 보스 목에 피아노 줄 걸리고, 뒷좌석에서 괴한이 조직 보스 목을 조른다.
발악하던 조직 보스, 옆을 보자, 운전수 목이 스르르 어긋나고.
피아노 줄에 목이 잘려 나가는 조직 보스, 발버둥을 치다 잠잠해진다.
곧, 뒷좌석에서 나오는 괴한, 마약에 취해있던 눈빛이 번득이는 민수다.

87. 중부서 수사과 - 밤

붉은 럭키 구락부 성냥갑을 만지작거리며 이황수 자료를 살피는 서준, 난감해하고..

그때 오형사가 다가와 조서를 보여준다.

오형사 일마들 아주 웃긴 새끼들이라예

서준 (조서를 넘겨보다 멈칫) !!

오형사 작년 서울 전차 총파업을 주동한 놈들인데.. 서청한테 개작살났다 아입니꺼.
사망자도 몇 있다카고.

서준 최근에는요?

오형사 그게 참 이상한 게 돈 씹씹이가 장난 아니라카네예.

고기집에 양복점에 기생집까지.. 갑자기 뺑 뜰 곳이 마이 생겼나?

조서를 뚫어지게 보던 서준, 책상에서 탄창을 챙긴 뒤 나간다.

(소리) 진짜 모른다니깐요?!

88. 쥐새끼 거리 -밤

와락 벽에 밀쳐지는 네즈미, 눈앞에 피떡이 된 조직2 사진을 보여준다.

서준 (사진 들며) 근거지를 대.

네즈미 약 장사.. 종쳤다니깐요.

서준 (네즈미를 벽에 더 밀친다) !!

네즈미 켹켹!! .. 지금 마약 조직 8할이 갈려 나갔는데 누가 약을 팔아? 똥질라고..

서준 ..아귀야?

네즈미 그 새끼도 목이 간당간당 한데요.

서준 누군데 그럼..?

네즈미 몰라요. (사진 힐긋 보며) 분명한 건 세상 마약을 지 혼자 다 꿀꺽하려나 봐요.

서준 이 새끼들 맞지?

네즈미 모른다니까요?! 진짜요!!

서준 이 새끼들 정리되면 너한테도 좋잖아~

네즈미 .. 말.. 하면요?

오형사 이 새끼가.. 오데서 간을 봐?

네즈미 세상에 비밀 없거든요. 이거 알려지면 진짜 죽음 목숨이라니깐요.

서준 년 중부서가 보호하지.네 구역까지.

오형사 (서준의 거래에 놀라는 눈치다) !!

네즈미 (한 숨 쉬다 씨익) 약속한 겁니다. 助け合い(다스케아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단지 한 장을 꺼내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니깐~

89. 인쇄공장 밖 - 새벽

전단지에 적힌 상호명이 공장 간판 이름과 같다.

불 꺼진 인적이 드문 인쇄공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서준과 오형사.

오형사 세상 물정 진짜 모르시네.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썩악한데..
 책 찍는데 서 만든다 캡니꺼. 네즈미 그 새끼가 구라친거라예.
 저기서 약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더.

서준 (문을 넘어가며) 그 약속 지키세요.

오형사 (따라 들어가며) 미쳐 미쳐..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90. 인쇄공장 창고 - 새벽

짙은 어둠 속에 잠긴 창고 안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서준과 오형사.

그때 ‘철컹!!’ 어둠 속에서 총구가 번뜩이고, 놀라 보면 총을 겨눈 사찰과들이다.

‘뭐야??!!’ 입 모양으로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오형사.

대답 대신 뭔가를 들어 보이는 사찰과들. 탄창이 둥근 소련제 따발총이다!!

수신호로 서준과 오형사에게 여길 지키라며 손짓한 뒤,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찰과들.

91. 인쇄공장 안 - 새벽

불 꺼진 공장 안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긴장한 얼굴로 총을 겨누고 다가가는 사찰과들.

공장 구석 인쇄기 옆에서 마스크를 쓴 작업자들이 화학 기구와 시료로 작업 중이다.

어슴푸레한 불빛에 반짝거리는 투명한 가루!!

사찰1 (총 겨누며) 동작 그만!!

사찰2 (다가가며) 빨갱이 새끼들!! 책 대신 마약을 찍어내고 있었구나.

총을 겨눈 채 다가오는 사찰과들을 보며 당황한 마스크들, 서로 눈치만 보는데,

그때, ‘탕! 탕!!’ 사찰2 가슴에 총탄이 박히고, 총을 쏘며 다가오는 조직원들.

눈치 보던 마스크들도 총을 꺼내 사찰과에게 총탄을 퍼붓고

거센 총격 세례에 하나, 둘 쓰러지는 사찰과들, 여러 총구에 포위된 채 사선으로 물리는데,

순간, ‘드르륵드르륵!!!!’ 귀를 찢는 연발음!!

총 들고 다가서던 마스크들과 조직원들이 붉게 피범벅 되어 쓰러진다.

보면, ‘따발총’을 든 서준과 권총 든 오형사 총구가 불을 뿜고,

죽을 위기에 빠졌던 사찰과들도 마스크들과 조직들에게 총을 쏜다.

갑작스런 역공에 눈치 살피던 조직1, 마스크1, 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튀어 나간다.

92. 인쇄공장 창고 - 새벽

창고에 세워둔 트럭에 황급히 올라타는 양복1, 마스크1.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급출발하는데, 정문 앞에 서준이 서 있다.

양복1 (살기) 잡히면 뉘저. 칼아 뭉개버려!!

서준을 보며 눈을 부릅 뜬 마스크1,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고.

공장에서 나온 사찰과들과 오형사가 총을 쏘지만, 총탄을 튕겨내며 정문으로 돌진하는 트럭!

오형사 과장님에!! 퍼뜩 피하소!!

하지만 달려오는 트럭을 보던 서준, 따발총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눈빛이 차갑게 번뜩인다.

미친 듯 불을 뿜는 총구!! ‘드르륵드르륵!!!!!!!!!!!!!!’

93. 중부서 - 새벽

늦은 새벽이라 피곤에 지쳐하는 형사들.

그때 ‘덜컹!!’ 문 열리고,

수갑 찬 조직들을 끌고 들어오는 서준과 형사들, 사찰과들이 뒤편에 들어온다.

하던 일을 멈춘 채 서준을 쏘아보는 특수본 형사들과 중부서 경찰들.

순간 ‘ 짹! 짹! 짹!!!’ 들려오는 큰 박수 소리!!

재영 (박수 치며) 우리 중부서에 영웅이 탄생했어~

재영의 박수 소리에 다른 경찰들도 일제히 박수를 치고,

그동안 무시해오던 사찰과들이 서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 숙인다.

재영 (서준 어깨를 두드리며) 위에서 아주 흡족해하셔.

서준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정현, 따라오라며 눈짓하더니 경찰서를 나가고.
나가 보라며 고개 짓하는 재영. 서준, 한숨 쉬더니 재영을 뒤따라 나가는데...

94. 중부서 앞 - 새벽

굳은 얼굴로 중부서를 나오는 서준, 정현이가 반짝거리는 짙은 차 앞에 서 있다.
차 안에는 미제 햄과 콜라, 초코렛 상자들이 가득하다.
차 키를 던져주는 정현과 엉겁결에 받는 서준.

정현 고향 간 적 오래됐지? 개성이라고 했나?
서준 (말없이 쳐다본다) ..
정현 집 밥.. 원 없이 먹고 와. 정신없이 바빠질 거야. 수고했다. 이서준 경위.

정현이 중부서로 들어가자,
천천히 짐차를 둘러보는 서준,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해진다.

95. 미술관 안 - 새벽

어둠 속 순백색 미술관 창문으로 불빛이 밝아졌다 줄어졌다를 반복한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열은 소리.
더 들어가면,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터져 나오는 비명 소리다!!

그 소리 따라 미술품을 보관하는 가장 깊은 곳 수장고로 들어가면,
‘아아악!!!!’ 묶인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내.
계속되는 전기 고문에 고개가 툭 꺾이고,
입맛을 다시더니 전기 충격기로 툭툭 찔러대는 사람 좋아 보이는 고영주.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자 웃는 영주, 민회장을 만났던 박지웅이다.
심드렁한 얼굴로 하품하던 지웅, 재촉하듯 시계를 톡톡치자,
다시 넉넉한 웃음으로 전기 스위치를 최대치로 올리는 고영주.
곧, 다시 전등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반복하고, 사내 비명 소리도 더 날카로워진다.

96. 민회장 집 - 아침

잘 차려입은 앨리스가 거실로 나온다.

거실에는 민회장이 박지웅과 고영주와 차를 마시고 있다.
나가던 앨리스를 보는 민회장.

민회장 오늘도 늦어?
앨리스 인터뷰 마치고 바로 들어올게요. 혼자 저녁 드시는 거 겁내 하시잖아요~
민회장 겁내긴 누가!! (지웅과 영주를 보며) 미국에서 온 손녀~ 아주 천방지축이야.
AP 서울 특파원으로 왔는데.. 나라가 이 모양이라 걱정이다.
지웅 (일어나 앨리스에게 정중히 고개 숙이며)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나오셨다고요?
앨리스 덕분에 할아버지 돈이 무지 줄었겠쥬~
지웅 (미소) 거기가 돈만 있다고 들어가는 곳인가요?
앨리스 아세요? 저희 학교?
지웅 이 나라 어르신도 조지 워싱턴을 나오셨쥬.
민회장 그래 맞아. 우리 손녀랑 동문이었구만. 몰랐네~
지웅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미국 AP 특파원 인터뷰로요.
어르신께서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앨리스 그래주면 고맙쥬~ 공식적인 인터뷰를 계속 거절당했거든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가세요~ 할아버지. 이따 봐요~

나가는 앨리스를 걱정스런 얼굴로 바라보는 민회장.
한숨을 내쉬더니 서준이 가져온 화과자를 꺼낸다.

민회장 이서준이.. 렉키에 왔었습니다.
민회장 (미소) ..
지웅 죽은 한지석이 사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회장 (화과자 먹으며) 나뉘.. 사수가 그 일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몹쓸 놈이지.
한참 썰을 때 아닌가~
지웅 (뉘라 말하려다 급히 입을 다문다)
민회장 ..그래.. 어르신은??
지웅 (침울) 오늘 내일 결정을 못하고 있으십니다.
민회장 (냉소) 당연하겠지. 목을 걸어야 할테니..
지웅 더 지체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움직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화과자를 집어 입에 넣는 민회장, 눈을 감더니 천천히 맛을 음미하고,
지웅과 고영주는 눈을 감은 채 화과자를 즐기는 민회장 심기를 살핀다.

민회장 (화과자를 먹으며) 몸이 달아오르게 해야겠구만~
지웅/고영주 .. ??

민회장 목을 걸 수 밖에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지웅 ..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시면...??
민회장 (지웅을 보며) 산에 호랑이 두 마리는 살 순 없지. 그걸 각인시켜. 뼈 속까지.
지웅 (멈칫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미소) .. 준비하겠습니다!!
고영주 서청도 명령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네다.
민회장 민순갑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가 될 거야. .. 성공 시켜. 무조건!!

민회장 말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나가는 박지웅과 고영주.
저택에 혼자 남겨진 민회장, 화과자 하나를 입에 넣더니 천천히 음미하고,

민회장 .. 호랑이 사냥이라..

화과자의 달콤함에, 민회장 얼굴에 미소가 번져간다.

97. 도로 - 오후

서울을 빠져나가 북으로 향해 달리고 있는 짚차.
창밖으로 푸른 벼가 일렁이는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황금빛 햇살에 푸른 논, 산들거리는 바람이 서준의 얼굴을 스치고,
저 앞 도로 표지판이 보이자, 서준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지나가는데,
'개경 20km'
고향 개경을 향해 달려가는 서준의 짚차!!

98. 서준 집 앞 - 오후

늦은 오후 햇살이 비치는 오래된 한옥 앞에 검은 세단이 서 있다.
넓은 대문 앞에서 학자 풍의 안경 낀 50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주름살 짙은 서준모.
짚차에서 선물박스를 들고 내리는 서준을 보자 서준 동생들이 달려든다.

영준 형!!
윤희 오빠.

영준과 윤희를 반갑게 맞는 서준.
서준모는 안경 낀 50대 남자에게 인사드리라며 손짓한다.
선물박스를 든 채 어정쩡한 자세로 인사하는 서준.

서준모 저의 첫째 서준입니다. 서울 중부서에서 일하게 됐나 봐요.
 정비서 (반색) 벌써 이렇게 컸나요? 형님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네요~
 서준모 (서준 보며) 서울 가면 시간 내서라도 꼭 찾아뵙고 인사드려.
 정비서 (서준에게 명함 건네주며) 한 번 찾아오게. 자넨 보면 좋아하실 분이 계셔.
 형님을 잘 아시던 분이니까~

자동차에 올라타 떠나는 정비서.

서준모는 멀어지는 자동차를 보다 서준을 흘겨보더니 등을 탁!! 친다.

서준모 이놈아!!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준비 해놓게.. 밥은?
 서준 어제부터 굶고 있죠~
 서준모 (고개짓 하며) 인사부터 드리고 와. 밥 차려놓을테니까~

99. 서준 개경 집 마당 - 오후

머리카락이 하얗게 켜 서준부가 마당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익숙한 듯 서준부를 따라 말없이 도는 서준.

서준 (미소) 이전보다 더 빨라지셨는데요?
 서준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
 서준 달리기 대회 나가셔도 되겠어요~
 서준부 (더 빨라진다) #\$\$@%#@!!!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마당을 계속 맴도는 서준부.

그 팔을 조심스럽게 잡는 서준,

서준부, 소스라치게 놀라고.

서준 그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제야 발걸음을 멈추는 서준부.

텅 빈 눈으로 담 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읊조리고.

양상해진 아버지 팔을 꼬옥 잡아주는 서준, 눈가가 축축해진다.

100. 서준 개성집 마루 - 밤

서준이 가져온 박스에서 초코렛을 꺼내 먹으며 좋아하는 영준과 윤희.

한복을 짓는 서준모와 그 옆에서 능숙하게 도와주는 서준.

서준 엄마도 드시라니까.
서준모 시커멓고 미끄덩한 게.. 도통 입에 안 맞더라.
서준 애들 먹을 거 충분하다니까...
서준모 (바느질하며) ..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바느질 멈추며) .. 아까 오신 손님 말이야.
서준 (명함을 꺼내 확인하며) .. 비서.. 정운규??
서준모 아버지 어릴 적 친구셔. 경교장인가.. 어딘가 있다던데..., 꼭 찾아뵙고 인사드려.
서준 .. 하던 일 마무리 되면요.. .. 그러니까 서울로 가자구요.
 서울 집이 얼마나 좋은데.. 이전에 말했던 민회장님이 우리 식구 책임지겠데요.
 아버지.. 큰 병원도 알아봐 주고, 좋은 곳도 구경하구요..
서준모 집 밖에 안 나가신 지 20년 넘으신 양반이야. 가긴 어딜 가.
서준 윤희도 고등학교 들어가고, 막내도 중학생 되잖아요. 엄마 손가락도 휘고, 바늘에
 실도 애들이 넣는다면서요? 제가 책임질게요.. 여기 떠나자구요!!
서준모 (바느질 하느라 눈 찌푸리며) 난 우리 집이 좋아~ 복잡한 서울은 질색이야.
서준 (안타깝다) 엄마...
서준 우리 아들 출세하면, 생각해 볼게~
서준 진짜요? 곧 서울로 모실 테니 준비 단단히 하셔. 약속한 거야?
서준모 (한복 펼치며) 너나 약속 지켜~ 너 잘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갈 테니까~
서준 (한복을 같이 펼치며) 제 걱정 마시라니까. (동생들 보며) 우리 가족.. 좋은 일만
 생기게 할 거야. (눈빛 이글거리며) 그렇게 꼭 만들 테니까. 두고 봐요.

101. 중부서 - 아침

주름 한 점 없는 새 옷으로 중부서로 들어가는 서준.
문을 열자, 검거된 사람들과 취조하는 경찰들로 정신없다.
지나가던 오형사, 서준을 보더니 오만 인상을 다 쓴다.

오형사 휴가 간 거 더 쉬다 오지.. 뭐할라고.. 벌써부터 와가지고...
서준 전쟁이라도 터졌어요?
오형사 전쟁보다 더 난리아입니까.
 과장님 없는 사이에.. 뽕쟁이들이랑 빨갱이들 씨를 다 말린다카네에.

그때 고함소리가 터져나오고,
형사들 사이에서 칼을 휘두라며 소리치는 사내.

좌익1 (칼을 번득이며) 씨발!! 나 아니라고 했잖아!!
형사1 니들이 했다고 자백했어!!
좌익1 무슨 자백?! 그런 적 없다니까!!
형사2 (조서 보여주며) 그럼 이건 뭔데?!
좌익1 니들이 소설 쓴 거잖아. 빨갱이 좋아하시네. 얼굴 본 적도 없는 놈 자백 말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테러를 모의했다고 그래?? 쪽발이 새끼들도 이러지 않았어!!

좌익1의 칼부림에 주춤거리는 형사들.

그때 ‘쩍!!’ 소리와 함께 좌익1 머리에 붉은 피가 튈다.

서준 (피 묻은 경찰봉을 들며) 말 많은 것 보니까.. 빨갱이 맞네.

경찰봉으로 좌익1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서준.

피범벅이 된 채 축 늘어진 좌익1을 형사들이 끌고 나간다.

재영 집밥이 좋긴 좋구나~

윤창섭 경찰과 과 함께 나오는 재영과 정현.

재영 (윤창섭을 가리키며) 인사드려. 경찰청 노국장님이시다.

서준 (고개 숙여 인사한다) ..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노국장 이번에 활약이 대단했다면서?

서준 윗분들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노국장 (의외라는 듯 웃는다) !!

재영 (서준을 보며) 오늘 수사 발표장에 이 친구는 어떠신지요? 출신 좋고, 인물 좋고..

서준 제가 그럴 깜냥이 되나요~

재영 그냥 서 있어도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노국장 새 시대에 젊은 피라... 그림이 되네~

웃으며 서준 어깨를 감싸고 회견장으로 들어가는 노국장과 재영, 얼굴 굳은 정현이가 뒤따른다.

회견장 문을 열자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쉬!!!

.

102. 마약 소탕 몽타쥬

빠른 음악과 함께 이어지는 화면들.

일간지

인쇄기가 돌아가며 쏟아내는 신문들.

“특명!! 남쪽을 마약으로 물들게 하라!!”

“마약까지 손 댄 파렴치한 좌익 세력!!”

“전차학살은 마약을 둘러싼 좌익 간의 이권 다툼!! ”

호위를 외치는 신문팔이 소년들.

신문을 집어 든 시민들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진다.

마약공장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권총과 경찰봉.
허름한 공장 문이 박살나며 쏟아져 들어오는 경찰들.
서준이 앞장서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거칠게 제압하고..
사찰과들이 반정부 유인물과 마약 제조 기구들을 증거로 수집한다.
냉혹한 눈빛으로 마약 조직들을 소탕하는 서준.

출판사

"팡!!" 부서지는 출판사 문.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진압에 쓰러지는 사람들.
서준은 차갑게 바라보고,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가는 좌익 단체원들.

중부서

서준의 어깨 위로 새로운 계급장이 번쩍인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재영과 굳어진 표정으로 지켜보는 정현.

럭키클럽

‘럭키클럽’에서 축하주를 마시는 서준과 경찰 간부들.
젊은 여자가 서준에게 술을 권하지만, 서준은 무대 쪽을 계속 쳐다본다.

미술관

울창한 숲 속 언덕 위에 순백색 미술관.
긴장된 얼굴로 들어가는 재영과 정현.
총을 든 회색 정장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고,
옷을 가다듬고 미술관 안 들어가는 두 사람.
문이 닫히고, 총을 든 회색정장들이 주위를 경계한다.

취조실

형광등 아래 피투성이가 된 용의자.
사찰과 형사들이 사진을 들이민다.
공포에 질린 용의자, 피 묻은 손으로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키고.
이미 만들어진 조서에 지장을 찍는 용의자.

반민특위 앞 도로

전차에서 내리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갑자기 나타난 경찰차, 순식간에 남자를 차에 밀어 넣고 사라지는데..
뒤로 반민특위 건물이 또렷하다.

일간지

신문 1면을 채우는 헤드라인

“반민특위는 좌익 단체 은신처??”

“사회 갈등 조장하는 반민특위, 이대로 안 된다.”

“불온 탈법의 온상 반민특위, 북으로 가라!!”

신문이 거리 곳곳으로 배포된다.

103. 서준 집 - 오전

환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새로 구입한 가구들과 전자 제품들이 가득하다.

훈장을 벽에 걸고 있는 서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는데,

특위 조사자 명단이 눈에 들어온다.

잠시 망설이다 명단을 서랍 깊숙이 쑥 넣어 버리는 서준.

테이블 위에 놓인 '럭키구락부' 성냥갑을 집어 들고 나간다.

(소리) 진짜 모른다니까요..

104. 럭키클럽 - 오후

‘퍽!!’소리와 함께 술 박스 위로 나뒹구는 지배인.

지배인 (겁 먹은 목소리) 그날 이후 얼굴도 안 비추는데 저라고 어찌 알겠어요?
지인이 때문에 우리 가게도 손해가..

서준의 구두가 지배인 가슴에 꽂힌다.

헉.. 하며 꼬꾸라지는 지배인.

서준 (무표정) 여기 털면 빨갱이가 얼마나 나올까?

지배인 ..제발요..

서준 미군이랑 고관대작이 단골인데.., 볼 만 할 거야~

지배인 .. 그러면 저 죽어요.. 제발..

서준 (수첩 꺼내며) 그러니까 지인이 있는 곳을 적어.

갑에 질린 지배인, 서준 수첩을 뚫어지게 보는데,

105. 몽타쥬

- 술집, 여관, 마약굴을 찾아다니는 지인,
사진을 보여주며 묻지만, 고개를 젓는 사람들.
그런 지인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 서준이다.
- 약국에서 나서는 지인,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하다.
비를 맞으며 힘없이 걸어가는데,
그때 약사가 나와 사진을 다시 확인하더니, 길 건너편 반도 호텔을 가리킨다.
- 비를 맞으며 호텔로 달려가는 지인.
그런 지인을 지켜보던 서준, 조심스럽게 지인을 뒤따른다.

106. 반도 호텔 로비- 오후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호텔 로비.
고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긴장한 서준, 지인을 찾는데, 누군가 이견이 있는 듯 다투고 있다.
다가가면, 지인 앞에 있는 누군가, 특경대 고성욱이다!!
지인을 끌고 나가려는 성욱, 하지만 성욱 팔을 뿌리치고 로비 반대편으로 향하는 지인.
서준도 지인과 성욱을 뒤쫓아 다가선다.

107. 호텔 연회장 앞 - 오후

로비 끝에 있는 호텔 연회장.
문 앞에 건장한 회색 정장 사내들이 주위를 경계하고 있다.
연회장으로 다가서는 서준, 회색 정장들이 서준을 막아선다.

회색1 초대장 제시 바랍니다!!

서준 (경찰 신분증 보이며) 살해 용의자를 쫓고 있어.

서준 말에 냉소를 짓는 회색정장들, 경호실 수첩과 권총을 보여준다

회색2 신경 꺼시지. 청와대 경호실이 알아서 할테니까.

서준 청와대 경호실?! (들어가며) 확인할 게 있어.

회색2 (밀치며) 꺼지라니까!! 경찰 따위가 감히 어디서..

한숨을 내쉬는 서준, 두 손을 들고 돌아서다, 뒷발차기로 회색 턱을 날려버리고.

놀라 총을 꺼내는 회색1, 서준 킁이 명치를 파고 든다.

쓰러진 회색1,2을 보며 입을 굳게 다무는 서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108. 반도 호텔 연회장 - 오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인사들이 반백의 노신사에게 인사하려 줄 어 서 있다.

반백 주변을 예리하게 경계하는 회색 정장들.

지인과 성육을 찾아 연회장을 훑는 서준, 급히 나오는 사람과 부딪치고,

서준 ..죄송,,

대꾸도 없이 그냥 나가는 중절모 쓴 사내, 뺨에 화상자국이 선명한 민수다.

지인을 찾느라 다른 곳으로 향하는 서준.

(소리) 손님!!

보면, 가죽 가방을 들고 중절모 쓴 민수에게 다가가는 젊은 웨이터.

민수는 웨이터를 무시하고 나가고.

웨이터 (따라가며) 저기 손님!! (손으로 가리키며) 저 자리는 예약석이거든요.
가방 두면 안 됩니다.

웨이터가 손짓하는 곳은, 반백 노신사가 있는 테이블이다.

민수에게 가방을 건네주는 웨이터.

서준과 민수 시선이 마주치고,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쏘아보는데...

서준 (총을 꺼내며) 꼼짝 마!!

서준이 총을 겨누자,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가방 든 웨이터는 민수와 총 겨누는 서준 사이에서 얼어 버린다.

당황한 웨이터 때문에 서준의 과녁에 들어오지 않는 민수.

순간 ‘탕!!’ 소리와 함께 웨이터가 쓰러지고, 총을 쏜 민수!!
동시에 연회장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놀란 반백 노신사, 경호하던 회색 정장들에게 둘러싸인 채 연회장을 급히 빠져나가는데...

서로 총을 겨누지만, 아수라장이 되버린 연회장 사람들 때문에 주저하는 서준,
반면에 민수 얼굴에 광기의 웃음이 흐르고, 몸을 획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데,
쫓으려던 서준, 웨이터가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본다.
순간, ‘펑!!’ 폭발음 들리고, 그 충격으로 나가떨어지는 서준.

연기 자욱한 연회장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들.
이마 피를 흘리며 이를 악문 채 일어서는 서준, 총을 움켜지고 나간다.

109. 호텔 앞 거리 - 오후

비를 맞으며 달리는 서준.
민수가 보이자 총을 겨누고, 하지만 흘러내린 피로 시야가 붉게 번진다.
‘탕! 탕!! 탕!!!’
민수가 쏜 총탄에 몸을 바짝 숙이는 서준.
그때 다가오는 경찰, 서준이 경찰 배지를 보여주자, 총을 겨누며 민수에게 다가가고.
‘탕! 탕!! 탕!!!’ 민수 총탄에 다가서는 경찰이 쓰러지고,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을 찾을 볼 수 없는 암살자 민수!!
총탄이 떨어졌는지 철컥거리는 권총을 든 채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총을 겨눈 채 뒤따라 들어가는 서준.

110. 뒷골목 - 오후

비 오는 골목 안에 높게 쌓인 박스들로 널려있다.
총구를 겨누며 다가서는 서준.
그때 왼쪽에서 ‘털컹!’ 소리 들리자, 돌아서는데, 순간 머리 위로 박스들이 쏟아져 내린다.
그 충격에 총을 놓치며 쓰러지는 서준, 곧바로 시퍼런 칼이 서준 목을 노리는데...,
간신히 굴러 피하지만 연이어 날아드는 민수의 칼날!!
벽에 밀린 서준에게 칼이 날아 들고,
순간, 민수 머리를 강타하는 서준의 오른발!!

주춤 뒤로 물러나는 민수, 틈을 놓칠세라 주먹 한 방을 턱에 꽂는 서준.

‘우썉!!’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민수, 하지만 표정 없는 얼굴로 서준 명치를 가격한다
‘헉!!’ 예상치 못한 역습에 주저앉는 서준, 발길질에 나가떨어지고,
떨어진 총을 집어 드는 민수, 피 흐르는 서준의 관자놀이를 총구로 짓이긴다.
‘아악!!!’ 비명을 지르는 서준, 민수를 노려보는데..., 이전과 다른 초점이 사라진 눈빛이다.
달라진 민수를 보며 눈이 커지는 서준.

민수 (눈이 켜한 채) ..반민족 친일자.. 처형!!

“탕!” 총소리와 함께 민수가 겨누 총에 불꽃이 튀고.
부서진 권총을 버리고 반대편 골목길로 사라지는 민수.
서준, 기를 쓰고 일어나려고 바둥거리고,
곧, 서준 주위로 다가오는 발소리들!!
몇 명은 그대로 지나쳐 민수를 뒤쫓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실루엣 하나. 성욱이다.
이 악물고 일어서는 서준, 옆구리에 주먹이 파고든다.
‘헉!!’ .. 물 고인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서준.

성욱 또 내 앞에 끼어들면, 네 머리통이 날아갈 거야.

피로 물든 서준 시야가 점점 빨갱게 변하는데...

111. 도심 도로 - 저녁

어둠이 내린 서울 도심을 달리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민회장과 김지웅이 앉아 있다.

민회장 어른신은?

김지웅 (미소) 계획에 없던 일도 있었지만, 이번 일로 결심이 서신 것 같습니다~

민회장 (봉투를 건네주며) 호랑이 사냥을 마무리해야지~

공손하게 봉투 안 서류를 확인하는 김지웅,
뻔뻔이 적힌 이름을 확인하다 마지막에 적힌 이름을 보고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민회장 (운전 기사에게) 차 세워.

자동차가 멈추고, 차에서 내리는 김지웅,
민회장 자동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고개 숙인다.

112. 뒷골목 - 새벽

"똑. 똑." 물방울 소리에 눈을 뜨는 서준.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발.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는 서준, 얼굴 위로 차가운 물이 차오르고.
발버둥치는 서준 시야에 보이는 얼굴.. 민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성육이다!!!

민수/성육 또 내 앞에 끼어들면, 네 머리통이 날아갈 거야.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진다.

113. 병원 응급실 - 저녁.

‘아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는 서준, 몸 여기저기를 만지며 확인하고.

오형사 (걱정) 괜찮아예??!!

머리에 붕대를 감은 서준을 걱정스런 표정으로 살피는 오형사.

오형사 이게 무슨 난리인교??
(머리를 가리키며) 1센치만 더 들어갔어도 저 세상 갔을거라네예.

침대에서 일어나는 서준, 병실을 나가고.
서준을 급히 뒤 따라 나가는 오형사.

(소리) 여긴 또 뭐할라꼬예??!

114. 중부서 지하 계단, 자료실 - 새벽

어두운 계단을 내려오는 서준과 오형사.

오형사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멈췄구마..
서준 (자료실 문을 열며) 일제 자료가 여기 있다고 했죠?
오형사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겠어예?? 벌써 불태웠지.

스위치를 찾아 켜는 서준, 깜빡거리다 불이 들어오고.
자료실 안에는 먼지 가득한 종이상자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다.

서준 (박스를 열며) 175에서 180 사이. 오른쪽 뺨에 화상 자국 난 남자를 찾아요.
오형사 미치겠다.. 완전 한강에서 바늘 찾긴데.. 지원 요청할게요.
서준 안 돼요! 절대!! 당분간 비밀로 해야 돼요.
오형사 그러다 위에서 알면.. 뭐라 할 건데에..

대답 대신 쌓인 박스를 들추기 시작하는 서준.
뿌연 먼지가 날리고 오래된 자료들이 쏟아진다.
한숨을 내쉬며 서준과 함께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 오형사.

- 창밖으로 어둠이 물러나고, 새벽이 밝아온다.
졸다, 자료 찾다 정신없는 오형사.
맞은 편 서준은 머리에 감은 붕대에 붉은 피가 배어 나오지만, 서류를 찾아 나간다

- 주변에 서류들이 널려져 있는 서준, 실망감이 역력하다.
역시.. 없는 걸까?? 지친 서준, 바닥에 뺨는데.., 멍칫!!
오래된 죄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오고.
초췌한 물골이지만 눈빛이 강렬한 30대 남자, 죄수복 입은 민수다!!
사진 위로 '特級 要注意(특급 요주의)' 붉은 인장이 찍혀있고, '義烈團(의혈단)'이라 적혀있다.
서류를 넘기다 멍칫하는 서준,
마지막 사진 속에 민수와 같이 찍힌 죄수복 입은.. 특경대장 성욱이 있다!!

115. 특위 앞 도로 - 아침

- 자동차 안에서 긴장된 얼굴로 앞을 살피는 서준.
특위에서 나오는 성욱, 검은 짚차를 타고 떠나고,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는 서준 자동차.

116. 대저택 앞 - 아침

-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경교장 건너편에 서준의 자동차가 서 있다.
경교장을 지켜보는 서준.
문이 열리고, 성욱이가 나온다.
짚차에 오르는 성욱을 지켜보는 서준, 성욱 차가 출발하자 시동을 건다.

- 길 한쪽에 멈추는 검은 짙차, 성욱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자동차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식당을 지켜보는 서준.
그때 ‘똑!똑!’ 창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흠칫 놀라는 서준.

성욱 (미소) 밥은 먹고 일해야지. 여기 해장국이 죽여~

웃는 성욱을 매섭게 쏘아보는 서준.

117. 술 집 - 아침

국밥을 맛깔나게 먹고 있는 성욱. 서준은 그런 성욱을 지켜 보고 있고.

성욱 (국밥 먹으며) 최고 학부에 군사영어학교 최우등 졸업.
이런 인재가 경찰이 왜 됐을까?

서준 대구 은행 폭파로 5년 수감, 일본 헌병 대장 암살 미수로 사형 선고. 사형장 이송
도중에 동료 도움으로 연해주로 탈출. .. 현상금이 기왓집 한 채였다며?

성욱 아냐~ 10채는 거뜰했지. 총독부를 홀라당 불태우려 했는데.. 해방이 되버렸어~

서준 그래서.. 반민특위로 복수하는 거야?

성욱 복수라니 무슨.. 동포를 팔아 배불리 살찌운 범죄자들을 재판장에 세우는 거지~

서준 범죄자는 경찰이 해결해. 니들 특위가 아니고!! 특위는 분열만 가중시킬 뿐이야.

성욱 (씹씹하게 웃으며) 일본 놈이랑 싸울 때가 더 편했어. 싸울 적이 명확했거든.
근데 지금은.. 모든 게 흐릿해. .. 특위 안에도 배신자가 있으니까..

서준 (눈빛이 번득인다) !!

성욱 어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지. 눈 감으면.. 집이 생기고, 일자리가 떨어지니까.
겨울 지나 꽃 피는 봄에.. 누가 흑한의 길을 가려고 하겠어.. ㅋㅋ..

서준 그래서 그 짓 벌린 거야?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고??!!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성욱, 씹씹히 웃더니 술 마신다.

테이블 위에 권총을 올려놓는 서준.

서준 반도 호텔에서 지석 선배가 약속 있다고 했거든, 너지?!

성욱 (어깨 으쓱) ..

서준 그날 밤 선배가 살해당했어. 의열단 출신 암살자 동민수에게.
(사진 보여주며) 사형장 갈 때 널 구해준 놈 말이야!!

성욱 (술 마신다) !!

서준 놈을 잡으면 니들 실체도 드러나겠지. (권총 보며) 그땐 주저하지 않을 거야.

성욱 크크.. 잘 됐네. .. 넌 네 일 해. 난 내 일 할 테니까.
서준 부끄럽지 않아?! .. 민족을 팔아 잘난 네 복수에 이용하는 거?
성욱 (입술 깨물며 웃는다) .. 부끄럽지. 일본 놈 물러간 지 4년 지났잖아.
 이 땅에 특위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게 부끄럽고 또 부끄럽지.
 (서준을 보며) 넌.. 괜찮냐?
서준 (일어나며) 웃기지마. 니들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가는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성욱, 남은 술을 마신다.

118. 중부서 경무과장실 - 오전

테이블 위로 던져지는 사진들.

반도호텔, 전차 학살, 2층 양옥집, 호텔 폭파 사건의 참혹한 사진들이다.

정현 이게 왜? ..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서준 이 사건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영 (차를 마시며) 빨갱이 짓이잖아. 다들 아는 사실아냐?
서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현 수사 방향에 반기를 들겠다는 거야?

서류를 꺼내 재영과 정현에게 보여주는 서준.

서준 반도 호텔 사건 때 홍대표 전화 기록입니다. 사망자와 수 차례 통화한 곳이죠.
재영 .. 반민..특위..???!!
정현 다른 사건들은?! 특위랑 연관성이 없잖아. 그 새끼들 잘못 손대면..
서준 희생자들입니다.
재영 ..희..생자?!
서준 반도 호텔 홍대표, 전차 학살 사건, 김석호, 한지석 경정
 모두 반민특위에서 조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현 .. 설마.. 특위가..
서준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위 내 강경파 일당들이죠.
재영 음... 그놈들이 왜?
서준 특위 조사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겠죠.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일제 경찰 자료를 보여주는 서준.

파일을 넘기며 눈이 커지는 정현과 얼굴이 굳어지는 재영.

재영 (사진을 보며) 의열단 출신 동민수와 고성옥.. 용케 찾아냈어.
정현 ..정리하면.., 사망자들은 특위에서 친일 행위를 조사받던 사람들이었고,
불만을 품은 특위 내 강성파들이..
서준 처형을 동민수에게 사주한 거죠.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재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가 창 너머를 바라본다.

재영 그래.. 계획이 뭔가?
서준 불온 세력들로부터 흐트러진 질서를 되찾아야죠.
재영 ..흐트러진 질서를 되찾는다..

곰곰이 사진들과 서류를 번갈아 보는 재영, 미소가 흐르고.
무표정한 정현의 눈빛도 빛난다.

재영 한 줄 나오네. 좋아. .. 오늘 특위 앞에서 애국자 시위가 있을 거야.
가서 널 증명해 봐. 필요한 건 뭐든 말하고.
서준 (꿈쩍 않는다) ..
정현 .. 또 뭐야?!
서준 (미소) 필요한 건 뭐든 얘기하라고 하셨죠?

119. 반민특위 앞 - 오후

짙은 구름들이 지나가는 하늘 아래, 반민특위 청사가 위압적으로 서 있다.
건물 건너편 자동차 안에서 특위 청사를 바라보고 있는 서준과 불안한 눈빛의 오형사.

서준 (무전기를 들고) .. 주변 상황 보고해.
무전1 (소리)..1호차 서쪽 도로 이상 없음.
무전2 (소리)..2호차 동쪽 도로 이상 없음.
무전3 (소리)..3호차 남쪽도 깨끗합니다.
서준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리 지켜. (무전을 끊고 북쪽을 주시한다)
오형사 특위랑 엮이면 개고생한다 켜는데.. 뭐할라꼬 현장 지휘권까지 요청해 가지고..
서준 (미소) 오형사님 있잖아요. 무슨 걱정이겠어요?
오형사 (특위 건물을 가리키며) 저 독종들이 손만 빨고 있겠어예?

그때 무전 소리 들리고.. “시위대 출현!!”

곧, 특위 청사 앞으로 몰려오는 태극기와 피켓을 든 수백 명의 시위대들.

“사회갈등 조장하는 반민특위!! ”

“불법 자행하는 반민특위부터 법을 지켜라!!”

“반민특위는 빨갱이 소굴이다!!”

반민특위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대는 건물 앞으로 돌진하고.

특위 청사로 들어가려는 시위대와 막아서는 경비 간에 살벌한 몸싸움이 벌어진다.

다급하게 날아드는 무전기 소리!!

무전1 (소리)..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출동할까요?

서준 (시위대 상황을 체크하더니 무전기 들며) 계속 대기해!!

지나가는 사람들은 특위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밀리는 특위 경비를 보며 수군거리고.

무전2 (소리) 특위에서 시위대 진압 요청이 폭주합니다.

서준 (특위 건물을 지켜보며) 꼼짝도 하지마!!

시위대 중 한 명이 청사 안으로 난입하고, 그를 신호로 돌과 화염병이 쏟아진다.

'와장창!' 부서지는 유리창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때 특위 청사 문 열리고, 총을 들고 나오는 특위 특경대!!

선두에 선 성욱의 얼굴에 냉혹함이 가득하다.

특경대 출현에 멈칫거리는 시위대, 서로 눈치 보고...

누군가 “빨갱이 죽어!!” 라는 소리를 지르자, 동시에 특경대를 향해 돌이 날아든다.

돌에 맞은 특경대원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무전1 (소리) 이대로 두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진압해야 됩니다!!

서준 (차갑게) 아직이다. 기다려!!

선두에 선 성욱, 총을 드는데...

“탕!” 소리와 함께 시위대 주동자를 검거하기 시작하는 특경대,

순간, 눈치보던 시위대들은 태극기와 피켓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흩어지고, .

달아나던 시위 주동자도 특경대에게 체포당한다.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서준,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무전기를 든다.

서준 (무전기 대고) 불법 무력행사하는 특경대를 저지하고 애국 시민들을 보호한다!!
출동해!!

서준의 신호에 여기저기서 사이렌을 울리며 몰려드는 경찰차들.

차에서 내린 서준과 경찰들은 시위대를 체포하는 특경대 쪽으로 향하고.

그때 검거되던 시위 주동자가 특경대에서 빠져나오다 성욱에게 붙잡혀 쓰러진다.
쓰러진 시위 주동자를 두고 대치하는 서준과 성욱!!

서준 백주 대낮에 총격 신고가 들어왔어요~
성욱 국회가 비준한 특위를 음해하고 해체하려는 불순한 자들이다. 물려서!!
서준 유혈사태를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성욱 (특경대를 보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자는 그게 뭐든 쓸어버린다.
 (서준을 보며) 자신 있으면.. 막아 봐.

성욱이 손을 들자, 총탄을 장전한 뒤 쓰러진 시위 주동자에게 다가가는 특경대들.
서준도 손을 들자, 총을 겨누는 경찰들도 붙잡힌 시위 주동자에게 다가가고.
시위 주동자를 두고 서로 총을 겨누는 채 일촉즉발의 서준과 성욱!!
‘핑!핑!’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진다.

120. 중부서 - 저녁

호탕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중부서.
서준과 성욱이 총구를 겨누는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며 들어오는 재영과 서준, 정현

재영 특위 앞에서 총을 겨누는 경찰은 자네가 처음이야~
서준 놈들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재영 첫술에 배 부를 순 없지. 자네의 용기가 도화선이 될 거야. 이제 시작이라고~

그때 “팡!!” 문이 열리더니 경비가 밀려 들어오고.
뒤이어 성욱과 특경대가 들어와 재영에게 다가가더니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서준 이게 무슨..
성욱 (체포 영장을 보여주며) 특위 해체 시위 조종 혐의로 긴급 체포다.
정현 (체포영장을 확인하며) 증거를 대??!!
성욱 시위 주동자 집에서 현금 30만이 발견됐다. 내 월급이 3만원인데..
 니들은 좋겠어. 돈이 널려서 말이야~

재영에게 수갑을 채운 성욱과 특경대, 나가는데, 주위로 경찰들이 몰려든다.

재영 여기 중부서야.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지만 내 허락없인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성욱 중부서 총무과장 노재영!! 또 다른 이름이.. 일본 경찰 마사오 히로지?
재영 바쁜 특위께서 나 같은 하급 경찰까지 신경 써주시고.. 그래..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쪽바리 순사 생활 잠깐 했지~ (주위 경찰 보며) 그게 한 둘이겠나?
성욱 겸손은~ 악랄한 고문으로 일제 고등 경찰까지 올라가신 분이 무슨...
 네 손에 죽어나간 동포들이 수 백이 넘어.
재영 증거를 대. 모함만 하지 말고!!

성욱 특위가 지금 난리거든. 널 투고하는 편지 때문에.. 마약 토라도 네 짓이지?
재영 (꿈틀) ..
성욱 기대해도 좋을거야.

성욱의 거침없음에 주위 경찰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수갑 채운 재영을 끌고 나가는 성욱와 특경대.
그때 ‘철컹!!’ 총을 겨눈 채 앞을 가로막는 서준.
특경대도 총을 겨누고, 하지만 성욱은 당황한 기색 없이 웃는다.

서준 한 발자국만 움직여 봐. 머리통을 날려버릴테니까!!
성욱 그러신든지~

‘탕!!’ 총 쏜 서준 손을 비트는 성욱, 눈 깜짝할 사이에 서준 총을 낚아채고.

성욱 (수갑 찬 재영을 밀치며) 네가 설치준 덕분에 놈이 움직였어.
 (총을 들어보이며) 내가 보관할게. 시간 되면 찾아가~

수갑 채운 재영을 끌고 나가는 성욱과 죽일 듯이 쏘아보는 서준.

(소리) 3대가 개고생한다 안했습니까?

121. 술집 - 밤

술을 들이키는 서준과 굳은 서준.

오형사 다른 경찰들도 난리도 아니랍니다. 현역 총무과장을 잡아갔으니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고.. 경찰 체면 똥 된거지예.
서준 .. 오형사님은 경찰.. 왜 됐어요?
오형사 왜건예? 밥 안 굶을 것 같아서예.. .. 과장님예?
서준 ㅋㅋ .. 저요?? .. 내 손으로 잡아야 될.. 나쁜.. 놈이 있거든요~ ㅋㅋ
오형사 아.. 그러면 옛 됐는데..
서준 (웃으며) 왜요??
오형사 나쁜 놈이 한 둘이라예? 다 잡으려면 맨날 개고생예,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지예.
서준 (씩씩히 웃으며) 그렇긴 하네요~

술잔을 드는 서준, 그때 서준 손을 잡아채는 누군가!!

.

122. 서울 시내 - 밤

하늘에서 어둠 속에 잠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동차가 내려다보이고.
굳은 얼굴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서준, 옆에 정현이 앉아있다.
광화문을 지나 근처 숲속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회색 정장들이 지키고 있는 순백색 미술관 앞에 멈춘다.

123. 미술관 복도 - 밤

긴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고.
회색 정장과 함께 미술관 안으로 걸어가는 서준과 정현.

정현 (나즈막히) 오늘 이후가 우리 인생을 결정 지을 거야.
서준 ..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현 간단해.
서준 (정현을 쳐다본다) ..
정현 묻기 전에 절대로 입 열지 마. 질문은 절대 금지!! 그럴 경우야 없겠지만
 대답할 일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것보다 듣고 싶어 하는 애길 해. .. 그게 다야.

복도 끝에 전시실이 보이고,
전시실을 지키던 총 든 회색 정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체크 한 뒤 문을 열어준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는 정현. 숨을 크게 들이쉬 뒤 따라 들어가는 서준.

124. 미술관 전시실 - 밤

순백색 높은 천장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전시실.
장년 남자들의 아침 섞인 웃음소리가 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그 한가운데서 차를 마시는 반백, 늙은 맹수처럼 위태로운 기운이 감돈다.
다가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정현과 서준.
뒤를 힐끗 보던 반백, 천천히 일어선다.

반백 자네가 나를 구한 그 애국자인가?
서준 (대답없이 다시 고개 숙인다)
정현 (서류 건네며) 빨갱이 소탕 작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백 아직 연락 못 받았나? .. 육군이 경찰은 필요 없다던데?

군복 입은 장성이 재빨리 고개 숙이고, 정현이 얼굴이 하얗게 굳는다.

반백 자네들은 서포트만 잘 해주면 돼. 계속 수고해주게~

고개 돌려 장년들에게 다시 뭔가를 얘기하는 반백, 다들 경쟁하듯 웃기 시작하고.
당황함이 역력한 정현, 얼굴이 굳은 채 전시실을 나가는데,
나가던 정현 서류를 뺏아 반백에게 다가서는 서준, 회색 정장이 막아선다.

서준 각하!!

순간 정적이 감도는 전시실.
회색정장들이 서준에게 성큼성큼 다가서고, 손을 드는 반백. 회색정장 멈춘다.
서준의 돌발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정현.

서준 (더 다가가며) 이전 작전 계획서를 수정했습니다.

당돌한 서준을 보며 인상이 굳어지는 사람들.
차를 마시던 반백, 서준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반백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직시하는 서준.

반백 (담담하게) 그래.. .. 할 말이 뭔가?

서준 (기회는 한번 뿐이다) .. “정의를 구현하고, 질서를 되찾는다!!” .. 입니다

군인과 남자들, 서준 말에 침묵을 지키고. 숨도 제대로 못쉬는 정현.

반백 (가웃거리며) ..정의를 구현하고, 질서를 되찾는다..

서준 (반백을 주시한다) !!

반백 (서서히 미소) 한 줄 나오네~

그 소리에 회색정장이 서준 서류를 건네받고, 만년필을 꺼내 반백에게 바친다.
서류 속 내용은 보지도 않고, 결제 칸에 거침없이 사인을 하는 반백.

반백 불온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네. 자네같은 애국자를 믿지 못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나? (마지막 서류에 사인하며) 모두가 자네 같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이 혼란에서 벗어날텐데 말이야..

사인을 마친 반백, 웃으며 서류를 서준에게 건네주고.
군인과 남자들도 반백을 따라 미소 짓는다.

반백 (손 내밀며) 민회장에게 자네 얘기 들었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날.. 이 사람을 지켜준 것처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주게나!!

반백과 악수하는 서준, 이전과 분명 달라져 있다!!

125. 서준 서울 집 - 새벽

어둠 속 스탠드 아래에서 경찰 정복을 입은 서준이 전화기 앞에 굳은 채 서 있다.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그때 '따르릉-' 전화벨 요란하게 울리자 수화기를 드는 서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를 끊고 나가다 거울 앞에서 선.

서준 (거울 속 자신을 뚫어지게 보며) 두드리면 열릴리라.. 두드리면 열릴리라..

앞에 놓인 수첩과 손때 묻은 만년필을 놔두고,
45구경 콜트 권총, 수갑을 채긴 뒤 집을 나가는 서준.

126. 경교장 - 새벽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에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경교장을 나오는 성욱.
안경 낀 70대 두루마기 남자가 성욱 어깨를 두드려준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오는 성욱, 어둠 속에서 눈빛이 번뜩인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경교장의 높은 담을 비춘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대문이 열리더니 성욱이 나온다.
그 뒤로 안경 낀 70대 두루마기 남자가 성욱 어깨를 두드려주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는 성욱.
새벽 어둠 속에서 눈빛이 차갑게 번뜩인다.

127. 도로 - 새벽

‘SPECIAL POLICE’ 깃발이 달리는 자동차 본넷 위에서 벌떡인다.
뒷좌석 특경1, 앞 좌석에 앉은 성욱에게 조서를 건네준다.

특경1 어제 88구락부 비밀회동이 있었습니다.
특경2 새끼들. .. 지들 사냥개가 잡혀갔으니 쫓았겠지~
성욱 (창밖을 바라보며) .. 청와대에서 거래가 들어왔다네~
특경1 청와대가 직접요??!!
성욱 이번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특경1 그럼.. 노재영은..

특경2 그 자만큼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특경1 서울 경찰과 전원이 사표를 냈어. 심상치 않아.
 특경2 그러니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꼬리 내릴 게 분명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지들이 어찌겠어.
 특경1 특위에서 법과 규정대로 움직이라는 지시 잊었어? 까닥하단 빌미를 줄 수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던 성욱.

성욱 .. 특경대는??
 특경2 현재 특위 청사에서 출동 대기 중입니다. .. 어떻게.. 할까요?
 성욱 (결심이 섰다) 금일 09시. 반민족 친일파 소탕을 일제히 시행한다.
 특경1 드디어 위에서 허락이 떨어진 건가요?
 성욱 .. 이번 작전은 특위가 아닌 내 결정이다.
 특경1,2 ???!!
 성욱 책임추궁이 따를 거야. 빠지더라도 이해한다.

성욱 말에 얼굴이 굳어지는 특경1,2, 망설임 없이 총을 꺼내 점검하고,
 밝아오는 새벽 도로를 깃발을 날리며 질주하는 검은 짙 차.!!

128. 반민특위 청사 앞 - 아침

특위 청사 앞에 도착하는 검은 짙 차.
 성욱과 특경1,2, 경비가 지키는 특위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긴장한 얼굴로 총을 든 경비.

특경1 (경비 보며) 재들은 매번 바뀌나 봐
 특경2 딱 신참이네. 얼은 거 봐라~
 성욱 (경비를 힐끗 보다 들어가며) 특경대를 5개 조로 나눠 경찰청부터 친다.
 특경2 (따라 들어가며) 새끼들. 아침 댕바람부터 바지를 지리겠구만.
 특경1 특위 감옥이 미어 터지겠는데요~

129. 반민특위 안 - 아침

특위 안으로 들어오는 성욱과 특경1,2, 텅 비어있다.

특경1 (주위를 둘러보며) 어랏? 다들 어딜 건 거야?
 특경2 또 우릴 빼놓고 아침 먹으러 갔나봐? 의리없게 시리.. ㅋㅋ

들어가던 성욱, 순간 눈빛이 번득이더니 총을 꺼내고,
 멍칫하던 특경1,2도 총을 꺼내는데...

순간, ‘철컹!!!’ ‘철컹!’ ‘철컹! 특위 안 곳곳에서 겨누어지는 수십 개의 총구들!!
권총을 움켜쥔 성욱 일행을 향해 다가서는 서준과 사찰들.

서준 (미소) 시간 될 때 찾아오라고 했지?

총을 겨누는 성욱에게 소총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서준!!

130. 특위 습격 몽타쥬

한옥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특위 간부.

‘팡!!’ 소리와 함께 사찰과들이 구두를 신은 채 쏟아져 들어오고,

저항하던 특위 간부를 총으로 내려친 뒤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간다.

피 흘리며 끌려가는 아버지를 보며 우는 아이들과 하얗게 질린 채 몸을 떠는 아내.

전차 정류소.

전차를 기다리는 특위 직원.

그 앞으로 경찰차가 급히 멈추더니 특위 직원을 거칠게 싣고 출발한다.

길바닥에 떨어진 가방과 서류를 보며 웅성거리는 사람들.

특위 정문

장난을 치며 특위 안으로 들어오는 특위 조서관들.

문이 닫히자, 쏟아지는 경찰봉 세례에 붉은 피를 쏟으며 쓰러진다.

그 옆에서 마대를 들고 쌓여있는 붉은 피를 닦느라 바쁜 경찰들.

특위 안

포박당한 채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조금이라도 기척이 있으면 총과 경찰봉으로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살기 등등한 사찰과들.

특위 건물 앞

특위 청사 주위를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들.

카메라로 든 기자가 사진 찍자, 카메라 앞을 막더니 필름을 빼버린다.

항의하는 기자에게 거칠게 총으로 위협하는 형사들.

(소리) 책임자가 누구야?!!

131. 특위 안 - 오후

특위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치는 꼬장꼬장한 50대 정장 남자, 검찰총장이다
특위 박스 안에서 서류를 뒤지던 경찰들이 멈칫하고.

검총 어떤 새끼냐니까?!!
정현 (특위 서류를 확인하며) 저희들은 상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검총 누구? 중부서 서장? 경찰청장?! 건방진 새끼들!! 놔두나 봐라..

검찰총장의 거센 호통에 분류 작업을하다 눈치보는 경찰들.

정현 (계속 작업하라고 손 짓 하며) 서둘러. 시간 없어.
검총 (권총을 꺼내며) 이 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총장이야. 검찰총장!!
 (전화기를 돌리며) 내 허락도 없이 어떤 새끼가 이딴 짓을 벌인 거야?!

그때 ‘철컹!!’ 검찰 총장 머리에 총구가 겨눠지고.
눈빛이 번뜩이며 총을 겨눈 서준이다.

검총 (움찔) 뭐야?!
서준 빨갱이 소탕 작전을 방해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처단하라는 명령입니다.
검총 ..빨갱이 소탕?! 반민특위는 법으로 보장된 헌법기관이야.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 따위 명령을 내렸어? 누구야?!
서준 총장 영감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분..
검총 .. 설마.. 청와대..?!!

흔들리는 총장 권총을 낚아채는 서준.

그때 미술관을 경비하던 회색 정장들이 특위 안으로 들이닥치고.

정현이가 귓속말을 건네자 분류해 놓은 박스 안 특위 문서들을 수거해간다.

다른 회색정장들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성육을 끌고 나가고.

담배를 꺼내는 정현, 서준에게 권하고, 담배를 입에 무는 서준.

정현 (담배를 피며) 어때.. 소감이??
서준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정의가 실현되고 질서를 되찾은 거죠.
정현 (미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
 혼란은 누군가에게 위기지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이기도 하거든.
서준 (멈칫한다) ..
정현 자넨 봐. 남들 수십 년 올라가야 할 곳에 서 있잖아.
 (나가며) 일 마무리되면 술 한 잔 해~

혼자 남겨진 서준,

아수라장이 된 특위를 둘러보더니,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구두로 거칠게 비벼끄고 나간다.

132. 승진식 몽타쥬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단상에 올라가는 정현과 서준.
표창장과 함께 어깨 위에 새로운 계급장이 달린다.

- 일간지 헤드라인이 빠르게 넘어간다.
“반민특위 습격은 빨갱이 소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반민특위 내 공산당 조직 적발!! 대한민국 위기 모면”
“반민특위, 뇌물과 마약 거래로 아방궁!!”

승진식 단상 아래에서 서준 가족들이 서준을 지켜보고 있다.
새 계급장을 단 서준, 가족들을 보고 웃고.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와 멍한 눈빛의 아버지..

- 경찰서 지하 취조실에서 설렁탕을 후루룩 들이키며 이쑤시개로 입에 무는 사찰과들.
옆에는 전기 고문을 당하는 특경대원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그럴 때마다 경찰서 전등들이 불규칙하게 깜빡거린다.

새 계급장을 단 오형사와 시선이 마주치는 서준.
서준이 웃지만, 오형사는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 난장판으로 변한 특위 청사에서 테이블에 마주 앉은 정현과 특위 위원장.
정현을 쏘아보던 위원장, 테이블 위에 특위 도장을 던져주고 나간다.
책상 위에는 특위 사람들의 사퇴서가 쌓여있다.

- 서울 외곽 공터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피투성이 특경대원들.

- 교도소 문 열리고, 교도관들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는 재영.
문 앞에는 사찰과들이 줄지어 인사를 하고,
세단이 보이자, 얼른 자동차로 다가가 고개 숙인다.
자동차 문 열리고, 차 안에 민회장이 있다.
재영을 태우고 빠르게 사라지는 민회장 자동차.

- 미술관에 속속 도착하는 자동차들.
회색 정장들이 묵직한 박스들을 조심스럽게 미술관으로 나르고,
총을 든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는 회색 정장들.

133. 경찰청 강당 - 오후

동료 경찰들에게 축하를 건네는 서준.
서준모가 아들의 새 계급장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이고,
서준부는 멍한 눈빛으로 오랜만에 웃음 짓는다.
서준의 계급장을 만지며 좋아하는 동생들.

(소리) 오늘 주인공이 여기 있었구만~

보면, 민회장과 재영과 정현이 다가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서준.

민회장 우리 서준 군 가족 분들?
서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민회장님입니다.
서준모 (고개 숙이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회장 도움은 제가 더 받고 있지요?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구요~ 하하~~
재영 (웃으며)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얼마나 든직하시겠어요~
서준 저를 이끌어주시는 상관이세요요.
서준모 (고개 숙이며)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재영 최고 학벌에 실력 좋아~ 인물은 더 좋고!! 큰 일 해 낼겁니다. 절 믿으세요~

축하와 칭찬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자리.
그런데 서준부의 표정이 굳어가더니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몸이 떨려오기 시작한다.

재영 우리 이경위가 아버님을 쏙 빼닮았구만.
(서준부 손 잡으며) 아드님은 저희들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손잡은 재영의 손을 와락 빼는 서준부.
서준모가 진정 시켜보지만 경련이 점점 더 심해진다.
얼굴이 굳어지는 서준과 당황하는 가족들.

서준모 저희 바깥양반이 몸이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웃으며) 실내라 답답해서 그러실 겁니다. 축하 사진 찍고 좋은 곳으로 모셔드려.
(주위를 둘러보더니 손짓하며) 어이!!

재영의 호출에 사진기를 든 경찰이 뛰어오고,
서준은 가족들과 포즈를 취하고, 민회장, 재영, 정현과 함께 사찰과들이 그 뒤로 선다.
더 경직되는 서준부.

사진사 자.. 그럼 찍습니다. 김치~
일동 (웃으며) 김치~~

‘평!!’ 카메라 플래쉬 터지고. 순간, 서준부 눈빛이 확 커진다.

사진사 한 장 더 찍겠습니다. (서준부 보며) 오늘같이 좋은 날.. 활짝 웃으셔야죠~

사진사 말에 더 활짝 웃는 사람들과 점점 더 몸이 떨려오는 서준부,

‘ 평! 평!! 평!!! ’ 연달아 터지는 카메라 플래쉬!!

그럴 때마다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던 서준부, 급기야 바닥에 쓰러지더니 비명을 내지른다.

‘아악악악!!!!’ 그 비명 소리에 주위 사람들 웅성대고.

발작하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나가는 서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다.

134. 개경 집 마루 - 밤

부채를 부치며 약탕을 달이고 있는 서준모.

방에서 나온 서준, 어머니 대신 부채를 젓는다.

서준 (부채 흔들며) 그러니까.. 서울로 오라 했잖아요.

서준모 집 나가면 저러시는데 가긴 어딜 가?

서준 병원에 가든지. 굶이라도 하든지.

서준모 ..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서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준모 애미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

서준 ㅋㅋ.. 전요.. 그런 기억 없어요. 집에서 맘 편하게 웃던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서준을 쏘아보는 서준모, 입을 꼭 다물더니 서준이 들고 있던 부채를 빼앗는다.

서준모 (부채를 세차게 저으며) 일하는 사람이 자리 자주 비우면 좋지 않아.

이젠 집에 그만 와.

서준 어머니!!

135. 개성 시장 - 낮 (회상)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들을 사고 팔고 있다.

가게 앞에서 장난감을 들고 좋아하는 어린 서준과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인자해 보이는 서준부.

주인 학교 오는 길에 매일 보고 갔거든요.

서준 매일 아닌데..

서준부 다른 분들께 꽤 끼치 마라.
서준 (빙긔) 이제부터 안 그러걸요~
주인 (서준부에게 돈 거슬러주며) 몸은 좀 어떠세요?
 서준이랑 시장에도 다 나오시고.. 자주 좀 같이 나오세요.

주인 말에 말없이 웃기만 하는 서준 부.
그때, 40대 여자가 서준에게 다가온다.

서준 (환하게 웃더니 고개 꾸벅) 안녕하세요~

서준을 그대로 지나치는 40대 여자, 돈을 받던 서준부 뺨을 야멸차게 때린다.
놀라 눈이 커지는 서준과 주위 사람들.
‘철썩! 철썩!!’ 서준부는 연달아 뺨을 맞고도 대꾸도 못한 채 고개 숙인다.

40대여자 개, 돼지보다 못한 버러지!!
서준 ..아..주머니...
40대여자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 잠이 와?!

40대 여자의 저주에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고개 숙인 서준부, 서준 팔을 잡고 가지만 끝까지 버티는 서준.

서준 왜요?!
서준부 (팔을 끈다)
서준 왜 맞고만 계시는 거예요??!!
서준부 ..가자.
서준 (이 악물고 버티며) 아버지!!!

순간, ‘철썩!!’ 놀라 눈이 커진 채 뺨을 어루만지는 어린 서준.
아픔보다는 억울함과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돈다.

서준부 ..제발.. 집에 가자꾸나.. 제발...

서준부의 절망스러운 얼굴에 버티던 팔이 스르르 빠지는 서준.
비틀거리는 서준부, 시장을 떠나고.
웅성거리는 주위 사람들 뒤로 들려오는 매서운 여자 목소리!!

40대여자 40년 친구를 팔아넘겨?! 천벌을 받을 거야!!

136. 서준 집 - 밤

가방을 챙겨 나오는 서준, 하얀 달빛 아래에서 마당을 빙빙 돌고 있는 서준부를 본다.

서준 아버지..

서준부 (뭔가를 중얼대며) #\$\$\$%%&* #\$\$\$%%&*

서준 ..아버지!!

서준부 (더 빨리 돌며) \$리% %릴 %이*.. 두\$리% %릴 %이*.

서준 제발... 만 좀 하세요!!

그 소리에 놀라, 발이 엉켜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서준부.

서준 ..일어나요..

서준부 (바닥에 누운 채) .. 두@리면 %*리.. *@리면 %릴&라..

서준 일어나요 어서!!

서준부 (바닥에 누운 채) .. %@리면 %릴리.. 두@리면 %릴&라.

서준 (와락 일으켜 흔들며) 일어나라니까!! 제발!!!!

소리치는 서준을 보더니 부르르 떠는 서준부.

원망스런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보던 서준, 순간 눈물이 핑 돌고, 천천히 안아준다.

곧, 차츰 경련이 잦아들고, 숨을 몰아쉬며 눈을 깜빡거리는 서준부.

서준 (눈물이 흐르지만 웃으며) 괜찮아요. 이제.. ..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죠?
무두 다 잘 될거예요. 걱정마세요. 제가 그렇게 꼭 만들게요.

137. 중부서 - 아침

중부서로 들어오는 서준.

電車虐殺 捜査本部(전차학살 수사본부) 플랭카드를 벽에서 수거하는 경찰들.

경찰들이 서준을 부러운 듯 쳐다보며 지나가고,

자기 자리로 가는 서준, 자료와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다!!

138. 중부서 경무국장실 - 아침

열 받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준.

정현이가 종이박스에 물건을 담고 있다.

서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현 (빈 책상 위에 새 명패를 내려놓으며) 여기 터가 좋아.

정현이가 내려놓은 명패에는 ‘경무과장 이서준’이라고 적혀있고, 방 안에 배치된 서준 물건들.

정현 뭐해? 앉아 봐~
서준 .. 선배님은요...??
정현 본청 국장 자리가 하나 비웠다네.
서준 (고개 숙이며) 본청 영전.. 축하드립니다.
재영 뒤에서 잘 밀어줘야 앞 배도 치고 나가는 거야~
서준 선배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 노과장님은?
정현 청와대 쪽에 갈 예정인가봐. 골치덩어리 특위도 해결했으니 자기 세상 온 거지~

박스를 들고나가는 정현, 빈자리를 가리키며

정현 자네한테 잘 어울릴거야~

139. 중부서 경무국장실 - 오전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서준.

반도 호텔 마약 사건, 전차 학살 사건, 특위 해체 자료들을 박스에 담아 밀봉하고.
새로 수사할 자료들을 책상에 올려놓는 서준, ‘빨갱이 소탕’ 관련 계획서다.

(소리) 벌써부터 달리는 거라예?

문가에 여행 가방을 든 오형사가 서 있다.

서준 (안타까움) 다시 생각 해 보시는 게...
오형사 (웃으며) 우리 얼라도 보고 싶고, 마누라 살냄새도 그립고.. 내려갈라꼬예.
서준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오형사 (쏘아보며) 또 일 시킬라꼬예?! (웃는다)
서준 그걸 못해 너무 억울한데요~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형사 제가 더 고마바예. 부산 국제 시장 쪽에 자리도 알아봐 주셨는데..
서준 .. 아쉽네요. 무척요..
오형사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번 일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예.
 .. 난 갱장이 안 맞구나..
서준 ..??!!
오형사 일제 순사 할 때도 일 못 한다고 욕 마이 묵었거든예.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안 좋은 일만 생겨서... 그래서 해방되고 진짜 열심히 할라꼬 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 부끄럽네예..
서준 (움찔한다) ..
오형사 부산 내려오면 꼭 연락주이소. 만사 제쳐두고서라도 나갈테니까예.
 아차.. 내 정신 좀 봐라. (편지 뭉치 건네주며) 승진 축하 인사가 엄청나예.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그럼.. 아무쪼록 몸 단디하고 잘 계시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가는 오형사.
아쉬움에 한숨 내쉬는 서준, 오형사가 준 축하 편지를 열어본다.
서준의 승진을 축하하는 편지들.
하나씩 넘기며 확인하는 서준, 그러다 맘치하는데...
편지 봉투를 확인하자 수신자 불명 편지다.
편지를 다시 읽는 서준 눈이 점점 커지고, 손마저 점점 떨려오기 시작하는데...

140. 중부서 서류계 - 오후

캐비넷에서 서류를 찾고 있는 서류계.

서류계 (서류를 확인하며) 전차학살 사건.. 종결 처리 된 건 아닌가요?
서준 그러게요. 본청에서 확인할 게 있다고 난리네요.
서류계 본청이 원래 그래요. 그냥 갑질하는 거지.
(서류를 확인하다 가웃) .. 어라.. 없네. 분명히 있었는데..., 계장님이 치웠나?
서준 그럼.. 구치소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서류계 못 들어셨어요?
전차학살 사건 자백하고 구치소 이송 도중에 도주하다 사살됐다던데요.
서준 .. 생존자는요?!
서류계 모조리 사살!! 하여튼 빨갱이 새끼들은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

서준 얼굴이 굳어진다.

141. 병원 - 오후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가는 서준. 침상이 비어있다.

간호사 어떻게 오셨나요?
서준 여기 환자.. 이황수 어딴죠??
간호사 ..누구.. 시죠??
서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다) !!
간호사 .. 그게요..

142. 거리 - 오후

혼란스러운 얼굴로 거리를 걷고 있는 서준, 간호사 목소리가 흐른다.

간호사 (소리) 전날까지 혈압도, 맥박도 정상이었구요. 밥도 더 달라 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 갑자기 사망했어요.. 경찰들이 얼마나 입단속 시켰다구요.

정신없이 걷던 서준, 발걸음을 멈추는데, 불 꺼진 특위 청사가 보인다.

143. 특위 근처 식당 - 저녁

만신창이가 된 특경1, 서준 눈치를 살피며 허겁지겁 국밥을 다 비운다.

특위1 그날 이후 부대장님을 못 봤어요.
서준 같이 있지 않았나요?
특위1 저희들은 경찰서로.. 부대장님은... 경찰말고 다른 놈들한테..
서준 짐작 가는 데라도..
특위1 (고개 흔들며) 놈들이 반민특위 최종보고서 찾느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겹에 질린 채 서준 눈치를 계속 보는 특위1.

서준, 봉투를 내민다.

봉투를 열더니 돈을 확인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얼른 일어나는 특위1.

특위1 애가 아파서요.. 우릴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긴 다
틀렸어요. (나가며) 부대장님 시체라도 찾아야 수습이라도 하고 떠날텐데.. ..

144. 서준 집 - 새벽

수신자 불명 편지 봉투를 들고 갈등하는 서준.

성냥을 꺼내 불을 켜고 편지에 갖다되는데.., 결국 불을 끄고 만다.

편지 봉투 안에서 사진을 꺼내는 서준.

지식 유품을 정리할 때 사라졌던 수사 자료들이다.

반도 호텔, 전차 학살, 2층 양옥 암살의 희생자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미술관에서 반백 옆에 있던 장년 남자 중 한 명이다.

지석이 보낸 편지를 읽는 서준의 눈이 점점 흔들리는데..,

“이 편지가 너에게 도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45. 여관 - 새벽

팔뚝에 주사기를 꽂은 민수, 눈이 행하다.

중절모를 쓴 고영주, 마약에 찢은 민수 손에 사진을 쥐어주고.

초점 잃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민수.

고영주 (나즈막하게) 윤창섭, 이토 가즈키, 조선총독부 참여관, 반민족친일자.. 처형!!

민수 ..윤·창·섭... .. 이토.. 가즈키.. .. 조선총독부 참여관.. 반민족친일자 .. 처형!!

민수 앞에 투명한 결정체 ‘토라’를 놓고 나가는 고영주.

146. 중앙청 앞 - 오후

중앙청에서 나오는 윤창섭, 미술관에서 반백 옆에 있던 중년 남자다.

자동차 앞에 대기하던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자, 뒷좌석에 타고.

운전사가 자동차에 타는데, 뒷문 열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서준.

놀라는 운전사와 담담히 서준을 바라보는 윤창섭.

서준 손에 지식의 편지와 사진이 들려져 있다.

윤창섭 (운전사를 보며) 출발하게~

147. 자동차 안 - 오후

서울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

안경을 쓴 채 지식 편지를 보고 있는 윤창섭과 지켜보는 서준.

서준 (민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윤창섭 (고개 젓는다) ..

서준 의열단 출신으로 특위에서 조사받던 사람들을 살해한 자입니다.

윤창섭 (얼굴이 무거워진다) ..

서준 경찰에 정식으로 보호 요청하셔야 됩니다.

윤창섭 경찰이 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서준 아무리 의열단 암살자라도 경찰이 보호한다면 쉽게 노리진 못할 겁니다.

윤창섭 (씹씹하게 웃으며) .. 조용없네. 난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서준 .. 그게 무슨...??

윤창섭 반민족행위자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같은 친일파 말일세.

서준 .. 어쩔 수 없었던 일.. 아닌가요?

윤창섭 살기 위해 불의를 저지른 자도 있고, 더 큰 욕심을 위해 그 짓을 한 사람도 있지.
자네처럼 말이야..

서준 (움찔한다) ...

윤창섭 하지만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악이 있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자.

서준 네?!

윤창섭 (희생자 사진을 보며)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네. 특위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서준 .. 특위에 협조요??!!

윤창섭 우리는 친일 고백자이자 배신자야. 자네 선배 한지석도.
우리를 노린 자는 특위 내 강경파가 아냐.

서준 그럼 .. 누군가요?!

윤창섭 반민특위랑 전면전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나?

서준 (움찔) ..설마...

윤창섭 자네 계획대로 특위가 제거됐으니 이제 그들 세상이야. 나같은 친일고백자를
보호해 줄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말일세. .. 자네도 조심하게나.

순간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울렁인다.

운전수 (뒤를 돌아보며) 죄송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클랙션 울리며) 이봐여! 차 좀 빼 줘요!!

보면, 유리창 너머로 트럭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빠방!!’ 경적을 울리는 운전수.

그때 ‘부웅!!’ 소리와 함께 뒤쪽으로 바짝 붙는 회색 자동차.

순간, 옆 창문으로 누군가 다가서는데, 총을 겨눈 민수다!!

‘드르륵르륵!!!!’ 자동차 안으로 총탄이 날아들고, 피투성이가 되며 쓰러지는 운전사.

총을 꺼내 겨누는 서준, 쏟아지는 총탄 세례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 ,

가슴이 붉게 물든 윤창섭, 서준을 보며 무슨 말을 하려는데.

총을 들고 다가오는 민수.

민수 (윤창섭에게 총구 겨누며) 윤창섭. 이토 가즈키. 조선총독부 참서관. 처형!!

‘탕!탕!탕!’ 윤창섭 머리가 제껴지고, 붉은 피가 서준 얼굴에 튄다.

곧, 급출발하는 소리와 함께 빠르게 사라지는 회색 자동차.

피투성이가 된 채 절명한 윤창섭과 운전수를 살피는 서준, 눈이 요동친다.

148. 호텔 일식집 - 저녁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테이블에서 스시를 즐기고 있는 민회장.

김지웅과 고영주가 다가와 자리에 앉고.

김지웅 입맛에 맞으신가요?

민회장 (스시를 손으로 잡고 먹으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얼마나 좋아~
세상 눈치도 안 보고 말이야. 남대문에 있던 식도원 스시랑 비슷해.

김지웅 그 집 수제자가 여기 주방장입니다.
 민회장 나쁘지 않네.. 일은?
 김지웅 .. 해결했습니다. 윤창섭.
 민회장 쫓쫓... 어르신도.. 그런 자를 옆에 끼고 도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김지웅 (민회장의 거침없음에 웃는다)
 민회장 (명단을 건네주며) 나머지도 정리해야 될 거야. 빠짐없이.
 김지웅 (명단을 보더니 멈칫한다) !!
 민회장 호랑이 사냥을 마무리해야지~

마지막 남은 스시를 입에 넣는 민회장.

149. 명동 성당 - 밤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맨 뒷줄에 미군 장교가 기도를 하고 있다.
 옆에 누군가 앉는 인기척에 힐끗 보면, 서준이다.

스티브 (영어) 이 나라는 날씨가 구려.
 서준 (영어) 텍사스 여름에 비하면 휴양지라며?
 스티브 (영어) 이번 달 지나면 여기도 바이바이야. .. 이번에 미국 가는 거지??
 서준 (영어) 마무리 해야 될 일이 있어.
 스티브 (영어) 세상에 마무리라는 건 없어. 유효기간만 있을 뿐이지.
 (쪽지를 건네주며) 이거 알아내느라 위스키랑 담배가 바닥났다니까.

스티브가 준 쪽지를 확인하는 서준.

스티브 (영어) 어릴 때 미선교사 따라 미국으로 갔는데 올 초에 귀국했어.
 ‘럭키구락부’ 라고.. 잘나가는 여가수라던데.. 누구야?
 용의자야? 아님.. 걸프렌드??
 서준 (영어) (미소) 둘 다.
 스티브 (영어) (어깨를 으쓱) .. 한국 쪽 정보라인들이 일시에 조용해졌어.
 서준 (눈이 꿈틀한다) ..
 스티브 (영어) 뭔가 크게 터질 모양이야. .. 조심해.
 서준 (영어) (일어나며) 걱정마. 미국행 좌석이나 비워놔.

150. 반도호텔 로비 - 새벽

새벽이라 한적한 호텔 로비 카운터.
 지배인에게 스티브에게 받은 쪽지를 보여주는 서준.

지배인 (룸키를 건내며) 손님 오면 전화벨이 울릴 겁니다.

151. 반도호텔 복도/룸 - 새벽

룸 앞에 선 서준,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룸키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어둠에 잠긴 룸 안으로 들어오는 서준.
방 저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자 총을 겨누며 다가가는데...
벽에 기대 어둠 속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실루엣, 민수다.
주위에 마약병과 주사기가 널려 있고.

서준 (총을 겨누며) 옆드려!!

총을 겨누는 서준을 바라보는 민수, 눈빛이 텅 비어있다.
총으로 민수를 내리치는 서준, 여전히 무반응.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민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서준.
그때 ‘철컹!’ 뒤에서 총 노리쇠 당겨지는 소리 들리고,
보면 권총을 든 지인!!

서준 (민수에게 총을 겨누며) 다 끝났어. 포기해!!
지인 (서준에게 총을 겨누며)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데??!!
서준 놈은 살인자야!! 그것도 연쇄 살인범!!
지인 자기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서준 .. 딸..??!!
지인 아빠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자신을 고문했던 일본 경찰들이 이 땅 경찰이 되었으니까.
서준 (멈칫한다) ..
지인 아빠가 일제와 싸우는 동안 우리 가족들은 쑥대밭이 됐어.
엄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다 팔아야만 했지.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해방과 함께 찾아온 거야.
엄마는 결국 목숨을 끊었고, 아빠는 술에 빠졌어.
그때 놈들이 접근했어. 친일파 처형이라며 명단을 넘겼지. 마약과 함께.
서준 그 사람들은.. 특위에 양심적으로 친일 행위를 고백한 사람들이었어.
지인 아빠에겐.. 같은 친일자뿐이야!!

지인을 바라보는 서준.

지인 놈들의 마지막 타켓만 남았어. 그것마저 제거되면 놈들 세상이 될 거야.
서준 누구야? 그 마지막 타켓이??!!
지인 알면.. 이번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준 누구냐니까??!!

지인 (아빠를 부축해 일어나며) ..
서준 (총을 겨누며) 누구냐니까!!
지인 시간을 놓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아빠를 데리고 떠날 거야.

눈빛이 멍한 민수를 부축해 나가는 지인.
서준, 그 앞을 막고. 지인을 막는 서준.
지인, 희미하게 웃더니 서준을 지나쳐 나가는데...
순간, ‘탕!탕!탕!!!’
지인 몸에 총탄이 박히고 민수와 함께 쓰러진다.
총탄을 피하며 몸을 구르는 서준, 들어오는 회색정장들을 향해 총을 쏘고.
‘드르륵!!!’ 회색 정장들의 총구에서 불이 뿜는다.

쏟아지는 총탄 세례에 몸을 숨긴 채 마지막 탄창을 갈아 끼우는 서준.
주위를 살피자, 민수가 낮이 나간 채 피로 물든 지인을 안고 있다.
총을 쏘며 다가오는 회색 정장들, 서준을 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탄환을 보며 죽음의 그림자가 스치는 서준.

순간, ‘탕! 탕! 탕!!’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 회색 정장들.
광기로 물든 민수 공격에 주춤거리다 다시 공격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총을 쏘는 서준.
총을 맞고 쓰러지는 회색 정장들, 남은 회색정장이 도망치는데...
‘탕!!’ 회색 정장 머리가 제껴진다.

곧, 정적만이 흐르는 피로 물든 아수라장!!
피에 젖은 지인을 안고 울음을 토해내는 민수.

민수 .. 미안하다... 미안하다..

총을 겨누고 다가서는 서준.
민수는 서준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더니, 피 묻은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든다.
서준 손에 사진을 맡기고, 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고 마는 민수.
민수가 건네준 피 묻은 사진을 보는 서준, 눈이 확 커지더니 밖으로 뛰어 나간다.

152. 경교장 앞- 오전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경교장.
문 앞에는 총을 든 경비가 지키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는 서준,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그때 경교장 곳곳에 군용 짚 차 여러 대가 서준 눈에 들어온다.

153. 경교장 정원- 오전

경교장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는 서준.
주위를 살피다 2층 경교장으로 다가서는데...
그때, ‘철컹!!’ 소리와 함께 서준에게 겨눴지는 총구!!

154. 경교장 1층 - 오전

긴장한 경비1이 수갑 찬 서준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개경 집에서 봤던 정비서가 경비2와 들어오다 영망이 된 서준을 보며 놀란다.

정비서 맞네. 내 친구 아들일세. 어서 수갑을 풀게나.

서준 손에 찬 수갑을 풀어주고 나가는 경비1,2.

정비서 요즘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이해해주게나.

서준 선생님은요??!!

정비서 안 그래도 자넨 보고 싶어 하셨어. 지금 손님과 계시니 나오면 바로 뵈지.
.. 그전에 자네 얼굴부터 씻어야겠네~

웃는 정비서에게 민수 사진을 보여주는 서준.

정비서 .. 자네가 어떻게??!! 이 사람.. 지금 어딴나??

서준 오늘 새벽에 암살한 사주한 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정비서 (당황) 으음.. 애통함을 금할 수 없네. 시대의 비극일세.

서준 (피 묻은 사진을 건네주며) 그 자의 마지막 암살 대상입니다.

피 묻은 사진을 보던 정비서, 눈을 크게 부릅뜨더니 급히 전화기를 든다.

정비서 지금 위에 누구야? .. 무장 검사는?? 뭐??!!

 당장 올라가!! 나도 바로 갈 테니까. (전화를 끊으며) 같이 가세.

당황한 얼굴로 경교장 2층으로 급히 향하는 정비서, 서준도 뒤따르고..

총을 든 경비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2층에서 남자 큰 소리가 들리더니 욕설과 함께.. ‘탕!탕!!탕!!!’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는 정비서와 경비들!!
곧, 비명과 고함 소리, 거칠게 몸싸움 나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란스러움에 힘이 빠져 2층 계단에 주저앉는 서준.
그때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
경교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사분란하게 2층으로 올라간다.
몸 싸움 벌리는 소리나더니, 헌병과 함께 끌려 내려오는 장교복 입은 30대 남자!!
얼굴에 두려움 대신에 확신과 옅은 웃음이 가득하다.

힘없이 경교장을 나가는 서준, 울분과 슬픔으로 가득 찬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온다.

155. 민회장 집 -저녁

고풍스러운 거실에 책과 골동품으로 가득하다.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민회장. 그때 문이 열리고 서준이 들어선다.

서준 (분노) 호랑이 사냥을 계획한 게 당신입니까?
민회장 한 잔 해.
서준 김구 선생님을... 어떻게...
민회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서준 얼굴이 창백해진다.

민회장 (위스키 마시며) 좋은 날 올 거야.
서준 (민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우리가..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 따라 올테니까.

서준이 문을 향해 걸어가고,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연하다.

민회장 (서준의 뒷모습을 보며) 넌 다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서준이 걸음을 멈추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간다.
민회장, 마시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버린다.

156. 장례식 몽타쥬

- 경교장 주위를 긴 줄을 지어 조문을 하는 시민들.
- 총탄으로 깨진 경교장 2층 유리창 너머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시민들.
-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긴 시민들.
- 효창공원에서 슬픔 속에서 거행되는 선생의 장례식.

157. 서준 집 정원 - 밤

장례식을 보도하는 뉴스 소리 들리고,
정원 한쪽에서 불타고 있는 지식의 수사 자료들과 피 묻은 사진!!
서준은 굳은 얼굴로 마지막 남은 지식 편지를 불 속에 던져버린다.
연기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는 증거들!!
혼란스럽게 바라보던 서준, 점차 서늘하게 변하더니, 이내 무표정해진다.

158. 중부서 - 아침

무표정한 얼굴로 중부서로 들어오는 서준.
중부서는 슬픔에 잠긴 세상과 달리 생기가 넘쳐난다.
몇몇 경찰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난치고.
서준이 지나가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경찰들.

159. 경무국장실 - 오후

책상에 쌓인 결재서류를 처리하느라 바쁜 서준.
사인을 하다 ‘전차학살 사건’ 수사 파일을 보고,
‘좌익단체들의 마약 이권 다툼’으로 사건 종결되었다.
사무적으로 결제 칸에 사인을 하는 서준, 다른 결재서류를 보는데...

(소리) 살살해~

움짤 놀라는 서준, 환하게 웃는 지식이다!!
하지만 이내 정현 얼굴로 돌아온다.

서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셨습니까.
정현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하고) 정신없었지?
서준 (사무적인 웃음) ..

정현 살다 살다 이런 난리는 처음이야.
 .. 이럴 때 너무 열심히 하지마. 주위 사람들이 싫어해.
 정.. 할 게 있으면 사람들 없을 때 하든지, .. 아니면 집에서 해.
 서준 (고개 숙이며) 말씀 가슴 깊이 잘 새기겠습니다.
 정현 조연도 길어지면 잔소리 될테니까.. 갈게.
 서준 .. 식사라도 같이..
 정현 안 그래도 만찬이 있을 거라네. 참석하라고 난리야. 저녁에 미술관에서 봐.

배웅하려는 서준에게 그냥 일하라며 손짓하고 나가는 정현.
 무표정하게 서 있던 서준, 자리로 가서 남은 결재서류들을 처리한다.

160. 미술관 앞 - 밤

어둠 속에 잠긴 미술관에 도착하는 자동차.
 차에서 내린 서준, 주위를 둘러본다.
 불이 꺼진 채 인적이 끊긴 미술관. 너무 늦게 온 걸까??
 다시 자동차에 올라타는 서준.
 그때 ‘툑툑!!’ 자동차 유리창을 두드리는 손, 총을 든 회색정장들이다.

161. 미술관 복도 - 밤

전등이 깜박거리는 어둑해진 복도를 회색정장들과 걸어가는 서준.
 어둠 속에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진다.
 전시실 앞을 지키는 회색 정장, 서준을 보자 씨익 웃더니 문을 열어준다.

162. 미술관 전시실 - 밤

전시실로 들어오는 서준.
 테이블 위에는 담배, 술, 둥근 탄창의 파발총이 놓여있다.
 순간 전등이 깜빡거리고 ‘으아아악!!!’ 터져 나오는 남자 비명소리!!
 보면, 전시실 한쪽에 고개 숙인 피투성이 남자가 줄에 묶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 앞에서 전기 콘센트로 스파크를 일으키는 재영과 무표정한 정현.

재영 왔어??
 서준 (고개 숙인다) .. 늦었습니다.
 재영 요즘 활약이 대단하다며??

재영 옆에서 히죽거리는 회색정장들, 경교장 암살범을 체포해갔던 헌병들이다.
만신창이가 된 남자 머리를 치켜드는 재영.

재영 아는 얼굴이지?!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성욱이다.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는 서준.
전기 콘센트로 스파이크를 일으키더니 성욱 몸에 쿡쿡 찔러대는 재영.
그럴 때마다 깜빡거리는 전등과 몸에서 타는 연기가 피워 오른다.

재영 지들 오야지도 저 세상 갔는데.., 도통 입을 안 여네. 독종이야 아주 독종..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극심한 고통에 꿈틀거리는 성욱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서준.
정현과 재영, 회색정장들이 서준을 지켜본다.

서준 (총을 꺼내며) 용의자 자백 따윈 필요 없습니다.
 (성욱 머리에 총을 겨누며) 증거 또한 무의미하구요.
 (총 노리쇠를 당기며) 저라면 재판 없이 처단합니다.
재영 (서준 총을 막으며) 워.. 워... 우리 서준이도 일꾼 다 됐구나!!
 언젠는 ‘그따위 불법행위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더니만~ 하하
정현 (성욱에게 다가가) 반민특위 최종보고서를 내 놔!!
 안전만큼은 보장 해줄테니까.
재영 ..에헤... 우리 경무국장님은 참 물러.
 (테이블 위 가죽 가방을 열며) 사람은 다 똑같거든.
 (고문 도구를 고르며) 입을 닫고 버티지만 하나씩 살을 벗겨내고
 뼈를 발라내면 결국엔 닫혔던 입이 스르르.. .. 두드리면 열리리라!!

재영의 장난스런 말에 움찔하는 서준!!
재영은 전기 콘센트에 고문 도구를 꽂아 성욱 몸을 찌른다.

재영 최종 보고서 어딴어??!!
성욱 ...아아아악!!!
재영 (고문도구로 찌르며) 두드리면 열리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 소리에 점점 눈에 살기가 도는 서준
고통에 몸부림치던 성욱,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재영 그 봐.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지?
 물론 고집 피우다 똥, 오줌 다 싸고 미쳐버리는 놈도 있지만..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 안 그래??

자신의 고문 실력에 한껏 고무된 재영, 성욱 머리를 치켜든다.

재영 미련떨지 말고 마무리하자. .. 최종보고서.. 어디 숨겨놔어??

피범벅이 된 성욱, 힘겹게 말을 하는데...

재영 뭐라고?? 크게 말해 봐.
성욱 (뭐라 말을 하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
재영 (성욱 입에 귀를 바짝 대며) 뭐?? 어디라고??!!

순간, ‘아악!!’ 비명이 터져 나오더니 후다닥 뒤로 물러나는 재영, 목에서 붉은 피가 흐른다.
재영의 붉은 살점을 내뱉는 성욱.

성욱 .. 조국 해방을 위해 일본 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 없었다.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당하다니..
 가 죽고, 수백 번 죽어서라도 저주가 내리게 하겠다.
 이 땅에 저주가 내릴 것이다.

실성한 듯 정신없이 웃기 시작하는 성욱!!
목에 피를 막으며 흥분한 재영, 권총을 꺼내더니 성욱을 겨눈다.

정현 (막으며) 어르신 지시를 잊으셨습니까??
재영 (살기) 내 도움 없이는 뒤도 못 닦는 이빨 빠진 그 늙은이 말이야?
 .. 비켜. 도주하길래 사살했다 그러면 돼.
정현 특위 최종보고서는 찾아야..
재영 (정현 뺨을 후리치며) 이 새끼.. 많이 컸네. (툭 치며) 어이 김정현이!!
 나 아니었으면 지금 집에서 손 빨고 있어. 어따 대고 토를 달아??!!
정현 .. !!
재영 (총으로 정현을 툭툭 밀며) 왜.. 이 계급장이 널 지켜 줄 것 같냐??
 (더 밀며) 나 없이도 그 자리 지킬 수 있겠냐구??!! 건방진 새끼야!!

재영의 독기에 시선을 떨어트리는 정현.
흥분한 재영, 총으로 성욱을 겨누는데...

서준 알리바이는 확실해야죠!!

앞으로 나서는 서준.
다들 시선이 쏠리고.
서준은 재영을 지나쳐 테이블 위에 있는 따발총을 집어든다.

서준 ‘빨갱이, 빨갱이 총에 죽다.’
재영 .. ‘빨갱이, 빨갱이 총에 죽다.’?? .. 괜찮네. 그래. 괜한 시비 안 잡히려면

확실해야지~ 본청 경무국장은 이제 자네 거야. 내가 책임지지.

재영이 옷자 따라 웃는 회색정장들.

서준, 따발총에 70발 둥근 탄창을 끼운다.

성욱 (서준을 쏘아보며) 네 놈도 개가 다 됐구나. 부끄럽지 않느냐??!!
서준 (피식) ..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죠?
재영 두드려서 안 열리는 놈 못 봤다니까!! (손을 들며) 이 손이 증명해~

철컹!! 따발총을 장전하는 서준, 성욱 앞에 선다.

서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친구도,
가족도, 자신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됐죠.
재영 (성욱을 보며) 꼭 그렇게 미련 떠는 놈 있다니까.
근데 그 놈은 왜 바보 천치가 된 거야??
서준 (살기어리게 웃으며) .. 부끄러워서요.
재영 부끄러워서?? 그딴 것 때문에??!! 바보 맞네. 누군데?
서준 그 사람 이름은.. 이.재.석!!
재영 재석..?? 이재석이 누구야??!!

서늘한 광기의 서준, 성욱을 노리던 총구가 재영과 회색정장에게 향한다.
깜짝 놀라는 재영과 회색정장들.

재영 뭐야?? 왜 이래?? 미쳤어??!!
서준 이.재.석. .. 니들이 바보라 비웃던 내 아버지다!! 개자식들아!!!

순간, ‘드르르륵!!!!!!’ 불을 뿜는 서준의 따발총!!

놀라 급히 총을 꺼내지만 쏟아지는 총탄 세례에 갈기갈기 찢겨져나가는 회색정장들.

당황한 재영, 회색정장을 방패 삼아 몸을 숨기며 총을 쏘대고. .

‘드르르륵!!!’ ‘탕!탕!탕!탕’!!

총소리에 놀라 전시실로 달려 들어온 남은 회색정장들도 서준의 연발사격에 피투성이가 된다.

놈들의 총탄에 비틀거리지만, 남은 총알을 다 쏟아붓는 서준.

‘철컹! 철컹!’ 서준의 총알이 바닥났다.

몸을 숨긴 재영, 권총을 집어 들어 서준을 노리고.

서준도 권총으로 재영을 쏜다.

‘탕!탕!탕!!!’ ‘파!팍!팍!’ 피를 튀며 비틀거리는 서준과 재영.

서로 죽일 듯 노려보며 마지막 목숨을 노리는데...

‘찰각! 철컹!’ 서준과 재영의 총탄이 비었다.

빈총을 들고 살기어린 눈으로 노려보는 서준과 재영.

그때 몸을 숨긴 정현이가 고개를 치켜든다. .

재영 저 새끼 씹!! 빨리!!

움찔하던 정현, 권총으로 서준을 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현을 바라보는 서준.

재영 뭐 해?? 빨리 저 새끼 안 죽이고!! 미친 새끼.. 빨리 씹!! 어서!!! .

악다구니를 퍼붓는 재영을 바라보는 정현, 다가가 재영 입에다 총구를 쑤셔 넣고.
입에 총구가 쑤셔진 재영, 눈이 희둥그래지며 뭐라 껌껌 되는데...

정현 말 많은 시끄러운 새끼!!

‘탕!’ 뒤로 나자빠지는 재영, 땅바닥에 쓰러지고, 검 붉은 피에 잠긴다.
붉은 피를 물든 도살장으로 변해버린 미술관 전시실.

정현 ..휴.. .. 이제 어떡하냐??

아수라장으로 변한 전시실을 보더니 머리를 감싸는 정현.
부상 입은 서준은 성욱에게 다가가 묶였던 줄을 풀어준다.
서준과 성욱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정현.
서준은 정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빙그레 웃고.
흔들리는 정현의 눈빛, 더 심하게 흔들리는 정현의 총구!!

(소리)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163. 경찰청 조사실 - 오후

예리한 눈빛의 조사관들 앞에 서 있는 정복 입은 서준과 정현.
서준은 왼팔에 붕대를 감고 있다.

조사관1 그러니까 한지석 경정은 반민특위 관련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전차학살 사건은 한경정 암살을 은폐하기 위한 이중사건이었다??

정현 시체를 숨기기엔 학살 현장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니까요.

조사관2 그럼 도대체 미술관에서는 뭘 일이 벌어졌고 자네들은 왜 거기 간 거야?
서준 노과장님께서 지원을 요청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하자마자 총소리가 들렸구요.

조사관3 청와대가 애지중지하는 노과장님과 서청 8명이 죽었어. 그것도 청와대
코 앞에서!! 치안 소홀로 우리 쪽 모가지 수십 개가 날아갈 거라는 거야.

정현 (얼굴이 굳는다) ..

서준 (미소) ..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서준의 대답에 놀라는 사람들.

조사관3 ..기회?!

서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청와대 어른신께서 즐겨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조사관1 (멈칫) 그게 이 난리랑 무슨 상관인데?!

서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판을 깨야죠. 그래야 흐름이 바뀌니까요~

조사관2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서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뒤통수까지 하시겠습니까?

술렁이는 조사관들, 서준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앞을 쳐다본다.

조사관2 (곰곰히 생각) .. 이참에 고인 물을 대체한다.. 가능할까?

서준 걱정 안 합니다. 우리에겐 빨갱이가 있으니까요~

조사관1 뭐? .. 빨..갱이??!!

조사관2 울커니!! 빨갱이 도움 없이 누가 청와대 근처에서 그런 짓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조사관3 빨갱이라면.. 뭐든 가능하지요.

서준 노과장님은 빨갱이로부터 청와대를 지키다 산화한 반공투사로 만들면 되구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빨갱이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조사관들끼리 수군거리더니, 서준과 정현을 매섭게 쏘아본다.

긴장하는 정현, 서준은 조사관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조사관3 ‘대한민국 곳곳에 빨갱이가 있다.’ 한 줄 나오네.. 어른신이 좋아 하실거야~
좋아. 이걸로 가자. 이참에 썩은 물도 청소하고.. 이번 희생자들은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자로 일계급 특진과 훈장까지. 깔끔하네~

조사관1 (서준과 정현을 쏘아보며) 당분간 입조심하고 죽은 듯이 지내. 나가 봐.

경례를 하고 나가는 정현, 하지만 서준은 꿈쩍않고 서 있다.

조사관2 엥? 또 무슨 문제?!

서준 (미소) 나라 지킨 애국자는 많을수록 좋겠죠?

서준의 대답한 요구에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조사관들.

긴장한 정현, 옆에 있는 서준을 쳐다보고, 서준도 정현을 쳐다보다 환하게 웃는다.

164. 빨갱이 소탕 몽타쥬

빠른 음악과 함께 이어지는 화면들.

일간지

‘미술관 학살 사건’ 수사 발표 회견장 사진 위로 빠르게 찍히는 기사!!

“충격!! 빨갱이에 물든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마약을 판 파렴치한 빨갱이 세력!!”

“고백!! 대한민국 곳곳에 빨갱이가 있다!!”

배포된 신문들이 길가 호외로 뿌려지고,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표정이 험악해진다.

경찰서

경찰서를 급습하는 형사들, 나이 든 경찰 간부 손에 수갑을 채우고.
거칠게 항의하지만 경찰 간부 머리를 총을 내려치는 서준.
경찰 간부 책상을 뒤지다 뭔가를 발견 한 듯 치켜드는데., 맏스의 ‘자본론’이다!!
형사들이 경찰 간부 방을 수색한다.

도로

살 찢 고위 장교가 짚차를 타고 부대로 향한다.
신호등이 걸리지만 그대로 통과하고, 순간 앞에 멈추는 경찰차량.
형사들이 나와 짚차 문을 열고 고위 장교를 끌어내린다.
총을 꺼내는 고위 장교, 형사들이 고위 장교를 때려 잡는데...
피 뚝이 된 고위 장교를 실고 사라지는 경찰 차량들.
서 내리는 부대 대대장, 그 앞에 경찰차가 멈추고.
회사 사장을 경찰차에 밀어 넣더니 빠르게 사라지는 사찰과 형사들.

노조 사무실

사무실을 급습하는 경찰들.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몽둥이 세례에 피떡이 되는 노조 사람들.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경찰 트럭에 실린다.

취조실

피떡이 된 경찰 간부 앞에 사진을 들이미는 서준.
공포에 질린 경찰간부는 사진 속 인물 중 한 사람을 손으로 지목하고.
빨갱이 자백이 적혀진 조서에 사인을 한다.

호텔 레스토랑

민회장과 식사를 하며 웃는 서준.
민회장이 서준에게 부유하게 생긴 중년남자를 소개해주고,
서로 명함을 교환하는 서준.
이전보다 노련하고 더 세련되어져 있다.

청와대

청와대를 향하는 서준 자동차.
검문도 하지 않고 바로 통과한다.

럭키클럽

‘럭키클럽’에서 축하주를 마시는 서준과 경찰 간부들.
옆자리에서 술 먹던 윤창섭들이 서준 자리로 찾아와 술을 따르고,
느긋하게 술을 마시는 서준.

일간지

“빨갱이 척결은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
“빨갱이를 몰아내고 남북 통일 이루자.”
“빨갱이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안전!!

165. 중부서 앞 - 아침

화면 밝아지면, 중부서 앞에 도착하는 검은 세단, 경찰복 입은 기사가 열린 나와 자동차 문 열면,
정복 입은 서준, 계급장이 더 무거워졌다.

(소리) 자리가 잘 어울리네요~

166. 중부서 서장실 - 오후

넒직한 서장실에서 결재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정현.
서준이 들어오자 함박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정현 바쁘신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다 찾아 주시고.
 어르신과 매일 독대한다며? 영어로?
서준 적적하시다네요~
정현 진작에 영어를 배웠어야 했는데..., 망한 일본어는 어디 쓸 데도 없고 말이야~

비서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차를 마시는 서준과 정현.

정현 .. 소식 들었나?
서준 ..??

정현 특위 특경대장 고성옥 있잖아. 죽은 줄 알았는데.. 봤다는 사람이 있어.
북쪽에서.. (서준을 보며) 자네가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서준 (정현을 뚫어지게 보다 빙긋 웃으며) 님은 사람이 어디 한 둘 인가요?
정현 (뚫어지게 보다 웃으며) 그지?~ 자네가 일은 확실하잖나~ ..그래 .. 미국행은??
서준 어르신이 더 있다가라고 놔주지를 않네요.
정현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결혼식 올리고 가. 아버님은?
서준 (미소) 여전하시죠. 중부서 예산은 추가로 더 채워질 겁니다. 최고 한도액으로.
정현 매번 고마워~
서준 (자리에서 일어난다) ..
정현 (일어나며) 근데 참 아까워.. 반민특위 최종 보고서 말이야. 그것만 손에 넣었어도
청장.. 아니 장관도 노려볼 만 한데 말이야.. 못 찾은 거.. 맞지?
서준 (미소) 그럼요. 그리고 지금 그딴 걸 누가 신경이나 써겠어요?
정현 하긴~ .. 우리.. 좋은 날 오겠지?
서준 좋은 날 오게 해야죠~

167. 중부서 - 오후

중부서를 나가는 서준.
지나가는 경찰들이 서준을 보자 경쟁이라도 하듯 달려와 경례를 하고.
능숙하게 인사받으며 나가는 서준.
그때, 새로 부임한 앳된 경찰이 바짝 얼은 채 중부서로 들어오고.
그 경찰을 보는 서준, 씩씩하게 미소 짓다 중부서를 나간다.
어두워지는 화면.

168. 서준 집 - 새벽

검은 화면 위로 날짜가 빠르게 흐르다 365일이 지나 멈추고.

... 1년 후.

저음의 첼로 소나타가 울려 퍼지는 서준의 적산가옥.
이전보다 더 고급진 가구와 가전제품, 훈장과 표창장이 빼곡하다.
마루에 누워 진공관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감상하는 서준.
옆에 있던 검은 자료철을 넘겨보는데, 반민특위가 만든 최종보고서다!!
반민족 친일자들의 생생한 행적들이 적힌 증언과 자료들로 기록된 보고서.

특위 최종 보고서와 벽에 붙은 훈장들을 번갈아보는 서준,
서서히 눈을 감으며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흥얼거리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묵직한 저음!! 점점 가까워지고.

그때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한가롭던 서준의 적산가옥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묵직한 충격음!! .. 멀리서 들려오는 포격 소리다!!

천장을 보며 웃는 듯, 우는 듯 미묘한 표정을 짓는 서준, 화면에 가득 차고.

암전..

곧, 검은 화면 위로 떠오르는 선명한 날짜!!

.... **1950.6.25.**

- to be continued...